

제 2 장 標識碑 및 地理誌

1. 직장공파 세거비(直長公派 世居碑)

이곳은 능성구씨 시조(始祖) 검교공(檢校公) 휘(諱) 존유(存裕) 이래, 우리구씨 7세조 고려말 도원수(都元帥)를 지내신 휘(諱) 성로(成老) 공(公)께서 광주(廣州) 목리(木里)에 모셔져 있고, 조선(朝鮮) 세조조(世祖朝)에 영의정(領議政)을 지내신 충렬공(忠烈公) 휘(諱) 치관(致寬)은 9세조로 광주 열미리(悅美里)에 모셔져 비로소 광주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13세 직장공(直長公) 휘 징(徵)께서는 직장공(直長公) 파조(派祖)로써 현 하남시(河南市) 감일동(甘一洞) 능내(陵內)에 모셔져, 후손들은 이곳에 약 450여 년간 정착(定着) 세거(世居)하였으므로 이를 영원토록 직장공파의 세거지(世居地)로 기념 보존 코져 자손들의 헌성금(獻誠金)으로 이비(碑)를 건립합니다.

서기 1996년 (병자) 5월 일

능성구씨 직장공파종중회

14대손 회장 자관(滋寬) 근찬(謹撰)

2. 세거지 건립(世居碑 建立)에 즈음하여

위 구문(具門)은 시조(始祖) 검교공(檢校公) 휘(諱) 존유(存裕) 이래(以來) 근(近) 800년을 대대(代代)로 세계(世系)를 이어 살아오면서 칠세조대(七世祖代)에 자손(子孫)이 크게 번창(繁昌)하였고, 우리는 도원수공(都元帥公) 휘(諱) 성노(成老)을 파조(派祖)로 모시고 있고, 또한 구세조(九世祖) 충렬공(忠烈公) 휘(諱) 치관(致寬)께서는 구문(具門) 유일(唯一)의 영의정(領議政)을 지내신 분으로서 선조(先祖)들의 업적(業績)과 덕행(德行)이 크게 알려지면서 이땅의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 자리 잡게 되

었으니 우리 후손(後孫)들은 자랑스러운 조상(祖上)님들을 모셨다는 것을 큰 영광(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십삼세조(十三世祖) 직장공(直長公) 휘(諱) 징(徵)께서 현 하남시(現河南省) 감일동(甘一洞) 능내(陵內)에 정착(定着)하신 후 450여년(餘年)을 면면(綿綿)히 이어 자손(子孫)이 크게 번성(繁盛)하여 경향각지(京鄉各地)에 살아오고 있으나 직장공(直長公) 이래(以來) 조상(祖上)님들의 묘(墓)를 모시고 시제(時祭)를 올리는 곳이 우리의 고향(故鄉)이며 뿌리이며 세거지(世居地)이기에 이를 기념(記念)코자 자손(子孫)들의 뜻을 모아 성금(誠金)으로 효죽동(孝竹洞) 입구(入口)에 능성구씨(綾城具氏) 세거지(世居地) 도원수공파(都元帥公派) 직장공(直長公) 휘(後) 징(徵) 후손(後孫)이란 비(碑)를 건립(建立)코자 하오니 종인(宗人) 제위(諸位)께서는 적극적(積極的)인 협조(協助)와 후원(後援) 있으시길 바랍니다.

1996년 5월 일

능성구씨(綾城具氏) 직장공종중(直長公宗中)

14대손(代孫) 회장(會長) 구자관(具滋寬) 근찬

3. 사적비문(史蹟碑文)

< 대전(大田) 성씨공원(姓氏公園) 사적비 전문(史蹟碑 前文) >

이곳 능주(綾州) 연주산(連珠山) 정동(政洞)은 우리 능성구씨(綾城具氏)시조고비(始祖考妣) 양위(兩位)분의 영령(英靈)을 모신 단소(壇所)와 이세조 고비(二世祖考碑) 양위(兩位)분의 영령(英靈)과 체백(體魄)을 모신 묘소(墓所)가 있는 우리 능성구문(綾城具門)의 성역(聖域)이다.

우리의 시조고(始祖考)께서는 고려조(高麗祖)에서 문과(文科)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하시어 벼슬이 벽상삼한삼중대광검교상장군(壁上三韓三重大匡檢校上將軍)에 오르신 휘(諱) 존유 공(存裕公)이시고 조상비(祖上妣)께서는 신안주씨(新安朱氏)이시니 송(宋)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로 고려(高麗)에 망명(亡命)하신 청계공(淸溪公) 휘(諱) 잠(潛)의 따님이요 유학계(儒學界)의 거성(巨星)이신 문공(文公)[朱子] 휘(諱) 희공(熹公)의 현손녀(玄孫女)이시며, 우리의 이세 조고(二世祖考)께서는 상장군부군(上將軍府君)과 신안주씨(新安朱氏)의 독자(獨子)로 고려고종(高麗高宗)때 출생(出生)하시어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시고 전주(全州)고을의 사록참군(史錄參軍) 겸(兼) 장서기(掌書記)로 출발(出發)하여 동평장사(同平章事)[정이품(正二品)]에 휘(諱) 민첨 공(民瞻公)이시고, 이세 조비(二世祖妣)께서는 면천박씨(沔川朴氏)이시니 봉정대부(奉正大夫)이신 휘(諱) 윤량공(允亮公)의 따님이요 고려개국공신(高麗開國功臣)으로 태사무공공(太師武恭公)이신 휘(諱) 지겸공(智謙公)의 후손(後孫)이시다. 평장사공(平章事公)이 외아들 휘(諱) 연(瑣)을 낳으시니 고려조(高麗朝)에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안동면도감(安東面都監)의 판관(判官)을 지내시고 일곱째 아들 휘(諱) 예(藝)의 귀현(貴顯)으로 문하 좌정승 면성부원군(門下左政丞沔城府院君)에 증직(贈職)되시니 우리 능성구씨(綾城具氏)의 삼세조(三世祖)이시다. 좌정승공(左政丞公)이 낳으신 아들 칠형제(七兄弟)가 모두 귀(貴)히 되어 가문(家門)을 더 높이셨다. 맏이신 휘(諱) 의(宜)는 삼사소윤(三司少尹)이요 둘째 휘(諱) 원개(元凱)는 제학(提學)이요 셋째 휘(諱) 백전(伯全)은 장군(將軍)이요 넷째 휘(諱) 성연(省延)은

봉덕군(奉德君)이요 다섯째 휘(諱) 이(怡)는 대제학(大提學)이요 여섯째 휘(諱) 천용(天容)은 직장(直長)이요 일곱째 휘(諱) 예(藝)는 중대광판전 의사(重大匡判典儀寺)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이시니 이하 우리 능성구씨(綾城具氏)의 사세조(四世祖)이다. 사세조(四世祖) 중(中) 서일(序一)인 소윤공(少尹公)이 총랑(摠郎) 휘(諱) 기(技)와 총제(摠制) 휘(諱) 해(核)를 낳으시니 총랑공(摠郎公)은 아들대에서 손(孫)이 끊기고 총제공(摠制公)이 부사(府事) 휘(諱) 서진(瑞珍)을 부사공(府事公)이 판사파(判事派) 파조(派祖)[칠세(七世)]인 사재감판사(司宰監判事) 휘(諱) 현좌(賢佐)와 전서파(典書派) 파조(派祖)인 휘(諱) 현노(賢老)를 낳으셨으며 서이(序二)인 제학공(提學公)에서 서삼(序三)인 장군공(將軍公)과 서사(序四)인 봉덕군(奉德君)과 서오(序五)인 대제학공(大提學公)까지 사형제(四兄弟)는 아들 또는 손자대(孫子代)에서 후사(後嗣)가 끊기고 서육(序六)인 직장공(直長公)이 찬성사(贊成事) 휘(諱) 식(軾)을 찬성사공(贊成事公)이 휘(諱) 복(福)과 군사(軍事) 휘(諱) 록(祿)을 낳으셨으나 복공(福公)은 아들이 없고 군사공(軍事公)이 시랑파(侍郎派) 파조(派祖)인 휘(諱) 영량(英良)을 낳으시고 서칠(序七)인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이 중대광판전리판서면성군(重大匡典理判書沔城君) 휘(諱) 영검(榮儉)을 면성군(沔城君)이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시문정공(諡文貞公) 휘(諱) 위(禕)와 상호군(上護軍) 휘(諱) 흥(興)과 휘(諱)희禧)와 공조전서(工曹典書) 휘(諱) 의(義)를 낳으시니 문정공(文貞公)이 좌정승공파(左政丞公派) 파조(派祖)인 문하좌정승(門下左政丞) 시문절공(諡文節公) 휘(諱) 홍(鴻)과 판안동파(判安東派) 파조(派祖)인 판안동도호부사(判安東都護府事) 휘(諱) 성량(成亮) 도원수파(都元帥派) 파조(派祖)인 강원도도원수(江原道都元帥) 휘(諱) 성노(成老)와 판서(判書) 휘(諱) 성우(成祐)와 재신(宰臣) 휘(諱) 성덕(成德)을 낳으시고 상호군(上護軍)이 낭장파(郎將派) 파조(派祖)인 중랑장(中郎將) 휘(諱) 현보(賢輔)와 감무파(監務派) 파조(派祖)인 평택감무(平澤監務) 휘(諱) 현기(賢器)와 임천군사파(林川軍事派) 파조(派祖)인 임천군사(林川軍事) 휘(諱) 충노(忠老)를 낳으셨으며, 전서

공(典書公)이 참판파(參判派) 파조(派祖)인 참판(參判) 휘(諱) 성미(城美)와 문천군사파(文川軍事派) 파조(派祖)인 문천군사(文川軍事) 휘(諱) 원립(爰立)을 낳으시니 칠세조(七世祖)가 십삼종형제(十三從兄弟)분이었으나 성우(成祐), 성덕공(城德公) 형제(兄弟)의 무고무후(无攷无后)로 십일개파(十一個派)만이 형성되어 내려오다가 불행(不幸)이도 전서파(典書派)와 임천군사파(林川軍事派)가 중도에 절손(絶孫)되어 우리 능성구씨(綾城具氏)는 구파(九派)가 현존(現存)하여 그 자손(子孫)이 창성(暢盛)하고 있다.

우리 능성구씨(綾城具氏)는 고려(高麗) 고종대(高宗代)인 십이세기(十二世紀) 초기(初期)

득성이래(得姓以來)로 저명(著名)하신 충신절사(忠臣節士)와 명망(名望) 높은 문무대작(文武大爵)이 잇따라 배출(輩出)되어 오문(吾門)을 현양(顯揚)하시니 분야별(分野別)로 열거(列舉)하면 학덕(學德)으로 서원(書院) 또는 향사(鄉祠)에 봉향(奉享)되신 분이 아홉[九]분이요. 충신효열(忠臣孝烈)로 국조실록(國朝實錄)등에 오르신 분이 일백다섯[百五]분이요. 국난(國難)에 앞장서 창의록(倡義錄)에 실리신 분이 아홉[九]분이요 공신록(功臣錄)에 실리신 분 중 원공신(元功臣)이 열(十)분이며 원종공신(元從功臣)은 아흔여섯[九十六] 분이요 시호(諡號)를 받으신 분이 열일곱[十七]분이요 군(君)에 봉(封)해지신 분 중 부원군(府院君)이 열두(十二) 분이며 군(君)은 스물한[二十一] 분이요 청백리(清白吏)에 뽑히신 분은 두[二] 분이요 암행어사(暗行御史)를 지내신 분은 여덟[八] 분이요 국구(國舅)[왕(王)의 장인(丈人)]가 한[一] 분이요 부마(駙馬[왕(王)의 사위])가 다섯[五] 분이요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신 분이 예순일곱[六十七] 분이고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하신 분이 오백세[五百三] 분이시며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에 합격(合格)하신 분이 이백일곱[二百七] 분이시다.

또 벼슬길에 오르신 분 중에서 당상관(堂上官) 이상으로는 정승(政丞)이 세[三] 분이요 찬성(贊成)이 다섯[五] 분이요 판서(判書)[장관(長官)]가 열일곱[十七] 분이요 등단대장(登壇大將)[합참의장(合參議長)]이 열

[十] 분이요 참판(參判)[차관(次官)]이 스물여덟[二十八] 분이요 참의(參議)[차관보(次官補)]가 서른일곱[三十七] 분이요 대사헌(大司憲)이 네 [四] 분이요 대사간(大司諫)이 일곱[七] 분이요 대사성(大司成)이 네[四] 분이요 승지(承旨)[비서관(秘書官)]가 스물다섯(二十五)] 분이요 한성판윤(漢城判尹)[서울시장(市長)]이 열여섯[十六] 분이요 관찰사(觀察使)[도지사(道知事)]가 스물일곱[二十七] 분이시고 문학(文學)의 대명사(代名詞)인 제학(提學)이 일곱[七] 분이요 선비의 선망(羨望)이던 옥당(玉堂)이 열한[十一] 분이요 호당(湖堂)이 네[四] 분이시었으며 비록 당하관(堂下官) 벼슬에 있으셨거나 벼슬하지 아니하시고도 학행(學行)과 문장(文章)을 세상에 널리 알려지신 분이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아아! 슬프도다 우리 시조(始祖)를 비롯 이,삼세조(二,三世祖)의 산소수난(山所受難)이여! 그 수난사(受難史)를 간추리면 시조고비(始祖考妣) 양위(兩位)분의 산소(山所)는 원래 화순군(和順郡) 춘양면(春陽面) 천태산(天台山) 왼쪽 풍취나대형(風吹羅帶形)에 모셔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행(不幸)히도 실전(失傳)하여 1924년(一九二四年) 구(舊)영모제(永慕齋) 옆에 설단(設壇)하였다가 다시 1949년(一九四九年) 높은 곳으로 이단(移壇)하였으나 단성(壇城)이 협소험준(狹小險峻)하여 1979년(一九七九年) 이곳에 이단봉사(移壇奉祠)하고 있으며 이세조 고비(二世祖考妣) 양위(兩位)분의 산소(山所)는 1500년(千五百年) 초(初)에 한때 타성(他姓)으로부터 점탈(占奪)당하는 수모(受侮)가 있었으며 고창(高敞) 선동(仙洞)에 모신 삼세조 고비(三世祖考妣) 양위(兩位)분의 산소(山所)도 오씨(吳氏)의 범장점거(犯葬占據)로 삼백여년(三百餘年) 동안 모시지 못하다가 분개한 몇몇 후손(後孫)들의 피나는 노력(努力)으로 1883년(一八八三年)에 완전승소(完全勝訴)하고 묘역(墓域)과 선산(先山)을 복구(復舊)하였다. 우리 모두는 이를 명심(銘心) 또 명심(銘心)하여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아아! 장하시도다! 선조(先祖)님들이시어! 영상(領相) 조현명공(趙顯命公)이 이세조(二世祖) 평장사부군(平章事府君)의 묘표(墓表) 머리말에

서 우리 능성구씨(綾城具氏)를 평(評)하기를 고금(古今) 역사(歷史) 속에서 명성(名聲) 높은 성씨(姓氏)를 살펴보면 혹은 무력(武力)으로 혹은 인척(姻戚)으로 지체가 높아진 가문(家門)은 많지만 모두를 겸(兼)하여 오래도록 번창(繁昌)한 성씨(姓氏)는 극(極)히 소수(小數)인데 능성구씨(綾城具氏)가 그 중(中)의 하나다 라고 기술(記述)하였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우리 모두 더욱 더 숭조애종(崇祖愛宗)하여 우리 능성구문(綾城具門)의 영세창달(永世暢達)에 이바지하여야 하겠다.

서기 2002년 3월 31일 謹豎(근수)

4. 世居碑(諱 得源孫)

도원수와 첨추공 득원계 (都元帥派 僉樞公 得源系)

능성구씨 첨추공계 세거지 유래 (綾城具氏 僉樞公系 世居地由來)

고려의 검교상장군(檢校上將軍) 휘(諱) 존유(存裕)를 시조로 모시는 능성구씨(綾城具氏)는 780여 년의 오랜 세월 단일 혈족의 맥을 이으면서 수많은 명장현상(名將賢相)을 배출한 이름난 가문으로 면면한 전통을 지녀왔으니 어찌 그 연원(淵源)이 유장(悠長)하지 않으랴. 조선초의 강원도(江原道) 도원수(都元帥)로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증직(贈職)된 7세(七世) 도원수공(都元帥公) 휘(諱) 성노(城老)는 파조(派祖)가 되시며 공주목사(公州牧使)로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과 능원부원군(綾原府院君)에 증직(贈職)된 목사공(牧使公) 휘(諱) 양(揚)은 8세(八世)가 되시고 좌익좌리공신(左翼佐理功臣)으로 곧은 정치의 수범을 보여 영의정(領議政)에 오르고 10여년간 출장입상(出將入相)하면서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의 칭호를 받은 동방의 청백리(清白吏) 충열공(忠烈公) 휘(諱) 치관(致寬)은 9세(九世)가 되신다.

16세 첨추공(僉樞公) 휘(諱) 득원(得源)은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증직(贈職)된 분으로 진작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올랐으니 세상이 어지러움에 벼슬길을 버리고 공주시(公州市) 의당면(儀堂面) 중흥리(中興里)인 이곳에 낙향하여 비로소 터를 닦고 뿌리를 내리니 지금으로

380여년 전 서기 1620년 전후의 일이었다. 90세의 천수를 누리시고 증정부인(贈貞夫人) 전주이씨(全州李氏)와 함께 중흥리(中興里) 당산에 누워 잠드신 첨추공(僉樞公)이야말로 진정 문중이 추앙하는 선조의 한 분이시다.

청렴한 선비정신과 용맹한 무사(武士)의 기질을 겸비한 자랑스런 선대의 혈통을 이어받은 첨추공(僉樞公)의 후손들로 누대에 걸쳐 문무대과(文武大科)를 거친 50여명을 헤아리는 당상관(堂上官)이 줄을 이었고 손(孫)

좌찬성공(左贊成公) 우익(右翼)의 자제 7형제가 모두 무과(武科)에 급제(及第), 당대에 8병사택(八兵使宅)이라는 칭호를 얻어 세인의 선망이기도 하였으며 현금(現今)에 이르기까지 정,재,관,문,무(政,財,官,文,武)등 각 분야에 저명인사들이 속출하여 가문을 빛내고 있으니 어찌 조상의 음덕이 아니라. 물을 마시매 그 근원을 생각하듯 추원(追遠)의 뜻이 남다른 후손들은 정성을 모아 자랑스런 선조님들의 행적(行蹟)을 기리고 그 고결한 정신을 오래도록 전하고자 유서 깊은 이곳에 유래비(由來碑)를 세우기로 하여 공(公)의 13대 사손(嗣孫) 종모(宗謨)가 내게 글을 청하매 내 비록 거친 글이나마 그 효성에 감동한 바 있어 일문(一文)을 적는다.

서기 2000년 6월 일

忠南大學校 教授 文學博士 宋百憲 짓고
韓國書藝家協會 理事 竹史 朴忠植 쓰고
僉樞公 10代孫 永會外 後孫一同 세우다.

6. 集姓村(河南省 甘一洞)

하남시 감일동에 집성촌(集姓村)을 이루워 살아오고 있으며 십삼세(十三世) 구징(具徵)(내자시직장(內資寺直長) 이래(以來) 지금까지 450여년을 면면히 이어 살고 있는 능성구씨 세거지(綾城具氏世居地)이다.

능성구씨(綾城具氏)는 시조(始祖) 구존유(具存裕)께서 고려조(高麗朝)에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삼중대광(三重大匡) 검교상장군(檢校上將軍)을 지내셨으며 공(公)은 신안(新安) 주씨(朱氏)의 시조(始祖) 주잠(朱潛)(號 清溪, 주자(朱子)의 현손(玄孫)의 사위로서 1224년 (고려(高麗) 고종(高宗) 11년)에 중국(中國) 송(宋)나라의 한림학사(翰林學士)로서 난(亂)을 피(避)하여 고려(高麗)에 귀화하여 능성(綾城)(현재 전남(全南) 화순군(和順郡) 능주(綾州))에 정착세거(定着世居)할 때 함께 귀화(歸化)한 것으로 전(傳)하여지며 시조(始祖) 할머니는 신안주씨(新安朱氏) 시조(始祖) 청계공(淸溪公)(주잠(朱潛))의 따님이시니 그래서 본관(本貫)이 능성(綾城)이다.

시조이래(始祖以來) 근(近) 800여년을 이땅에 이어오며 자손(子孫)이 번창(繁昌)하였고 많은 인물(人物)을 배출(輩出)하면서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後) 7세조(七世祖)에 와서 단일세계(單一世系)를 벗어나 9개파(九個派)로 나뉘는데 고려말(高麗末) 조선초(朝鮮初) 강원도호부사(江原都護府使)를 지내신 도원수공(都元帥公)(휘(諱) 성노(成老))께서 우리의 파조(派祖)가 되시니 현재(現在) 광주군(廣州郡) 광주읍(廣州邑) 목리(木里) 갈마령 남록(葛麻嶺南麓)에 내외(內外)분의 묘(墓)가 모셔져 있고 그 이후(以後) 지금까지 600여년을 계속(繼續) 이어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광주(廣州)를 대표(代表)하는 씨족(氏族)이 되었다. 조선조(朝鮮朝)에는 그 넓은 광주(廣州)를 대표(代表)하는 삼성(三姓)의 기계유씨(杞溪兪氏), 능성구씨(綾城具氏), 함중어씨(咸從魚氏)를 일컬었으니 지금도 기계유씨(杞溪兪氏)는 현(現) 하남시(河南省) 상산곡동(上山谷洞)

일대(一帶)에 집성촌(集姓村)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으며 수많은 역사적(歷史的)인 인물(人物)을 배출(輩出)하였으며 함종어씨(咸從魚氏)는 현(現) 서울시 강동구(江東區) 고덕동(高德洞)에 세거(世居)하였으나 도시화(都市化)되는 과정(過程)에 자손(子孫)들이 뿔뿔히 흩어졌으며 능성구씨(綾城具氏)는 현재(現在) 하남(河南)·광주(廣州)에 아직도 대집성촌(大集姓村)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7세(七世) 파조(派祖) 구성노(具成老)(도원수공(都元帥公))이 정착(定着)하신 이래(以來) 8세(八世) 구치관(具致寬)(세조조(世祖朝) 영의정(領議政))의 묘(墓)가 광주군(廣州郡) 실촌면(實村面) 열미리(悅美里)에 모셔져 있으며 그 이후(以後) 12세(十二世)까지 모두 광주(廣州) 실촌면(實村面) 선영(先塋)에 모셨으나 13세 구징(具徵)(직장공(直長公))으로부터 하남시(河南市) 감일동(甘一洞)에 묘(墓)를 모신 이래(以來) 근 450여년을 이어 살아오고 있다.

자손(子孫)이 번창(繁昌)하여 묘하(墓下)에는 80여 세대(世帶)가 살고 있으나 경향각지(京鄉各地)에 나가 사는 자손(子孫)이 1000여 세대(世帶)가 되며 많은 인물을 배출(輩出)하였고 국가사회(國家社會)에 기여(寄與)한 역사적(歷史的)인 인물(人物) 현존(現存)하는 인물(人物)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하남시(河南市) 감일동(甘一洞)에 정착(定着)하신 13세 구징(具徵)(직장공(直長公))의 일화(逸話)를 역사적(歷史的)인 근거(根據)에 의거 기술(記述)코자 한다. (이 기록(記錄)은 「한국민족의 유산(韓國民族의 遺産)」 제7권 및 구씨문중(具氏門中)에 보존(保存)된 문서내용(文書內容)을 참고(參考)하였음.)

7. 綾城縣 建置 沿革

綾城縣本百濟沘陵夫里郡 一云竹樹夫里 一云仁夫里 新羅改綾城高麗初屬羅州仁宗二十一年置縣令本朝仁祖十年崇禎壬申以 仁獻王后姓貫陞號綾州置牧使其後甲午便張爲全羅南道綾州郡甲寅行政區域變更時合併和順郡郡名 古號 連珠 沘陵 竹樹

제 3 장 족보간행서문 및 중수내력

1. 대동보(大同譜) 간행(刊行) 년대(年代)

第一譜 乙亥譜 2권1질 1575년(宣祖 8년)

13世 思孟 13世 鳳齡 宣祖朝에 편찬

第二譜 丙申譜 6권1질 1666년(丙午)에 15世 仁暨

16世 文燦 修譜 未完城으로 中斷

18世 萬柱가 1708년(戊子)부터 1716년(丙申) 肅宗 42년까지
약 8년 修譜補缺하여 完成함

第三譜 丁未譜 12권1질 1781년(정조 11) 21世 允明 刊行

第四譜 癸丑譜 20권1질 1823년(숙종 23) 癸未年 에 20世 圭愼 20世
의 목 修譜하다가 未完成 23世 元植 等이 完成

第五譜 乙未譜 16권1질

1905년 永時 刊行

第六譜 癸卯譜 4권1질 1958년 大同譜 편찬위원회 刊行

第七譜 丙寅譜 1986년 刊行

第八譜 壬午譜 2002년 刊行

2. 波譜 刊行 年代

忠烈公派譜 1932년 壬申 刊行

直長公派譜 1979년 己未 刊行

3. 直長公 派譜序(1) 譯文

국가(國歌)엔 사기(史紀)가 있어 제왕(帝王)에 승통(承統)과 정교(政教)에 흠란득실(洽亂得失)을 기록(記錄)하여 후지군주(後之君主)로 하여

금 척려언(惕勵焉)하고 사가(私家)엔 족보(族譜)가 있어 조종(祖宗)의 소
 목(昭穆)과 백세(百世)에 종지파분(宗支派分)을 기록(記錄)하여 이후세지
 자손(以後世之子孫)으로 하여금 상애(相愛)하는 것이 가보(家寶)의 대의
 (大義)요 존조경중(尊祖敬宗)과 돈친목족지도(敦親睦族之道)가 생의(生
 矣)나니 연(然)이나 조종(祖宗)께서 기유수통지대도칙(既有垂統之大道則)
 자손(子孫)된 자(者) 전(傳)하고 이어서 모침모추(母忝母墜)하는 것이 이
 존조경중(尊祖敬宗)하는 실야(實也)니 비록 백대(百代)에 먼 일가라도 시
 동일실(視同一室)하여 서로 권(勸)하고 인도(引導)해서 잘 조종(祖宗)의
 유업(遺業)을 지키는 것이 곧 돈친목족(敦親睦族)하는 도리야(道理也)라
 아구(我具)가 고려검교공(高麗檢校公)으로부터 위자성자(爲子姓者) 기려
 불억(其麗不億)인데 명상거경(名相巨卿)과 덕학문장(德學文章)이 이 사책
 (史冊)에 실려서 만세(萬世)에 빛나니 이 실상 아구(我具)는 세상(世上)
 이 바라는 바 중(重)한 것이라 이제 27세(二十七世)에 이르러서 본종방지
 (本宗傍支)가 무수분파(無數分派)로되 일일이 열거(列舉)치 못하나 연
 (然)이나 오직 위 충열공파즉(忠烈公派則) 충열공후(忠烈公後)에 삼세(三
 世)를 독신(獨身)으로 전(傳)했으나 사세(四世)에 이르러서 또 삼파(三
 派)로 나누었으니 즉(卽) 별좌공(別坐公) 직장공(直長公) 교리공파(教理
 公派)가 시야(是也)요 직장공파(直長公派)가 거중일파이(居中一派而) 우
 분위사파야(又分爲四派也)라 우리 구씨(具氏)의 족보(族譜)가 선묘기해
 (宣廟己亥)로부터 시작(始作)하여 혹대동혹파분(或大同或波分)하여 누증
 수첩(屢增修牒)이나 연(然)이나 최근계묘대동합보시(最近癸卯大合譜時)에
 우리 직장공파(直長公派)는 자손(子孫)이 이산남북(離散南北)하여 이기수
 단불비(以其收單不備)로 불득이(不得已) 결누(闕漏)요 차(且) 충열공파지
 수보(忠烈公派之修譜)가 기경사십유여재의(已經四十有餘載矣)라 생치(生
 齒)가 일익번(日益繁)하고 속적(屬籍)이 일익소(日益疎)하니 차지선미(此
 趾先美)하여 우리의 친친(親親)하는 도리(道理)를 수(修)치 아니치 못할
 지니라 어시호정사춘(於是乎丁巳春)에 우리 직장공파제손(直長公派諸孫)
 이 순모침동(詢謀僉同)하여 수창파보(遂創派譜)할새 시역야(是役也)에 도

유사자승(都有司滋昇)과 수단우사제종급장재가유자완(收單有司諸宗及掌財家與滋完)이 종시현로이불초(終始賢勞以不肖)가 외람(畏濫)함을 무릅쓰고 교정(校正)의 중임(重任)을 담당(擔當)하여 비록 진성갈력(盡誠竭力)했으나 재졸식천(才拙識淺)하여 혹유오누처(或有誤漏處)하니 서량(恕諒)하심을 양기(仰企)이오며 이 역사(役事)를 마쳤으니 시내오과지위사야(是乃吾派之隳事也)라 범위아동보지인(凡爲我同譜之人)은 경승조종지도(敬承祖宗之道)하여 효제지심(孝悌之心)과 돈목지의(敦睦之誼)로써 반드시 직장공자손(直長公子孫)에게만 한(限)할 것이 아니라 비록 백대(百代)에 먼 일가라도 익가면전(益加勉旃)하여 일가철식(一家綴食)에 친(親)함을 불실(不失)할지니라, 이어서 사파중지(四派衆支)를 합위오책(合爲五冊)하니 총삼백질야(摠三百帙也)라 연(然)이나 재력(財力)이 불부(不敷)하여 책불능성양(冊不能成樣)이나 연(然)이나 시보일출(是譜一出)하면 서기가가진장(庶幾家家珍藏)하여 비전어영세무궁(俾傳於永世無窮)하야 후세자손(後世子孫)으로 하여금 백지일원지리(百支一源之理)를 강명(講明)해서 공상면언즉(共相勉焉則) 존조경종(尊祖敬宗)과 돈친목족지의(敦親睦族之誼)가 찬연복명의(燦然復明矣)리라, 보기성(譜旣成)에 제종(諸宗)이 속여언변기수(屬余言弁其首)하니 여역재임원지열(余亦在任員之列)하여 상지전말고(詳知顛末故)로 약서여우(略叙如右)하노라.

서기 1979년 4월 18일

後孫 範會 謹書

4. 直長公派譜序(2) 原文

國有史而紀帝王承統政教之治亂得失以使後之君主惕勵焉家有譜而紀祖宗昭穆百世之宗支派分以使後之子孫相愛焉是乃家譜之大義而尊祖敬宗敦親睦族之道生矣然祖宗既有垂統之大道則爲子姓者傳之述之母忝母墜是乃尊祖敬宗之實也雖有百代之遠視同一室相與勤之導之善守祖宗之遺業即敦親睦族之實也我具肇自 高麗檢校公爲子姓者其麗不億而名相巨卿德學文章載在史冊輝榮萬世此實我具之所世望之重者也至今二十有七世本宗傍支分爲不數之派不必一一列舉然惟我 忠烈公派則 忠烈公後連三世單傳而至于四世分爲三派即 別坐公直長公校理公派是也而 我直長公派居中一派而又分爲四派也我具之譜始於宣廟乙亥以來或大同或派分屢增修牒然最近癸卯大同合譜時我 直長公派則子姓離散南北以其收單不備故不得已而闕漏且 忠烈公派之修譜已經四十有餘載矣生齒日益繁屬籍日益踈此不得不趾先美而修吾親親之道也於是乎丁巳春我 直長公派譜孫詢謀僉同遂創派譜是役也都有司滋昇收單有司諸宗及掌財家與滋完終是賢勞而不肖蒙畏濫之意擔當校正之役雖盡誠竭力然才拙識淺或有誤漏處恕諒焉仰企而是役告訖是乃吾波之躉事也凡爲我同譜之人敬承祖宗之道以孝悌之心敦睦之誼不必限於 直長公之 裔雖百世澤斬之遠益和勉旃不失一家綴食之親焉四派衆支合爲五冊摠三百帙也財力不敷冊不能成樣然是譜一出庶幾家家珍藏俾傳於永世無窮使後之子孫講明百支一源之理而共相勉焉則尊祖敬宗敦親睦族之義燦然復明矣譜既成諸宗屬余言弁其首余亦在任員之列詳知顛末故略叙如右

西紀 一九七九年 己未 四月 十八日

後孫 範會 謹書

5. 直長公派譜序(3)

대략 말하건대 족보(族譜)라 함은 상(上)으로 선조(先祖)를 숭모(崇慕)하고 하(下)로는 종족(宗族)의 친목(親睦)을 도모(圖謀)하기 위함으로 1세(一世)마다 수보(修譜)하여 하파(何派) 하모(何某)의 소목(昭睦)과 계촌(計寸)의 명확함을 따라 자연적으로 종족이 친목하게 될 것이니 우선 보첩발간(譜牒發刊)이 급선무(急先務)라 할 것이나 연이(然而) 종중대사(宗中大事)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자손들의 문한(文翰)이 필연적 요소이다. 아(我) 충렬공(忠烈公) 선조(先祖)께서도 자손을 훈계(訓戒)하시 시(詩)가 있으니 왈(曰) 치령(穉齡)은 유지학(踰志學)이요 가례(嘉禮)는 시가관(始加冠)이라 중후(重厚)는 천지부(天之賦)로되 시서(詩書)는 교이관(教以冠)하라 봉문(蓬門)에 기원대(期遠大)하고 임학(林壑)에涉간난(涉艱難)하노라 3세(三世)에 근전업(勤傳業) 하야 종금궁구완(從今肯構完)하노라 하셨다.

우리 후예(後裔)로서 어찌 명심(銘心) 복응(服膺)치 않으랴 아종(我宗)이 만약 문한(文翰)이 끊어지면 아무리 세세(世世) 수보(修譜)하야 재차 충동(載車充棟)이 되들 필요 없는 일종(一種) 휴지(休紙)로 되고 말 것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으랴.

연(然) 즉 우리 종족(宗族)은 충렬공(忠烈公)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후진교육(後進教育)을 적극 권려(勸勵)하지 않을 수 없다. 아구(我具)가 여조(麗朝) 검교공(檢校公)으로부터 문정공(文貞公)에 이르기까지 명현장상(名賢將相)이 배출(輩出) 하시고 조선(朝鮮)에 와서는 충렬공의 청백(清白)하신 지행(志行)과 수옹공(睡翁公)의 충절(忠節)과 병암공(屏岩公)의 청절고조(清節高操)와 백담(栢潭) 낙주공(洛洲公)의 덕학문장(德學文章)은 사책(史冊)에 빛나고 만구(萬口)가 회자(膾炙)하는 바이니 여사(如斯)하신 명상(名相)의 후손(後孫)이 되어 어찌 문맹몰각자(文盲沒覺者)가 되어 모조돈족(慕祖敦族)의 도의(道義)를 망각(忘却)하야 선조(先祖)에 득죄(得罪)할 수 있으랴 그루나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번영(繁榮)함과

같이 검교공(檢校公)의 후승(後承)이 기여불억(其麗不憶)이요 동원(同源) 이파(異派)가 기수불십(其數不十)이라 중조직계(中祖直系)의 소목(昭穆)과 촌계(村計)의 원근(遠近)을 간소(簡素)히 분명(分明)하기 위하여 유아 도원수공파(都元帥公派) 중에 충렬공파보(忠烈公派譜)를 년에 별도(別途)로 간행하였던 바 년구세원(年久世遠)하야 미기(未記)된 후예(後裔)의 입보(入譜)를 위하여 첨종(僉宗) 발의(發議) 각금(釀金)하여 병진(丙辰) 추(秋)에 중간증보(重刊增補)하는 위업(偉業)을 시작하게 되니 심심(深深) 감사한 뜻을 표하기 위하여 채언(贅言)을 더하오니 실로 참유무지(僭踰無至) 하오나 유아종족(唯我宗族)은 경조목족(敬祖睦族)의 성의(誠意)를 가일층(加一層) 공고(鞏固)히 하기에 상흥면전(相興勉旃)하여 주기를 천만행심(千萬幸甚)하는 바이다.

단기(檀紀) 4209년 병진(丙辰) 추(秋) 9월 日

直長公 13代孫 命會 謹序

6. 直長公派譜序(4)

비화(祕話)를 남기고 이땅위에 정착(定着)하신 창씨시조(創氏始祖)로부터 후손(後孫)인 현존자(現存者)에 이르기까지 혈통(血統)이 계승(繼承)된 동태(動態)를 세대별서열별(世代別序列別)의 번연발전상(蕃衍發展像)을 집대성(集大成)한 것이 씨족세보(氏族世譜)로써 삼십년간(三十年間)을 일주기(一週期)로 보완개수(保安改修)하는 통례(通例)에 따라서 우리 구씨(具氏)도 대동보수(大同補修)를 계획추진(計劃推進)하였으나 편찬상의 견대립(編纂上意見對立)이 심각(深刻)하고 종무운영상착질(宗務運營上蹉跌)이 있어서 엄정충실(嚴正充實)한 세보(世譜)를 기대(期待)할 수가 없다고 단정(斷定)하고 우리는 등재(登載)를 기피(忌避)하여서 1973년 발행(發行)된 계묘보(癸卯譜)에 결루(闕漏)되었으므로 아직장공(我直長公)을 정상(頂上)으로 모시는 파보(派譜)를 이에 보완대체(補完代替)하고

차기대동보편수(次期大同譜編修)에 대비(對備)하려는 바입니다. 삼십년간(三十年間) 왜제(倭帝)의 악정(惡政)에서 국권(國權)이 광복(光復)되자 왜색잔재(倭色殘滓)를 몰아내고 구미(歐美)의 신신(新新)한 문물(文物)을 받아들이는 의분(義憤)과 욕구(慾求)가 우리의 미풍양속(美風良俗)까지도 망각말살(忘却抹殺)하고 팽배(澎湃)된 이기주의(利己主義) 물질주의(物質主義)의 사조(思潮)가 건전(健全)한 가정생활(家庭生活)에까지 파급(波及)되어서 핵가족제(核家族制)를 찬미추종(讚美追從)하게 되니 노부모(老父母)는 고독(孤獨)에 시달린 나머지 거리에서 방황(彷徨)하게 되고 형제간(兄弟間)은 갈등반목(葛藤反目)하여 분산이거(分散離居)케 되는 등의 패륜행위(悖倫行爲)야 통탄(痛嘆)을 금(禁)할 수 없습니다. 속담(俗談)에 뿌리 없는 나무는 자랄 수 없고 지엽(枝葉)없는 나무는 무성(茂盛)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조상(祖上)없는 자손(子孫)없고 형제(兄弟)없는 번성(繁盛) 있을 수 없습니다. 세보(世譜)는 범씨족(凡氏族)의 축소판(縮小版)이요 동혈(同血)의 총집합형(總集合型)이니 숭조애족(崇祖愛族)의 원천(源泉)임을 공감(共感)하고 개별비장(個別秘藏)이 원(願)이겠으나 삼백질(三百帙)만을 한정완수(限定完修)되었으니 근친동문간(近親同門間) 공동비장(共同秘藏)하시고 효율적(效率的)으로 선조(先祖)의 유덕(遺德)을 추모(追慕)하며 선조(先祖)의 유지(遺志)를 준수(遵守)하는데 공헌(貢獻)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파보(派譜)의 필요성(必要性)을 강조(強調)하고 시범활약(示範活躍)하시던 명회씨(命會氏)가 완수(完修)의 기쁨을 나누지 못함을 추도(追悼)하며 교정교열(校正校閱)을 독담(獨擔)하여 삼년간(三年間) 부단(不斷)의 노력(努力)을 아끼지 않는 범회씨(範會氏)의 공적(功蹟)과 복잡다기다단(複雜多岐多端)한 난관(難關)을 배제(排除)하고 종시일관(終始一貫)한 자옥자완자관군(滋玉滋完滋寬君)의 노고(勞苦)를 높이 찬양(讚揚)하는 바입니다.

서기 1979년 4월 19일

14代孫 滋昇 謹書

7. 直長公派譜序(5)

족보(族譜)는 시조이래(始祖以來)로 연면(連綿)한 후손(後孫)의 번무지엽(繁茂枝葉)을 총집(總輯)한 씨족(氏族)의 역사(歷史)이다. 우리의 능성구씨(綾城具氏)는 시조검교공(始祖檢校公)께서 득성(得姓)하신 후(後) 약760여년(約七百六十餘年) 유구유창(悠久愈昌)하여 오늘에 자손(子孫)이 16·7만(十六·七萬)이라 계묘 1963년(癸卯 一九六三年)에 대동보(大同譜) 편찬(編纂)하였으나 광복 후(光復 後) 혼란(昏亂)이 미정(未定)하여 북역(北域)은 역지부급(力之不及)으로 치지고사(置之姑捨)하고 국내(國內)에서도 누보탈락(漏譜脫落)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여 전족(全族)을 수보(修譜)치 못함이 유감(遺憾)이었다. 희(噫)라 형제(兄弟)도 기초(其初)는 일인일신(一人一身)이요 무복지친(無服之親)도 기초(其初)는 역시 형제(亦是兄弟)인데 점차대수(漸次代數)가 멀어지는 동시(同時)에 오늘날 핵가족제도(核家族制度) 원인(原因)도 있거니와 생활양식(生活樣式)의 변천(變遷)으로 산재사방(散在四方)하니 서로가 일가(一家)도 모르고 계촌(計寸)도 못하는 형편(形便)이니 이 어찌 무지(無知)한 사실(事實)을 탄(嘆)하지 않으리요. 연이(然而) 보(譜)를 정리(整理)하여 소목(昭穆)을 바로잡고 친소(親疎)를 여일(如一)하게 하며 행렬(行列)을 밝혀서 도인지축(塗人之祝)함이 없이 비록 무복지간(無服之間)이라도 호족상산(呼族相散)하고 정교상후(情交相厚)하여 동근지의(同根之義)를 돈독(敦篤)히 하며 친족지도(親族之道)로 시지진성(侍之盡誠)코자 함이니 보책(譜冊)을 열람(閱覽)하면 계통(系統)이 일목요연(一目瞭然)하여 동성지자(同姓之者) 익친(益親)하게 되며 시이(是以)로 효제지심(孝悌之心)이 유연(油然)히 생(生)하리라 이제 충열공(忠烈公)의 현손(玄孫)이신 내자시직장공휘징지후손(內資寺直長公諱徵之後孫)의 제공(諸公)이 해종파(該宗派)의 기왕지결락(已往之缺落)을 보완(補完)하고 계열(系列)을 소상(昭詳)하게 하기 위(爲)하여 파보출간(派譜出刊)을 구상(構想)하게 된 것은 송조경종(崇祖敬宗)과 돈목지의(敦睦之意) 또한 정리지소(情理之所)의 당연지사

(當然之事)라 전국(全國)에 산재(散在)한 후손(後孫)을 일일(一一)히 심방(尋訪)하여 수단(收單)을 준비(準備)한 지 삼개성상(三個星霜)을 주밀갈력(周密竭力)해서 종계(宗系)의 명변(明辨)과 목족화합(睦族和合)의 대의(大義)를 달성(達成)하게 되었다. 이에 직장공(直長公) 후손(後孫)을 한 책(冊)에 엮은 보책(譜冊)을 발간(發刊)해주신 직장공종회장(直長公宗會長) 자승씨(滋昇氏)를 위시(爲始)하여 교정교열(校正校閱)을 단독(單獨)으로 관장(管掌)하신 범회씨(範會氏)와 보책(譜冊)을 발간(發刊)하기까지 모든 주족(周族)과 협조(協助)해 준 자옥자완자관(滋玉滋完滋寬)의 노고(勞苦)를 치하(致賀)하면서 서문(序文)에 대(代)하려 한다.

서기 1979년 기미 4월 20일

綾城具氏大宗會長 14代孫 滋昌 謹記

8. 直長公派譜 凡例

一， 忠烈公派譜年代近而備詳故譜凡例以忠烈公派譜為準略加忝刪而修譜屢次亦難一一枚舉付于支

○○譜或派譜則某公派譜

一， 每張作六層橫看而遇有下層空間則從略直書至末層只書諱名更起於後編第一層而各付一二三番

號以備互考若女婿之入於末層者其子女仍載傍註不用更起之例

一， 名諱右傍付音全謗書字顯著別號生年月日科官卒年月日壽七十以上書壽幾何配位同贈職諡號墓

地現行政區域郡面里番地某坐而前譜所載舊地名則其下付記新地名於孤號內

一， 配位起於別行最上欄某封某貫某氏若有贈封則記之次記父某官某祖某官某曾祖某官某(有顯祖

則某官某幾世孫或后)外祖某官姓貫氏名次記生卒育幾子幾女或无育墓詳記合封附右附左附

上下

一， 子女先男後女而兄弟姊妹之次序不可不辨故書第幾女以為推知之繼后則書繼子於名諱上而次行

明所生派出后則書出后於名諱下而附記所後派以備互考若第一子出后則退書其名諱於第二子之次即重本統之義而書序一出后於其名諱下以分別兄弟之次序

一， 女名及生年月日記入左傍婿姓名本貫前後娶則前后室於其下有官爵者某官父某有顯祖則記以某官某幾世孫或后次加圈記子氏名某官女婿氏名某貫某官其父及顯官某官某必加圈於每子女之上先男後女但不書次第

一， 庶子女之庶字一切去之改室為配終為卒承嫡者不記承嫡二字於名諱之上

제 4 장 史蹟 및 口碑의 考察

1. 直長公 具徵의 얽힌 사연

구징(具徵)은 연산조(燕山朝)에 조정(朝廷)의 내자시직장(內資寺直長)으로 봉직(奉職)하다가 조선조(朝鮮祖) 중종시대(中宗時代)에 공신(功臣)으로 다음과 같은 사연이 서려 있다.

연산군(燕山君)을 폐위시키고 왕위(王位)에 오른 중종(中宗)이 어느 날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었다.

『영의정(領議政) 대감(大監)! 내자시직장(內資寺直長)으로 있던 구징(具徵) 경(卿)은 어찌해서 보이지를 않소?』

『황송하오나 입궐을 안했는줄 아뢰오.』

『과인을 용상에 오르게 한 일등공신(一等功臣)인데 어이해서 조정에 나오지를 않는단 말이요? 지체 없이 전가해서 어전회의(御前會議)에 들라 하시오.』

임금의 명(命)을 받은 영의정(領議政) 성희안(成希顔)은 가슴이 답답하였다. 반정(反正)이 성공해서 한달이 가까웠으나 구징(具徵)이 종적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연산군(燕山君) 시절(時節) 대궐안의 살림살이를 도맡고 있는 자리에 있었으므로 임금과는 항상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던 구징(具徵)은 연산군(燕山君)의 비행(飛行)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간하였다. 그러나 연산군(燕山君)의 음행과 학정은 날로 그 도를 더해가서 할 수 없이 반정중신(反正重臣)들과 밀모하여 연산군(燕山君)을 폐위시키는데 큰 공(孔)을 세웠던 것이다. 더욱이 그는 임금의 후계자로 중종(中宗)을 추대하는데 앞장섰으므로 중종(中宗)으로서는 일등공신(一等功臣)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임금이 공신호(功臣號)를 주고 큰 벼슬을 내렸으나 그의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어전(御前)을 물러나온 영의정(領議政) 성희안(成希顔)은 팔도(八道)의 수령방백에게 명(命)을 내렸다. 고을마다 살살이 뒤져서라도 구징(具徵)을 찾으라는 명(命)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속리산(俗離山) 법주사(法住寺)에 은거하고 있는 구징(具徵)을 찾아내어 가까스로 중종(中宗) 앞에 데려왔다.

『정말 반가운 일이오. 과인이 용상에 오른 후 이렇게 기쁜 날은 처음인 것 같소. 그래 그동안 별로 없으셨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상감마마.』

『경은 그동안 무얼 하시었소? 과인이 아무리 부덕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어찌 그리 섭섭하게 하시오?』

『황송한 말씀 무어라 아뢰올 길 없사오나 미거한 소신(小臣)은 향리(鄉里)에서 조용히 여생(餘生)을 마치려 하옵니다.』

『아니될 말이오. 경(卿)은 과인에게 가장 보배로운 신하(臣下)이오. 부디 과인의 곁에 있어주기 바라오.』

『황공하옵니다. 상감마마. 하오나 소신(小臣)은 선대(先代)의 상감을 모시던 신하(臣下)이옵니다. 소신(小臣)이 비록 이 나라의 사직과 백성을 위해서 반정(反正)을 일으키는데 가담하였사오나 어찌 불충이군(不忠二君)을 하겠사옵니까? 깊이 통촉하옵소서.』

임금께서는 『허허! 경은 과연 백이숙제(伯夷叔齊)와 같은 인물(人物)이오.』 하시며 중종(中宗)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벼슬을 사양한 구징(具徵)은 낙향을 하고 말았다. 고향(故鄉)에 돌아온 구징(具徵)은 촌로(村老)들과 시조(時調)를 읊으면서 술을 마시고 옛 선인(先人)들의 책(冊)을 읽으며 후학(後學)들을 가르치며 한가한 세월(歲月)을 보내다가 나이 칠십이 넘어 돌아가셨으니 생전(生前)에 공노(功勞)를 표창하기 위하여 특별히 예장(禮葬)을 하여 주었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 반정공신(反正功臣)의 중견인물(中堅人物)이 창산부원군(昌山府院君) 성희안(成希顔)이요 구징(具徵)의 외척(外戚)이 성씨(成氏)이므로 자연(自然)스럽게 중종반정(中宗反正)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성공 후(成功後)에는 불사이군(不事二君)하여 절의(節義)를 지킨 분이었기에 나라에서 공(公)의 공로(功勞)를 치하(致賀)하며 후(厚)히 예장(禮葬)을 치러주니 자손(子孫)들의 광영(光榮)이 아닐 수 없다.

그 옛날 백제(百濟)의 왕릉(王陵)이 있었다는 곳, 구징(具徵)이 묻혀있는 무덤 주위(周圍)는 경치가 매우 절묘한 곳이라 지금도 그 지명(地名)

이 능내(陵內(능안))라고 한다. 그 옛날 고려조의 시인(詩人) 이규보(李奎報)가 이곳을 지나면서 읊은 시(詩) 한 수(首)가 있다.

「강물 저녁노을이 우릉 숲속에 잠겨드니 꽃다운 풀빛 우거진 곳이 옛 나루터더라.」

이규보(李奎報)는 이 시(詩)를 관동귀로음(關東歸路吟)이라는 책(冊)에 남겨 놓았다. 이 시(詩)에 나오는 우릉(遇陵)이라 함은 그 옛날 있었던 백제(百濟)의 왕릉(王陵)을 일컫는 것이다.

이곳은 구징(具徵) 이후(以後) 능성구씨(綾城具氏) 세거지(世居地)로서 자손(子孫)이 크게 번창(繁昌)하였으며 많은 인물(人物)을 배출(輩出)하였고 근현대인사(近現代人士)로는 구재서(具在書)(전(前) 서울시립대학장(서울市立大學長)) 구본홍(具本泓)(한의학박사, 전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 구자창(具滋昌)(능성구씨 대종회장(綾城具氏 大宗會長)) 구자철(具滋喆)(서부실업 회장) 구자룡(具滋龍)(경기여객 삼용관광 회장) 구윤희(具允會)(전 수원경찰서장) 구한모(具翰謨)(미 남가주 한인협회 회장 역임(美南加州 韓人協會 會長 歷任)) 구자관(具滋寬)(하남문화원장) 구본태(구본태(具本泰)(충남 공주 엽연초 생산 조합장(忠南 公州 葉煙草 組合長)) 독립유공자 구의서(獨立有功者 具義書)(3·1운동)具장회(광주학생사건 주동) 구본중(具本重)(예비역 육군소장)

구본영(具本英)(경제학박사, 안양성결대 교수) 구수경(具秀卿)(문학박사, 건양대 교수) 구근모(具根謨)(공학박사, KAIST) 구준모(具俊謨)(공학박사, SK통신) 구현모(具鉉謨)(공학박사, 한국통신) 중고등학교장(中高等學校長)으로는 구본정(具本正) 구본혁(具本赫) 구충모(具忠謨) 외(外) 교육계(教育界) 다수(多數) 등(等), 학계 실업계 군인(軍人) 금융계에서 많은 자손(子孫)들이 활동하고 있다.

韓國民族의 遺産 7卷 수록

박영준 編

김학동 編

박갑수 編

2.綾城具氏와 新安朱氏의 관계

우리 시조 할아버지 구존유(具存裕)와 여양공(汝陽公: 주여경(朱餘慶)) 할아버지와는 처남 매부관계.

중국 송나라에서 건너오신 청계공(淸溪公 : 주잠(朱潛))께서는 2남1녀가 계셨는데 큰 아드님이 여(餘), 둘째 아드님이 서(徐)이신 바, 둘째 아드님은 일찍이 중국에서 돌아가시고 큰아드님과 따님만을 데리고 이 땅으로 건너오셨습니다. 큰아드님의 휘는 여(餘)이신데 청계공께서 몽고군에 쫓겨 피난하실 때 적덕(積德)이라 하고 아드님은 여경(餘慶)이라고 휘를 바꾸셨습니다. 이 이름은 적선지가(積善之家) 필유여경(必有餘慶) ‘착한 일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라는 옛 글귀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큰아드님의 자(字)는 필유(必有)라 하였고 아호(雅號)는 여양(汝陽)이라고 하였다. 돌아가실 때의 나라에서 내린 시호를 민휴(敏休)라고 하여 주씨문중(朱氏門中)에서는 여양공 할아버지라고 불러 모십니다. 한편 따님 한분은 우리 시조할아버지 존유공(存裕公)에게 시집오셨습니다.

여양공께서는 우리 시조할아버지의 처남이 되시며 우리 능성구씨는 그로 인해 신안주씨와 한 집안같이 지내야 합니다.

신안주씨를 대할 때는 우리 시조할아버지의 처가(妻家) 집안이라는 것을 알고 다정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계공 할아버지께서는 능주송석품평(綾州松石品坪)에서 돌아가셨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시조할아버지 산소와 더불어 실전되었습니다.

1976년 5월 17일 18일 또 1979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2차에 걸쳐 주씨중앙종친회(朱氏中央宗親會)에서 청계공 할아버지와 우리 시조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으려 현지를 답사하고 노력했으나 730년이란 긴 세월에 잊혀진 옛 조상의 묘를 찾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능주사당(綾州祠堂)[東源祠(동원사)]에서 봉안제(奉安祭) 거행(舉行).

제 5 장 遺事篇

1. 始祖 高麗壁上三韓大匡 檢校上將軍府院君 壇碑陰記

옛적에는 사당(祠堂)에 제사(祭祀) 지내고 묘(墓)에 제사 지내지 않았으며 사당(祠堂)의 제례(祭禮)는 5대(五代)가 되면 신주(神主)를 매안(埋安)하거나 체천(遞遷)하는 고(故)로 뒤에 사람이 묘제(墓祭)의 예범(禮法)을 창안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만일 묘소를 실전(失傳)하게 되면 자손이 보본(報本)의 정성을 드릴 바 장소가 없으므로 단제(壇祭)의 제도를 창설한 바이다.

우리 능성구씨(綾城具氏) 시조묘소가 능주남천태산좌(陵州南天台山左) 풍취나대형(風吹羅帶形)에 안장(安葬)하였으나 불행히도 실전되어 봉심(奉審)할 수 없으니 누가 통탄하지 아니하리오. 최초(最初) 능주 종중에서 연주산(連珠山) 평장사공(平章事公) 묘소 좌편에 설단(設壇)하고 제향(祭享)하였으나 그 규모가 미비함이 많은지라 지난번에 각 종중에서 서로 통문(通文)을 보내어 의논하되 막중한 사업을 능주종중(綾州宗中)에만 위임할 바 아니라 하고 대전(大田)에서 대종회(大宗會)를 열었으나 남북(南北)분단으로 경기, 충청, 경상, 전라도에서 모인 자 겨우 30여 인(人)이다. 그 후 다시 서울 정릉에서 대종회(大宗會)를 소집하여 단소의 증광(增廣) 사업을 결의하고 비(碑)를 세우려 할 때 불초 나에게 음기(陰記)를 위촉하므로 감히 그 사실을 쓰노라.

시조고 부군(始祖考 府君)의 휘(諱)는 존유(存裕)이시고, 고려조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검교상장군(檢校上將軍)이 되시다. 시조비(始祖妃)는新安주씨(新安朱氏)이시니 송(宋)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 청계선생(淸溪先生) 휘(諱) 잠(潛)의 따님이요 회암부자(晦庵夫子) 주문공(朱文公) 휘(諱) 희(熹)의 현손(玄孫)[高孫]이시다. 슬프도다 부군(府君)의 사적(史蹟)이 소멸하여 주씨(朱氏)의 족보를 참고한 즉 청계공 선생이 송(宋)나라 가정갑신(嘉定甲申) 서기 1224년에

권신(權臣)의 실정(失政)함을 보고 7학사(七學士)와 더불어 이 땅에 왔다 하니 송(宋)나라 영종(寧宗) 17년이고 고려고종 11년이다. 그 당시 우리 시조께서 장인이신 청계공을 따라 오신 것으로 추상(推想)되며 현이(縣吏)운운은 처음 오셔서 은신생활 하실 때였으리라 생각된다.

휘(諱) 민첨(民瞻)을 나오시니 즉 평장사공(平章事公)이요, 평장사공이 판관(判官) 증좌정승(贈左政丞) 휘(諱) 연(琓)을 나오시고 정승공(政丞公)이 7남(七男)을 두시니 다 현귀(顯貴)하고 3세(三世)를 전함에 고려와 조선이 엇갈릴 때 판사(判事) 휘(諱) 현좌(賢佐)와 전서(典書) 휘(諱) 현노(賢老) 시랑중(侍郎中) 휘(諱) 영량(英良) 좌정승(左政丞) 휘(諱) 홍(鴻) 판안동(判安東) 후(諱) 성량(成良) 도원수(都元帥) 휘(諱) 성노(成老) 재신(宰臣) 휘(諱) 성덕(成德) 낭장(郎將) 휘(諱) 현보(賢輔) 감무(監務) 휘(諱) 현기(賢器) 임천군사(林川郡事) 휘(諱) 충노(忠老) 참판(參判) 휘(諱) 성미(成美) 문천군사(文川郡事) 휘(諱) 원립(爰立)이 혹은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절의(節義)를 지켰고 혹은 신조(新朝)에 참여로 현달(顯達)하여 자손(子孫)이 번창하였으므로 그 관함(官脚)을 따서 과명(派名)을 구분하니 12과이다. 불행히도 전서과(典書派)와 임천군사과(林川郡事派)는 무후(無后)되고 10과는 더욱 번창하여 훈업(勳業)과 문장(文章) 충효(忠孝) 덕행(德行)이 국중(國中)에 우수한 문벌이 되었다.

그 영귀(榮貴)한 원수(員數)를 살펴보면, 왕후(王后)가 1이요, 부마가 3이요, 부위(副尉)가 1이요, 의정(議政)이 2이요, 이상(貳相)이 1이요, 보국정경(輔國正卿)이 10이요, 등단대장(登壇大將)이 10이요, 징벽불취(徵壁不就)가 10이요, 문과현사(文科顯仕)가 60이요, 무과현사(武科顯仕)가 230이요, 음직(蔭職)이 440이요, 생원(生員) 진사(進士)가 150이요, 또 오늘 날 건국대업(建國大業)에 참여한 자 몇 수백(數百)으로 헤아리기 어려우니 이 어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쌓은 은덕(隱德)이 천만세(千萬世)에 뻗어 후손에게 주신 무궁한 복록(復祿)이 아니 리오. 마땅히 향화(香火)로서 받들지 아니할 수 없다. 혹 말하기를 천태산(天台山)에 설단함이 옳다함도 일리가 있는 말이나 이곳에 제향(祭享)을 올린 지 오래

거늘 감히 옮길 수 있으랴 하고 또 고인(古人)이 말하기를 영혼의 강림이 물이 지중(地中)에 있음 같다 하였으니 정성만 있으면 어느 곳인들 흠향하실 것이니 그 제례(祭禮)는 묘제(墓祭)의 의례(儀禮)와 동일(同一)함이라.

서기(西紀) 1949년 3월 후손(後孫) 행서(行書) 근지(謹識)

역(譯) 자동(滋東)

2. 一世 始祖公 具存裕

- 諸派之源 -

고려조(高麗朝) 문과(文科)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하고 관직(官職)은 벽상삼한삼중대광검교삼한삼중대광검교상장군(檢校三韓三重大匡檢校上將軍)이다.

배(配)는 신안주씨(新安朱氏)이며 송(宋)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인 잠(潛)의 따님이다. 공(公)에 관한 사적(事蹟)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으며 생몰년대(生沒年代)의 추정이 가능(可能)할 정도이다. 한림학사 잠(潛)은 자 경도(字景陶) 호 청계(號淸溪)이며 주문공(朱文公) 회암선생(晦菴先生) 희(熹)의 증손이다. 서기(西紀) 1194년(고려명종(高麗明宗) 24)에 중국(中國) 건양현(建陽縣) 삼계리(三桂里) 옥침봉하(玉枕峰下)에서 출생(出生)하고, 29세에 한림원태학사(翰林院太學士)에 발탁되었다. 권신(權臣)의 주화오국(主和誤國)¹⁾을 보고 장자(長子)인 여경(餘慶) (원명여(原名餘), 자 필유(字必有), 호 여양(號汝陽))과 7학서(七學士) (엽공제(葉公濟)·조창(趙昶)·진조순(陳祖舜)·주세현(周世顯)·유응규(劉應奎)·두행수(杜行秀)·도성하(陶成河)) 등과 같이 송(宋)나라를 탈출하여 서기(西紀) 1224년(고려 고종11(高麗 高宗))에 전라도(全羅道) 금성(錦城)에 선착(船着)하였다. 송(宋)나라의 망명자(亡命者) 수색송환으로 두 학사(學士)가 강제 귀환되고, 잠(潛)은 적덕(積德)으로 변명(變名)한 후 나주(羅州)에서 능주(綾州) 고정리(考亭里)로 피신하였다. 그 후 삼별초난(三別抄亂)²⁾에는 능주(綾州)의 인부리(仁夫里)(능주·나주지간(綾州·羅州之間))와 능주(綾州), 나주(羅州)에 거처(居處)하였다. 장자(長子) 여경(餘慶)은 현리(縣吏)에서 사은과(謝恩科)에 급제(及第)한 후 관직(官職)은 정삼품계(正三品階)인 낙정(樂正) 벼슬에 올랐다.

1) 주화오국(主和誤國) : 화해(和解)를 주장(主張)하여 나라를 그르침.

2) 삼별초난(三別抄亂) : 삼별초(三別抄)는 고려(高麗) 최씨시대(崔氏時代)의 군대(軍隊)이며 용사(勇士)들로 조직된 선발군임. 1240년에 이 군대(軍隊)가 몽고세력에 반대하여 일으킨 반란(反亂).

한국시조청계공실기(韓國始祖淸溪公實記)³⁾에는 청계공(淸溪公)이 고려(高麗)로 망명(亡命)할 때 따님(始祖妣)도 시조(始祖) 휘(諱) 존유(存裕)와 함께 전라도(全羅道) 금성(錦城)에 선착(船着)한 것으로 기재(記載)되어 있다. 이것은 가능성(可能性)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단정(斷定)하기에는 아직도 전고(典考)가 미흡(未洽)하다. 다만 시조비(始祖妣)의 선착년기(船着年紀)가 시조(始祖)의 생몰년대(生沒年代) 추정(推定)에는 중요(重要)한 자료(資料)가 될 수 있다.

즉 4세(四世) 휘의(諱宜) 사자(嗣子)의 경주판관(慶州判官) 및 시랑(侍郎)의 재임년(在任年)인 1296년과 1297년. 또 4세(四世) 휘예(諱藝)(7자(七子)의 구재삭시(具齋朔試) 급재년(及第年)인 1317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일대(一代)를 30년으로 삭산(朔算)하면 시조(始祖)와 시조비(始祖妣)의 생존년(生存年)(즉 선착년(船着年))은 충분히 가능(可能)하고 신빙성도 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구씨진대부구병지후(具氏晉大夫具丙之後)」라고 기록(記錄)되어 있으나 이 출처(出處)와 시조(始祖)와의 관계(關係)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研究)가 필요(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역대보(歷代譜)의 시조(始祖) 방주(旁註)를 살펴보면 을해보(乙亥譜)와 병신보(丙申譜)는 문과(文科)와 관직(官職)만을 기재(記載)하였고, 정미보(丁未譜) 이후 을사보(乙巳譜)까지는 「고려조 과제(高麗朝 科制)는 광종 무오(光宗 戊午(서기 958년))부터이고 공(公)은 등과(登科)하였으므로 광종(光宗)이후의 인물(逸物)」이라고 적었다. 그 후 계묘보(癸卯譜)는 「청계공(淸溪公)의 금성(錦城) 선착(船着)이 1224년이고, 공(公)이 동시인(同時人)임은 확정무의(確定無疑)」라고 하였다. 차문절공유사(車文節公遺事)⁴⁾의 4세 휘예(諱藝)에 대한 기록 중(記錄 中) 시조(始祖)에 대하여 「상조(上祖(諱存裕))는 능성리(綾城吏)이고 나팔소리만 들으면 즉시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고 하였다. 이것은 시조(始祖)의 충성심(忠

誠心)과 평신저두(平身低頭)의 공손한 몸가짐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시조(始祖)의 처남(妻男)인 주여경(朱餘慶)이 은거(隱居)할 때 능주현리(綾州縣吏)였고, 또 과거(科擧)에 합격(合格)하여 낙정(樂正(정삼품(正三品)))에 오른 것과 동일(同一)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묘(墓)는 병신보(丙申譜)이래, 능주(綾州) 천태산좌(天台山左) 풍취나대형(風吹羅帶形)이라고 적혔으나 실전(失傳)되었다.

1948년 10월에 능성구씨화수회(綾城具氏花樹會(회장 자옥 전경기도지사(會長 滋玉 前京畿道知事)))가 창립(創立)되어 1949년 3월 평장사공(平章事公) 묘국내(墓國內)에 처음으로 설단(設壇)하여 이신추모(以伸追慕)하였다. 단소(壇所)의 위치가 험준하여 논의(論議) 끝에 1979년 11월에 평지(平地)인 영모재(永慕齋)⁵⁾ 옆으로 이설(移設)해 묘역(墓域)을 정화(淨化)하고 석의(石儀)를 완비(完備)하였다.

3) 한국시조청계공실기(韓國始祖淸溪公實記:재신안주씨대동보(載新安朱氏大同譜))(1981년 12월간)

4) 차문절공(車文節公) : 연안차씨(延安車氏) 명(名)은 원부(原#) 자 사평(字思平) 호 운암(號雲巖) 시호 문절(諡號文節)임. 두문동(杜門洞) 72인 중의 1인 전남(全南) 순천(順天) 운암사(雲巖祠)에 제향(祭享) 4세 휘 예(諱藝)의 서(婿)인 차송우(車松祐)의 현손(玄孫)임.

5) 영모재(永慕齋) : 시조(始祖) 검교상장군공(檢校上將軍公(諱存裕))과 2세조 평장사공(平章事公(諱民瞻))을 영모추앙(永慕推仰)하는 재각(齋閣)으로 당초(當初) 건물(建物)은 수백년(數百年) 전부터 여러 번 중수(重修)를 하였다고 조선조(朝鮮朝) 철종말(哲宗末) 일신재(日新齋) 정의림(鄭義林)이 쓴 중수기(重修記)에 기록(記錄)되었다. 그후 퇴락훼손(頹落毀損)된 건물(建物)은 더 이상(以上) 중수(重修)가 불가능(不可能)하므로, 1974년 갑인(甲寅)에 새로 현시조공(現始祖公) 단소(壇所)곁에 한식(韓式)콘크리트 건물(建物)로 중건(重建)하였다.

단비(壇碑)의 음기(陰記)는 1494년 3월 행서(行書(號錦汀))찬(撰)이다. 배(配) 주씨(朱氏)는 선착 후(船着後)의 관향(貫鄉)을 능성주씨(綾城朱

氏)라고 하였으나, 1902년(고종광무육(高宗光武六)에 원래(元來)의 신안(新安)으로 환본(還本)하였다.

시사(時祀)는 음(陰) 3월 1일 세일사(歲一祠) 子 民瞻

【資料】 高麗史·清溪朱公小傳(梅山集 洪直弼著)·新安朱氏大同譜(1981年間 韓漢版)·文獻備考·車文節公遺事.

3. 二世 高麗重大匡 平章事 諱 民瞻

부(父) 존유(存裕).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고 전주목(全州牧)의 사록참군(司錄參軍)¹⁾과 장서기(掌書記)를 겸(兼)하였으며, 그 후 동평장사(同平章事)²⁾에 이르렀다. 역사보(歷史譜)는 을해보(乙亥譜)에서 계축보(癸丑譜)까지 전주목사록참군겸장서기(全州牧司錄參軍兼掌書記) 일운(一云(또는 일작(一作))) 동평장사(同平章事)이며 을사보(乙巳譜)에는 일운(一云)을 쓰지 않았다.

백담(栢潭) 봉령찬(鳳齡撰 (1583년))과 귀록(歸鹿) 조현명찬(趙顯命撰 (1734년))의 묘표(墓表)에는 사록참군겸장서기(司錄參軍兼掌書記)에서 승진(昇進)하여 동평장사(同平章事)에 이르렀다고 명기(明記)되었다. (적질도동평장사(積秩至同平章事)) 1657년(효종팔(孝宗八))에 「능성인(綾城人 具遠)³⁾이 『능주(綾州)는 인헌왕후(仁獻王后)의 성향(姓鄉)이고 여조(麗朝)의 동평장사(同平章事)인 구민침(具民瞻)의 묘하(墓下)인데, 이곳에는 구성인(具姓人)이 겨우 수삼호(數三戶)만이 거주(居住)하니, 세역(稅役)을 면(免)해서 선조(先祖)의 묘(墓)를 잘 수호(守護)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상소(上疏)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조(禮曹)에서 임금의 운허(允許)를 받아 그대로 시행하였다고 효종실록권18(孝宗實錄卷十八)에 기록(記錄)되었으며, 실록(實

錄)의 관직(官職)도 동평장사(同平章事)로 명기(明記)되었다. 차 문절공 유사(車文節公遺事) 중에 「공(公)이 근신(謹身)하고 겸손하다」 고 공(公)의 성품(性品)의 일단(一端)이 적혀 있다. 귀록(歸鹿) 조현명찬(趙顯命撰)의 중건묘표(重建墓表)는 18세손(世孫)인 휘택규(諱宅奎 (전명명규(前名命奎)))가 썼으나 각자(刻字)가 마멸되어 1980년 4월에 신도비(神道碑)를 새로 세웠다.

배(配) 면천(沔川(沔陽))복씨(卜氏)는 봉정대부(奉正大夫) 윤량(允亮)의 따님이고, 조(祖)는 병부상서(兵部尙書) 득희(鐸熙)이며 고려개국공신(高麗開國功臣)인 무공공(武恭公) 지겸(智謙)의 후(后)이다. 배(配)의 묘갈(墓碣)은 정유지란(丁酉之亂)에 훼손되어 낙주공(洛洲公 휘봉서(諱鳳瑞))이 전라감사(全羅監司)로 재임(在任)하던 1638년 (인조(仁祖 16)에 능주(綾州) 유학(幼學) 종전(宗筮) 등 많은 종인(宗人)이 개비통문(改碑通文)을 출문(出文)하고 신경인(申景禔(통제사(統制使))) 등의 외손(外孫)들도 도와서 1639년(인조(仁祖) 17)에 능주목사(綾州牧使) 김원립(金元立)의 찬(撰)으로 다시 세웠다. 묘(墓) 화순군(和順郡) 한천면(寒泉面) 정리(政里) 상하봉(上下封) 배재전(配在前), 시사(時祀) 음(陰) 三月 一日 세일사(歲一祀), 자(子), 녀(女), 손승연(孫承演).

1) 사록참군(司錄參軍), 장서기(掌書記) : 칠품이상직(七品以上職)

2) 동평장사(同平章事) : 평장사(平章事)는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등이며 정이품직(正二品職), 동평장사(同平章事)는 특(特)히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지칭(指稱)함.

3) 구원(具遠) : 1850년에 간행(刊行)된 시랑중과보(侍郎中派譜) 중 면천복씨(沔川卜氏)의 개비통문(改碑通文)에는 출문(出文)의 한 사람으로 「출신 구원(出身 具遠)」이 적혀 있으며 이세조(二世祖) 산소(山所) 수호(守護)에 큰 공(功)이 있는 분이다. 그러나 역대보(歷代譜)에 전혀 누락(漏落)되었음은 실(實)로 유감지사(遺憾之事)이다.

4. 二世 高麗重大匡 平章事府君 墓表 譯文

부군(府君)의 휘(諱)는 민침(民瞻)으로 시조 존유(存裕) [고려벽상삼한 삼중대광검교상장군]의 아들로 고려조에 전주목사록참군(全州牧使錄參軍) 겸 장서기(掌書記)를 지내셨으며 중대광동평장사(重大匡同平章事)에 이르셨다.

부인(夫人) 배(配)는 면천복씨(沔川卜氏)로서 증조(曾祖)의 휘(諱)는 광토(鉞土)니 금교상장군으로 시호(諡號)는 무의(武毅)요, 태사무공공지겸(太師武恭公智謙)의 후손이다.

산소(墓)는 전남 화순군 한천면 정동리 연수산 자좌(子坐)에 상하봉(上下封)으로 모셨는데 상(上)은 할아버지(考祖)요, 하(下)는 할머니(妣位)이고 세일제(歲一祭)는 음(陰) 3월 1일에 시조단체와 같은 날 올린다.

묘표(墓表)는 11대손(代孫) 참판(參判) 문서공(文瑞公) 봉령(鳳齡)이 찬(撰)하였고, 신도비문(神道碑文)은 조선 영조(朝鮮英祖) 때 영상(領相)을 지낸 조현명(趙顯命)이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인 서기 1734년에 짓고 참판(參判)을 지낸 택규(宅奎)가 쓴 묘표는 묘정(墓廷)에 그대로 두고 1980년 4월에 세운 신도비에 조현명의 묘표를 옮겨 쓴 것이다.

이 비문중에 능성구씨 득성(綾城具氏 得姓) 800년이라 하였으니 이 비문으로 볼 때 우리 시조의 연대가 1050년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게 되었다. 이는 아마 옛 만성보(萬姓譜)등 성씨고증사(姓氏考證史)에 능성구씨 시조 존유(綾城具氏 始祖 存裕)는 진대부구병지후(晉大夫具丙之後)라고 되어 있는 바 중국후진사중(中國後晉史中)에 구병(具丙)이란 대부(大夫)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여기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송(宋)나라 이전 후진(後晉)의 서기 936 ~ 943년은 고려태조 19 ~ 24년으로 이때가 조현명시대[영조조]에서 따지면 800년 전후요, 지금으로부터 1040년 전후가 되므로 연대가 맞는 셈이나 시조할머니의 친정아버지 되시는 주청계공(朱淸溪公)이 고려 고종11년(송가정(宋嘉定 17甲申))에 중국대륙(中國大陸)에서 우리나라로 망명(亡命)하여 왔다는 사실이 역

사에 명기(明記)되어 있는바 고종11년은 서기 1224년이요, 시조(始祖)의 증손(曾孫) 선(宣)의 경주판관(慶州判官)을 지낸 연대 [경주읍지(慶州邑誌) 49號 종보(宗報)에 고증갈재(考驗揭載)]가 1296년으로 기록되어있고 4세조(世祖) 예(藝)의 관직생활이 1313년 ~ 1340년대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조의 연대는 1220년대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5. 高麗重大匡同平章事 神道碑文 註解

세상에는 원래 소위 고문 거벌자가 있는데 혹은 왕족(王族)과 인척 관계로서 각기 그 문중이 현달(顯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몇 가지를 능히 겸한 자가 여러 대(代)를 지나고 더욱 오래 되어서까지 창성(昌盛)하게 된 집은 오직 능성구씨(綾城具氏)가 그러하다.

구씨(具氏)가 득성(得姓)한 지 근 800년에 명공경현대부(名公卿賢大夫)가 서로 잇달아 나니 그 중(中)에 저명한 분은 휘(諱) 치관(致寬)이 영의정(領議政)에 시호(諡號)가 충렬공(忠烈公)이고 휘(諱) 사안(思顔)이 능원위(綾原尉)이고 휘(諱) 사맹(思孟)이 이상(貳相)으로 호(號)는 팔곡(八谷)이요 시호(諡號)는 문의공(文毅公)이며 휘(諱)는 성(晟)이며 능해군(綾海君)이고 호(號)가 초당(草塘)이며 시호는 충숙공(忠肅公)이고 휘(諱)는 봉장(鳳章)이 능산부위(綾山副尉)이며 휘(諱) 봉서(鳳瑞)가 감사(監查)에 호(號)가 낙주(洛州)이다.

팔곡 선생의 따님이 원종(元宗)의 왕비(王妃)이신 인헌왕후(仁獻王后)가 인조대왕(仁祖大王)을 낳고 인조(仁祖)가 발란반정(撥亂反正)하여 중흥(中興)의 빛을 넓히셨다. 이때 당하여 능해군(綾海君)의 동생에 평(宏)이 있었고 아들이 인후(仁垆)가 있었으며 평(宏)의 아들은 인기(仁槩)니 풍운(風雲)을 타고 올라가서 나라에 주석(柱石)이 되었다.

평(宏)은 판서에 능성부원군이며 인후(仁垆)는 좌의정에 능천부원군이 되고 시호(諡號)는 충무공(忠武公)으로서 대장(大將)과 승상(丞相)으로 역임함이 40년이니 대저 팔곡(八谷) 초당(草塘)이 계실 때는 광채(光彩) 빛

나는 시례(時禮)의 문벌이었고 능성(綾城) 능천(綾川) 때에는 또 분양(汾陽)에서 관진(觀津)하는 세대로서 병권(兵權)을 잡은 무장(武將)이 수인(數人)이다.

아... 성(盛)하도다. 근원이 멀어야 뒤에 그 흐름이 길고 뿌리가 깊어야 뒤에 그 가지가 무성하는 것이다.

구씨(具氏)의 선조(先祖)는 반드시 심은 바 덕(德)을 후세(後世)에 내려 줌인가 한다. 공(公)의 휘(諱)는 민침(民瞻)이고 그 부(父)는 고려상장군(高麗上將軍) 존유(存裕)이니 실로 구씨(具氏)의 시조(始祖)이다.

공(公)은 처음에 전주목사록참군(全州牧使錄參軍) 겸 장서기(掌書記)였다가 뒤에 벼슬이 승진하여 동평장사(同平章事)에 이르렀다.

부인(夫人) 복씨(卜氏)는 본관이 면천(沔川)이고 부(父)는 봉정(奉正) 벼슬을 한 윤량(允亮)이고 조(祖)는 득희(得熙)이며 태사(太師) 벼슬에 시호가 무공(武恭)인 복지겸(卜智謙)의 후손(後孫)이다.

공(公)이 휘(諱) 연(琰)을 낳으니 안동면도감판관(安東面都監判官)이요, 판관(判官)이 휘(諱) 예(藝)를 낳으니 면천부원군(沔川府院君)이며 이분이 휘(諱) 영검(榮儉)을 낳으니 면성군(沔城君)이다. 면성군(沔城君)이 아들 네 분을 낳으니 휘(諱) 위(禕)가 군기시소윤(軍器寺小尹)에 증문하좌정승(贈門下左政丞)이며 시호(諡號)가 문정(文貞)이고 휘(諱) 흥(興)과 희(僖)와 휘(諱) 의(義)가 있다. 문정공(文貞公)이 아들 다섯 분을 낳으니 휘(諱) 홍(鴻)이 좌시중(左侍中)이고 휘(諱) 성량(成亮)이 판안동부사(判安東府使)요 휘(諱) 성노(成老)가 서북도원수(西北都元帥)요 휘 성우(成祐)가 판서(判書)요 휘 성덕(成德)이 재신(宰臣)이며 여기서부터 파(派)가 갈려서 점차 번성한 것은 기록할 수 없다.

공(公)의 묘(墓)는 연주산(連珠山)의 자좌오향(子坐午向)에 있고 복씨 부인(卜氏夫人)의 묘는 같은 자리의 수보(數步) 아래 있었으나 다른 사람에게 점거당한 것을 후손인 관찰사(觀察使) 수담(壽聃)이 그들의 무덤을 파내고 다시 봉분을 개축하였다. 만력(萬曆) 12년 계미(癸未)에 관찰사 봉령(鳳齡)이 이 글을 지어서 돌에 새기어 표(表)를 삼은 뒤 백여년(百餘

年)이 지나서 충무공(忠武公:仁垺)의 5세손(五世孫) 택규(宅奎)가 시종(侍從)으로 있다가 금성(錦城)에 나와 이 지방을 다스릴 때 가보니 비(碑)는 넘어지고 또 글자가 마멸(磨滅)되어서 읽을 수가 없었다. 그 때에 충렬공(忠烈公)[致寬]의 10대손(代孫) 칙(弒)이 우수군절도사(右水軍節度使)로 있었고 충간공(忠間公)[仁壑]의 증손 성필(聖弼)이 전주통판(全州通判)이며 능산부위(綾山副尉)[鳳章]의 손(孫) 만희(萬喜)가 화순군수(和順郡守)로 있을 때 재력(財力)을 모으고 다시 비를 세우기로 합의(合意)하였다. 관찰사공께서 찬(撰)하신 구문(舊文)은 전록(傳錄)에 나온바 오전(誤傳)이 많고 또 마땅히 빼고 더할 것이 있으므로 나에게 찬술(撰述)을 청탁(請託)하매 사양할 수가 없어서 삼가 구본(舊本)에 의거하여 글을 짓게 된 바이다.

공(公)은 서료(庶僚)에서 기용(起用)됨 지위(地位)가 공경(公卿)에 이르면 공(公)은 특히 언행(言行)과 공덕(功德)이 기록(記錄)할만한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나 회고(回顧)하건대 연대가 오래되어 가첩(家牒)이나 국승(國乘)[國史]에 징험(徵驗)할 것이 없기로 다만 구본(舊本)에 공(公)이 근신하사(謹身下士)하였다는 것이 있으니 대저 야사(野史)에 기록(記錄)된 바가 이렇다고 한다.

翰忠竭誠舊武功臣 嘉善大夫(수충갈성구무공신 가선대부)
 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전라도관찰사겸 병마수군절도사)
 巡察使 全州府尹(순찰사 전주부윤)

豊原君 趙顯命 撰(풍원군 조현명 찬)

6. 三世 高麗安東面 都監判官 贈門下左政丞

沔川府院君府君 諱 珣

父 民瞻(민침)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고 관직(官職)은 안동면도감(安東面都監)의 판관(判官)이며, 문하좌정승(門下左政丞)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이 증직(贈職)되었다. 문하좌정승(門下左政丞)은 계축보(癸丑譜)에서 처음으로 「一云 贈一」으로 기재(記載)되었으며, 을사보(乙巳譜)에서는 일운(一云)이 삭제(削除)된 증직(贈職)으로 기재되었다. 이 증직(贈職)으로 제7자(制七子)인 휘(諱) 예(藝)의 귀현(貴顯)에 의(依)한 것이겠으므로 일운(一云)은 해당되지 않으며 안동면(安東面)은 남경관(南京官)인지 또는 서경관(西京官)인지 확실치 않다. 묘(墓)는 무장(茂長) 탁곡면(托谷面)고심원동((古心元洞)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高敞郡 雅山面 盤岩里))에 상하봉(上下封)이고, 배(配)는 재후(在後)이다.

묘표(墓表)는 계축보(癸丑譜)에 부학(副學) 이종우찬(李鍾愚撰)이나 부득(不得)이고, 1866년에 세운 묘표(墓表)는 예조판서(禮曹判書) 박계수(朴珪壽)가 찬(撰)하고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원명(李源命)이 썼다.

배(配)는 면천한씨(沔川韓氏)이고 부(父)는 평장사 자희(平章事 子禧)이며 조(祖)는 보문각 제학 사기(寶文閣提學 謝奇)이다. 묘소(墓所)는 한때 실전(失傳)되었으나, 1819년에 후손 인수(後孫 仁壽) 등이 추심(推尋)하였고, 그 후 산송(山訟)도 있었으나 후손(後孫) 찬정(贊政) 영조(永祖)등이 상소(上疏)하여 1900년 임금의 판비문(判批文)으로 확정(確定)되었다. 時祀는 음(陰) 3월 21일 歲一祀.

자(子)는 의(宜)·원개(元凱)·백전(伯全)·성연(省延)·이(怡)·천용(天容)·예(藝)이고 녀(女)는 한경선(韓敬善)·이정(李挺)·안적(安適)·공영순(公永純)이다.

7. 三世 高麗安東面 都監判官 贈門下左政丞

沔城府院君府君 諱 珣 墓表의 註解(1)

부군(府君)의 휘(諱)는 연(珣)이시니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안동면도감판관(安東面都監判官)으 지내셨으나 일곱 번째 아드님 휘(諱) 예(藝)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의 현귀(顯貴)로 문하좌정승(門下左政丞)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에 추증(追贈)되었다.

부군(府君)의 진외증조 주(朱) 청계공이 동래(東來)한 해가 고려 고종 11년이고 3세조비(世祖妣)의 증조(曾祖) 한강(韓康)이 고려 고종 조에 등과(登科)했다는 기록과 시조비의 조카 주열(朱悅)이 명어세(名於世)한 점과 부군(府君)의 아드님 휘(諱) 예(藝)가 고려 충선왕시대(忠宣王時代)에 고관으로 왕(王)을 사모(思慕)했다는 설원기(雪冤記)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부군(府君)은 고려 원종시대(元宗時代)에서 충렬왕시대(忠烈王時代)의 분인 것으로 추상(推想)된다.

박규수(朴珪壽)가 쓴 3세조(世祖)의 묘표(墓表)에 따르면 여말(麗末)에 문절공(文節公) 휘(諱) 홍(鴻)과 병부시랑(兵部侍郎) 휘(諱) 항(恒)이 전절(全節)했다고 써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능성구씨(綾城具氏)의 선대년고(先代年考)는 대체적(大體的)으로 맞아들어간다. 연(然)이나 문절공(文節公)과 동대전절(同代全節)이신 휘(諱) 항(恒)이 어찌 13세(世)인지 알 수 없다.

문절공(文節公) 휘(諱) 홍(鴻)은 3세조(世祖)의 고손(高孫)이고 병부시랑(兵部侍郎) 휘(諱) 항(恒)은 3세조(世祖)의 10세손(世孫)으로 족보상 계대(系代)되어 있다.

대동보나 시랑증과보의 방주에 따르면 하더라도 휘 항(諱 恒)께서 여말(麗末)에 전절(全節)이라 되어 있으니 여말 조선 초라면 3세조로부터 4대 약 120년 ~ 140년 동안인데[1세대(世代) 30년] 13세가 이에 해당된다면 약 160 ~ 180년이[6대(代)]차이가 나는 셈이다. 우리 다 함께 선조(先兆)에 대한 전고(典故)를 확고히 하여야 하겠음을 갈망하는 바이다.

부군(府君)의 산소(山所)를 되신 고창(高敞) 고심원동(古心元洞) 산국(山局)은 인묘조(仁廟朝) 때 사패지지(賜牌之地)이다. 연(然)이나 인조(仁祖) 14년[1636]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봉심(奉審)치 못하여 급기야 실전(失傳)한 것을 순조(純祖) 19년 기묘(己卯[1819]) 283년 만에 후손 인수(仁壽)씨가 추심(推尋)하였으나 산하(山下)에 사는 오가(吳哥)가 이미 범장(犯葬)하고 이 산국(山局)을 점거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산송(山訟)이 시작되어 고종광무 2년 무술(高宗 光武二年 戊戌)[1898]까지 약 80년간 전후(前後) 10여회(餘回)에 걸쳐 쟁송(爭訟)이 계속되다가 광무(光武) 2년 9월 23일 고등재판소의 판결(判決)에 의하여 구왕봉동(具旺峰洞)[고심원동(古心元洞)]의 계남(溪南)은 속구(屬具)하고 계북(溪北)은 속오(屬吳)한다로 확정하여 오늘에 이르니 실전(失傳)한 지 260년만에 능성구문(綾城具門)의 한(恨)을 풀 셈이다. 후손(後孫)이 된 자(者) 선조(先兆)의 산소봉심(山所奉審)에 진력(盡力)하여 실전(失傳)하는 등의 일이 없어야 하겠다.

8. 三世 高麗國安東面 都監判官 具公墓表의 譯解(2)

고려국 안동면도감판관 문하좌정승 구공(具公)이 이름은 연(琎)인데 무장현(茂長縣) 탁곡면(托谷面)에 장사(葬事)를 지냈으나 그 묘를 잃은 지 3백여년이 되었다. 후손 인수(仁壽) 대운(大潤) 백영(百永) 행익(行益) 등 4인의 비분(悲憤)해서 분주(奔走)히 다니면서 심원동(心元洞) 신좌(申坐)에서 원래(原來) 있던 잔비(殘碑)를 얻게 되어 찾았으나 봉분이 흩어지고 그 현(縣)의 오가(吳哥)들이 이곳을 점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청에 고소해서 오(吳)가 묘를 파서 옮기도록 하고 경계를 갈랐다. 여러 일가들이 의논해서 묘표(墓表)를 세우기로 하고 나에게 글을 청해왔다.

공(公)은 능성인(綾城人)이요, 조(祖)의 이름은 존유(存裕)인데 삼한삼중대광, 검교상장군이요, 아버지는 민첨(民瞻)인데 평장사(平章事)이고, 어머니는 면천복씨(沔川卜氏)로서 봉정대부(奉正大夫) 윤량(允亮)의 따님이며, 태사(太師) 복지겸(卜智謙)의 후손(後孫)이다. 공(公)의 부인(夫人) 면천한씨(沔川韓氏)는 평장사(平章事) 자희(子禧)의 따님인데 아들 7인을 두었으니 모두 귀(貴)하고 현달(顯達)했다. 맏아드님은 의(宜)인데 소부윤(少府尹)이고, 다음은 원개(元凱)이니 대제학(大提學)을 지냈으며 다음은 백전(伯全)이니 장군(將軍)이고, 다음은 성정(省廷)이니 봉덕군(奉德君)이며 다음은 이(怡)이니 대제학(大提學)이고 다음은 천용(天容)이니 직장(直長)이며 다음은 예(藝)이니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이다. 일가(一家)가 많지는 않았으나 대대(代代)로 더욱 번창하여 고려 말로부터 조선에 들어와 3,4백년 충효명절(忠孝名節)과 문장훈업(文章勳業)이 크게 빛났다.

좌정승 문절공(文節公) 홍(鴻)과 병부시랑(兵部侍郎) 항(恒)은 혁명(革命)할 때 절개(節介)를 다했으며 영의정 충렬공(忠烈公) 치관(致寬)은 청백리(清白吏)로서 기록되고 능천군(綾川君) 수영(壽永)은 정국공신(靖國功臣)에 기록되었으며 능창위(綾昌尉) 한(澣) 능원위(綾原尉) 사안(思顏)은 모두 공주(公主)[옹주]에게 장가들어 부마가 되고 능안부원군(綾安府院君) 문의공(文懿公) 사맹(思孟)은 인헌왕후(仁獻王后)를 탄생(誕生)했으며 능해군(綾海君) 충숙공(忠肅公) 성(晟)은 호성공신(扈聖功臣)에 기록되니, 문의공(文懿公)의 아드님이다. 순효(純孝) 의행(懿行)과 시례(施禮)가 대대로 이어졌다.

충숙공(忠肅公)의 동생과 많은 아드님 중에서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 충목공(忠穆公)의 아드님인 능풍부원군(綾豐府院君) 충간공(忠簡公) 인기(仁璽)가 모두 정사공신(靖社功臣)에 기록되었다.

공훈(功勳)이 많고 위인열사(偉人烈士)들이 왕실(王室)의 주석(柱石)이 되었으니 왜(倭)의 변을 만나서는 이에 굴(屈)하지 아니하고 충효(忠孝)로써 나라에서 정려(旌閭)를 받은 자는 한림 만(翰林 만)이고 송문정공

(宋文正公) 우암(尤庵)에게서 수업(授業)하고 기미년례옥(己未年禮獄)에 걸린 자는 판관(判官) 시경(詩經)이며 육신(六臣)의 화(禍)를 당해선 청맹(靑盲)이라 빙자하고 벼슬길을 나가지 아니한 자는 집현전교리(集賢殿校理)인 인문(人文)이요, 명종시(明宗時) 문운(文運)이 융성(隆盛)할 때 문장(文章)으로서 세상(世上)에 유명(有名)한 바 있는 자는 이조참판(吏曹參判) 봉령(鳳齡)이고 명(明)나라가 망(亡)함에 벼슬하지 않고 태백산(太白山)에 숨어산 자는 동몽교관(童蒙教官)인 혜(諱)이다.

기묘년(己卯年)과 을사년(乙巳年)에 여러 선비가 화(禍)를 당할 때에 형제(兄弟)분이 잇달아서 그 화(禍)를 면치 못한 자는 이조좌랑(吏曹佐郎) 수복(壽福)과 대사헌(大司憲) 수담(壽聃)이고 인조(仁祖) 병자년(丙子年)을 당하여 대의(大義)로서 항거하여 굽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두루 전사류(全士流)에게 본보기가 반로(叛虜)에게 항거하여 일세(一世)의 인심(人心)을 크게 통쾌(痛快)하게 한 자는 평안감사(平安監司)이었던 봉서(鳳瑞)이며 병자호란시(丙子胡亂時)에 강화(江華)에서 순절(殉節)한 자는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 원일(元一)이고 흉도(凶徒)들이 그 폐모론(廢母論)을 주장(主張)할 때에 분연(奮然)히 일어나서 그들의 글을 태워버린 자는 현감(縣監) 영(瑩)이며 북방(北方) 오랑캐의 난에 회령(會寧)에서 근왕(勤王)한 자는 대구부사(大邱府使) 황(滉)이다. 아아 공(公)의 원손(遠孫)이 이미 이렇게 번성하고 또 크게 됨이며 어찌도 그렇게 후세(後世)에 현신(賢臣)이 많은가. 연대(年代)가 멀고 공(公)의 언행덕업(言行德業)이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지금까지 보건대 명문거족은 그 선조에 반드시 위인(偉人)이 있어서 큰 덕과 착한 성품이 광채를 머금고 은연히 비치어서 그 면면(綿綿)함은 다 수록할 수 없을 정도이고, 또 후손이 크게 창상하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적덕의 두터움과 근원의 긴 것이 이 조상(祖上)의 은덕이 아닌 것이 없다. 이제 능성구씨(綾城具氏)의 세대(世代)에서 사람을 구하면 역시 공(公)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공(公)의 가문(家門)에서 대대로 장군과 정승이 많은데 일곱 아들이 모두 현귀(顯貴)했으나 공(公)이 조정에 벼슬한 것과 생년졸년(生年卒年)이 다 헤아릴 수가 없고 겨우 관함(官啣)만이 기록되었으니 이럴 이치가 없는 즉 역사의 기록이 없어졌음에 의심이 없을 것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문종(文宗)이 사면도감(四面都監)을 두었고 각각 사(使)와 부사(副使)와 판관(判官)은 문과(文科) 갑과급제자(甲科及第者)를 등용하였으며 인종(仁宗)시 또 동경(東京)[경주]에 동남면도감(東南面都監) 서경(西京)[평양]에 서북면도감(西北面都監)을 두고 여러 학원(學院)에 각각 판관(判官)을 두니 공(公)이 판관(判官)이 된 것은 문과(文科)를 거쳐서 진출(進出)한 것을 알 수 있고, 안동면(安東面)이라고 한 것은 남경(南京)인지 서경(西京)인지 분명치 않다.

갑과(甲科)를 등용(登用)하여 학원(學院)에 학정(學政)을 보좌하고 훈도(訓導)하는 소임을 맡은 직자(職者)일 것이다.

공(公)의 글과 행적이 있어야 비로서 알 것이다. 삼가 전고(典考)를 근거로 글을 갖추노라. 부인(夫人) 묘(墓)도 동원(同原)에 상하봉(上下封)이다.

공(公)의 묘(墓)를 수리하고 묘갈(墓碣)을 중건(重建)하는 데 힘쓴 자(者)는 제손(諸善) 중에서 능주에 사는 본학(本學)이가 설두(設頭)를 하였고 수사(水使) 성희(性喜), 부사(府使) 춘희(春喜), 수사(水使) 위원(胃元), 군수(郡守) 준현(駿鉉), 경력(經歷) 동식(東植), 현감(縣監) 연익(然翼) 진사(進士) 양서(陽書), 사간(司諫) 종록(鍾錄)이 서로 상의하여 글을 받들어 온 사람은 문의공(文懿公)의 직손(直孫)인 원식(元植)인데 나와는 세의(世誼)로서 좋게 지내는 처지이므로 마땅히 글을 갖추어 비갈(碑碣)에 쓰는 바이다.

자헌대부(資憲大夫) 예조판서(禮曹判書) 겸 경연춘추관(經筵春秋館) 의금부사(義禁府事)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 박규수(朴珪壽) 찬(撰)

자헌대부(資憲大夫) 행사헌부대사헌(行司憲府大司憲) 경연사(經筵事) 이원명(李源命) 서(書)

송정기원후(崇禎紀元後) 사병인(四丙寅)[1866] 9월 7일 입(立)

역(譯) 자동(滋東)

9. 四世 沔城府院君 諱 藝

부(父) 인(瑄)

1317년(충숙왕(忠肅王) 4) 구재삭시(具齋朔試)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한 후 관직(官職)이 중대광(重大匡)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에 이르렀다. 면주(沔州)가 사향(賜鄉)되고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에 봉군(封君)되었다. 공(公)은 충효(忠孝)가 모두 극진하였다.

을해보(乙亥譜)의 방주(旁註)는 「제보칭등괴과(諸譜稱登魁科) 중대광면성부원군(重大匡沔城府院君)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이고, 병신보(丙申譜) 이후 계축보(癸丑譜)까지는 「일작정승사향면주(一作政丞賜鄉沔州) 봉면성부원군(封沔城府院君) 세거송경흑사동(世居松京墨寺洞) 충효구전(忠孝俱全)」이며 을사보(乙巳譜)부터는 일작(一作(一云))이 삭제(削除)되었다. 공(公)의 정승(政丞)은 고(考) 휘연(諱瑄)의 경우와 같이 공(公)의 자(子) 휘영검(諱榮儉)의 귀현(貴顯)에 의한 증직(贈職)이었으므로 일운(一云) 또는 일작(一作)이 가당(可當)치 않다고 생각된다.

공(公)의 서(孀)인 최안도(崔安道)¹⁾(태부태감(太府太監))의 묘지(墓志)에는 「처구씨(妻具氏) 고(故) 봉익대부(奉翊大夫)²⁾ 휘예지녀야(諱藝之女也)」라고 적혀 있다. 또는 차문절공유사(車文節公裕事)³⁾ 중에는 「공(公)은 조선(祖先)이 공손함을 항상 잊지 않았으며, 또 사위인 차송우(車松祐)가 피해(被害)를 받았고 임연(林衍)⁴⁾ 부자(父子)가 교만하고 사치하였음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겸허하였으며 빛나고 화려한 것을 나타내지 않고 일신(一身)을 안보(安保)하였다.」라는 기록(記錄)도 보인다.

묘표(墓表)는 문헌공고봉기대승찬(文憲公高峰奇大升撰)이고 정언(正言)을 지낸 당대(當代)의 명필(名筆) 송재(松齋) 성자제(城子濟)가 썼으며 1565년 10월에 건립(建立)하였다. 그 후 신도비(神道碑)를 22세손(世孫) 연창(然敞)이 찬(撰)하였다.

배(配)는 아주신씨(鵝洲申氏)이고 부(父)는 도염서령(都染署令) 진승(晉升)이다. 묘(墓)는 당진군송악면가교(唐津郡松嶽面佳橋里)에 상하봉(上下封)이고, 배(配)는 재후(在後)이다. 배(配) 신씨(申氏)가 산소국내(山所局內)에 암자(菴子)(신암사(申菴寺)를 짓고 스님이 묘(墓)를 수호(守護)케 하니, 이로 인하여 신암산(申菴山)이라고 한다. 시사(時祀)는 음(陰) 2月 중정일(中丁日)·8월11일 정일(定日) 세이사(歲二祀). 자(子)는 영검(榮儉)이고 녀(女)는 임급(任伋)·최안도(崔安道)·차송우(車松祐)이다.

- 1) 崔安道の 墓地 : 拙藁千百에 실려 있음.
- 2) 奉翊大夫 : 高麗의 文散階. 1362년에 從二品.
- 3) 車松祐 : 沔城府院君 諱藝의 婿 杜門洞 節臣인 車原#의 高祖·將軍中興伯·內侍尹, 1268年 에 誅殺됨.
- 4) 林衍 : 高麗때 權臣으로 本貫은 鎭川. 1270年卒.

※ 追記 : 申菴寺에 奉安된 金銅佛像이 1989年 4월에 보물 第九八七號로 指定되었음. 또 車 文節公遺事中引用은 始祖公에 載錄하였으므로 여기서는 省略함.

【資料】 高麗史·車文節公遺事·拙藁千百(崔瀧編·1354年 開板)

10. 沔城府院君 諱 藝 墓表 譯文

공(公)의 휘(諱)는 예(藝)요, 성(姓)은 구씨(具氏)이며 그 선대(先代)는 능성인(綾城人)으로서 고려 때 인물이다.

증조(曾祖)의 휘(諱)는 존유(存裕)이니 검교상장군을 지내고 여러 번 벼슬이 승진하여 벽삼삼한삼중대광까지 올랐다. 조고(祖考)의 휘(諱)는 민첨(民瞻)이니 전주목사록참군겸장서기(全州牧使錄參軍兼長書記)를 지냈고, 고(考)의 휘(諱)는 연(琯)이니 안동면도감판관(安東面都監判官)을 지냈으며, 비 한씨(妣韓氏)는 평장사(平章事) 자 희(子禧)의 따님이니 3대(三代)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발탁되었으며, 공(公)도 또한 높은 벼슬에 뽑히어 중대광판전의사(重大匡判典儀事)에 이르러서 면천(沔川)을 사향(賜鄉)받고, 면천부원군(沔川府院君)에 봉군되었다.

그 부인(夫人)은 신씨(申氏)이니 1남2녀를 생산하여 남(男)은 정(貞)인데 뒤에 영검(榮儉)으로 개휘(改諱)하고 전리판서(典理判書)를 지냈고, 공민왕 때에 면성군(沔城君)에 봉군되었으며, 장녀(長女)는 임급(任伋)에게 출가하고 차녀(次女)는 최안도(崔安道)에게 출가했다.

판서공(判書公)이 안씨(安氏)인 규(珪)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2남을 생산하고, 뒤에 김씨(金氏)인 자장(子章)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2남5녀를 두니 장남(長男) 위(禕)는 증직(贈職)되어 문정(文貞)의 시호(諡號)를 받았으며, 이분이 5남을 생산하니 홍(鴻)은 삼중대광문하좌정승(三重大匡門下左政丞)이요, 성량(城亮)은 가선안동부사(嘉善安東釜使)요, 성노(成老)는 자헌판안동부사(資憲判安東府事)를 하고 좌찬성에 증직(贈職) 되었으며 다음은 성덕(成德)이다. 차남(次男) 흥(興)은 중대광문하찬성사(重大匡門下贊成事)를 지냈는데 3남을 생산하니 현보(賢輔), 현기(賢器), 충노(忠老)이다. 다음은 희(禧)요, 다음은 의(義)인데 2남을 생산하니 성미(成美)와 원립(爰立)이다.

그리고 현손(玄孫) 이하(以下)부터는 이미 번성하고 많아져서 세대(世代)마다 인재(人材)가 끊이지 않았다.

홍(鴻)의 증손(曾孫)은 인서(仁恕)는 훈련원참군(訓練院參軍)이요, 그의 증손(曾孫) 봉령(鳳齡)은 지금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이다.

성량(成亮)의 자(子)는 서(緒)와 강(綱)이니 서(緒)는 검교한성부윤(檢校漢城府尹)이며 그 아들 문희(文僖)는 능성군(綾城君)이요, 문노(文老)는 병사(兵使)요, 손자 수복(壽福)은 이조좌랑(吏曹佐郎)인데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되어 유배를 당했으며 그의 아들 변(忭)은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로 있다.

수담(壽聃)은 양사관원(兩司官員)을 역임하고 가선(嘉善)에 승급되었으나 간신(奸臣)들의 모함으로 사사(賜死)당했다.

성노(成老)의 손 치관(致寬)은 영의정(領議政)을 하고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에 봉군되었으며 충렬(忠烈)의 시호를 받았다. 이 아우는 치명(致明)과 치홍(致洪)인데 치명(致明)은 후녕원도정(訓練院都政)이요, 그 아들 겸(謙)은 능산군(綾山君)이요, 손 지신(之愼)은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이요, 윤신(尹愼)은 수사(水使)를 했다. 치홍(致洪)은 무과(武科)로 발탁되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하고 시호 호양(胡襄)을 추증 받았고, 그 아들 수영(壽永)은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책록되어 능천군(綾川君)에 봉군되고 자손들이 많이 왕실(王室)과 혼인하였으며 후손들이 무과(武科)에 많이 발탁되었고 그의 증손 사맹(思孟)은 지금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 있다.

현보(賢輔)의 후손으로는 필신(弼臣), 현복(玄福)과 정현(廷賢)이 모두 무과(武科)에 등과를 하였다. 치관(致寬)의 후손 충연(忠淵)이 또한 문과(文科)에 급제하였고 문중(門中)에서 음사(蔭仕)로 벼슬에 올라 조정반열(朝廷班列)이 많은 것은 또한 공(公)이 여경(餘慶)이 떨어지지 않음이다.

공(公)이 졸(卒)함에 면천(沔川)땅에 안장하니 지금에 군(郡) 북쪽 신암산(申菴山) 정남향 자리이며 부인(夫人)의 묘(墓)는 그 뒤에 있어서 자손들이 대대로 수호하더니 근년에 와서 후손이 몰래 그 부모를 영역(榮域) 안에 범장(犯贓)하고 부인(夫人) 묘(墓)의 비구목(比丘木)을 남벌하

여 거의 없게 되니 모든 원근(遠近)에 있는 자손들이 듣고서 상심 앓은
이 없었다.

가정임술(嘉靖壬戌)[명종(明宗) 18년]에 8손 되는 판관(判官) 세형(世
亨) 이하 40여인(餘人)이 집에서 회의를 하여 그를 힐책하여 이장을 명하
고 수묘(修墓)할 것을 의논하더니 마침 9세손(世孫) 흡(洽)이 대흥현감
(大興縣監)으로 부임했는데 그 고을에서 면천(沔川)까지 하루 길도 못되
는지라 종족(宗族)들이 그에게 그 사업을 부탁하더니 미구(未久)에 현직
판서(判書)인 박공(朴公) 충원(忠元)이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부
임했는데 그 선대(先代)가 공(公)과 외손(外孫)관계가 되는지라 이 일을
듣고 가상히 여겨 그 역사(役事)에 협조하여 마침내 계해(癸亥)년 3월 계
미일(癸未日)에 새로 개봉축을 완성하고 고유제(告由祭)를 올리게 되었
다.

공(公)을 처음 안장(安葬)할 때에 반드시 묘도(墓道)를 기록한 지식(誌
石)을 두어 그 생졸(生卒) 연대와 벼슬을 지내고, 승진한 것과 또 지내온
사적의 대략을 기록했을텐데 아쉽게도 세월이 오래된 탓으로 인멸되어 다
시는 행적을 알아 볼 길이 없게 되었다.

이러므로 제손(諸孫)들이 상의하여 얼마씩의 미포(米布)를 내서 대흥현
감(大興縣監)에게 비석(碑石)을 구입하여 표기(表記)할 것을 부탁하니 마
침 병사(兵使) 이대신공(李大神公)이 또한 외후손(外後孫)으로서 이 일에
진력(盡力)했다. 그래서 가첩(家牒)을 상고하고 그 세계(世系)를 약술
(略述)해서 후손들이 이를 통달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 또한 수묘(修墓)
한 사유도 기로하여 후일을 기다리노라.

기대승(奇大升) 찬(撰)

가정(嘉靖) 44년[明宗 20年 乙丑] 10월에 세움

譯 滋東

11. 府君의 冥福과 子孫의 繁榮을 所願했던 申菴寺

본(本) 사찰(寺刹)의 소재지는 당진군 송악면 가교리(唐津郡 松嶽面 佳橋里) 산 63번지이고 구지명(舊地名)은 충청도 면천군 북면 신암산(忠淸道 沔川郡 北面 申菴山)이다. 이곳에 4세조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 휘(諱) 예(藝) 산소를 모셨으니 고려 조 충숙왕(忠肅王)[1300年 前半期]시대이다.

원래 부원군(府院君)께서 충효(忠孝)가 겸비(兼備)하신 고로 나라로부터 면천(沔川)을 사향(賜鄉)받으시고 면천부원군(沔川府院君)이라는 일품작호(一品爵號)를 받으셨으며 사장(賜葬)[禮葬:지금의 국민장]까지 받으신 것이다.

그 후 배위(配位)되시는 아주신씨(鵝洲申氏)할머님께서 영(榮)[묘(墓)]하에 암자(庵子)를 지어 신암사(申菴寺)라고 일컬었으며 부처님을 모시고 승려(僧侶)를 두어 부군(府君)의 명복(冥福)과 자손(子孫)의 번영을 기원하신 원찰(願刹)이다.

이러하므로 지명도 신암(申菴)이라고 일컫게 되었으며 고려, 조선 양조(兩朝)에 걸쳐 세금(稅金)과 부역(賦役)을 면하게 되었으니 자손들의 영행(榮幸)이 아닐 수 없다.

12. 五世 重大匡典理判書 沔城君 諱 榮儉

부(父) 예(藝)

초휘(初諱)는 정(貞)이고 중대광전리판서(重大匡典理判書)를 지냈으며, 1392년(공민왕원(恭愍王元))에 면성군(沔城君)에 봉군(封君)되었다. 1354년(공민왕(恭愍王) 3) 원(元)나라의 장사성(張士誠)이 고우성(高郵城)에 웅거하여 난(亂)을 일으킬 때 원(元)나라의 요청(要請)으로 공(公)이 유탁(柳濯)·인당(印璫)·최영(崔榮)등과 함께 원병(援兵)을 이끌고 출정

(出征)하였다가. 다음해 돌아왔다.

기철(奇轍)의 반란음모(反亂陰謀)가 발각되어 그 일파(一派)를 숙청할 때 공(公)이 그 잔당(殘黨)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무고(誣告)로 좌사(左使) 한가귀(韓可貴)와 함께 투옥(投獄)되었다.

공(公)은 성격(性格)이 강(強)하였으며 일찍이 재상(宰相) 조석견(趙碩堅)의 미망인(未亡人) 장씨(張氏)가 원한을 품고 장씨(張氏)의 외삼촌(外三寸)인 판사(判事) 김성(金成)과 안우(安祐)·신청(申靑) 등이 같이 꾸민 교명(矯命)¹⁾으로 공(公)이 참살(斬殺)되고 가산(家産)도 몰수(沒收)되었다. 뒤늦게 왕(王)이 이것을 알고 순군(巡軍)²⁾에 사자(使者)를 보내 처형(處刑)을 중지(中止)하라고 하였으나, 이미 처형된 후(後)이었다. 이 때가 1356년(공민왕(恭愍王) 5) 5월이다.

이에 대하여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는 「참소(讒訴)를 당하니 사람들이 모두 의구(疑懼)하였다.」고 하였다.

1) 矯命 : 임금의 命令이라고 거짓으로 꾸미는 것.

2) 巡軍 : 巡軍萬戶府의 略稱으로 捕盜禁亂을 맡았으며 刑獄도 다스렸다. 義禁府의 前身이다.

배(配)는 죽산안씨(竹山安氏)이고 부(父)는 정당문학(政堂文學)³⁾인 규(珪)이며 육2자(育二子)이다. 후배(後排)는 경주김씨(慶州金氏)이고 부(父)는 흥녕부원군(興寧府院君) 자장(子章)이며 육2자 5녀(育二子 五女)중 제4녀(制四女)·제5녀(第五女)는 선입원조(選入元朝)하였다.

묘(墓)는 신천두나면봉래리(信川斗羅面蓬萊里)이고, 배죽산안씨(配竹山安氏)는 同原在上(同原在上)이며 경주김씨(慶州金氏)는 同原在中)이다. 18세기(世紀) 영조(永祖)가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재임중(在任中) 공(公)의 산소(山所)를 추심(追尋)하고 개봉축(改封築)하였으며 묘표(墓表)도 동인(同人)의 찬(撰)이다. 국토분단(國土分斷)으로 성묘불능(省墓不能)하게 되어 수십년을 궐사(闕祀)하던 중(中) 좌정승파(左政丞派) 후손(後孫)의 발의(發議)로 1981年 10月 대구(大邱) 창포동(菖蒲洞)에 묘선당(墓先堂)을 건립(建立)하고 5世(世) 휘영검(諱榮儉)·6세(世) 휘

위(諱禕)·7세(世) 휘홍(諱鴻) 제조(諸祖)의 추모비(追慕碑)를 세웠으며 공(公)의 추모비문(追慕碑文)은 대종회장(大宗會長) 태회찬(泰會撰)이다.

시사(時祀)는 대구 묘선당(大邱 墓先堂)에서 양(陽) 4월(四月) 넷째 일요일(日曜日)에 세일망제(歲一望祭)로 이신추모(以伸追慕)한다.

자(子)는 위(禕)·흥(興)·희(僖)·의(義)이고 녀(女)는 유계조(柳繼祖)·북현계(卜玄啓)·권호(權鎬)·찬입원조(撰入元朝)이다.

13. 五世祖 高麗國 典理判書 沔城君(諱 榮儉) 墓所奉審記

대개 조상을 추모하여 근본(根本)에 보답하는 것은 천리(天理)의 당연함이요, 사람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우리 선조(先兆) 전리판서공(典理判書公)의 산소(山所)가 신천(信川) 두라방(斗羅坊)에 계셨는데 실전(失傳)한 지가 몇 백년(百年)이 되니 자손(子孫)으로서 누가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지 않으리오.

불초(不肖) 내가 외람되게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를 임명(任命)받고 도입 후 즉시 족인(族人) 연술(然述)을 산하(山下)로 보내어 예전부터 전해오는 말을 자세히 탐문케 하니 그곳 산 이름이 구능현(具陵峴)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적실(的實)히 그곳이 산소(山所)가 계신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그곳 동민(洞民)으로서 연로(年老)한 자(者), 이중백(李仲白) 오영일(吳泳一), 박금성(朴今成) 3인(人)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들 진실(眞實) 여부에 따라 은위(恩威)와 화복(禍福)이 따를 것이니 양자택일(兩者擇一)을 하라고 타이르고 자세히 물어보나 3인(人)의 고백이 연술(然述)의 말과 같아서 자못 증거될 만한 단서가 보였다. 나는 또 족인(族人) 봉서(鳳書) 철회(喆會)를 연술(然述)과 같이 산소(山所)를 파게 했더니 그 결과 바리[밥그릇] 하나와 수저 하나와 철정(鐵釘) 두 개를 가지고 왔다

3) 政堂文學：高麗 中書門下省의 從二品職

그리고 봉서(鳳書)가 하는 말이 산세(山勢)의 강(強)함과 혈도(穴道)의 바름(正)과 수토(水土)의 깊음과 역량(力量)의 전일(專一)함과 풍기(風氣)의 낮은 것이 주부자(朱夫子[朱熹])가 저술(著述)한 산능의장(山陵議狀)[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을 논(論)한 책(冊)]의 말씀과 합리성(合理性)이 있는데 또한 이 묘지(墓地)가 발복(發福)하지 못하고 무후(無后)가 될 고총(古塚)이라면 주자(朱子)가 말한 바 풍수지리(風水地理)의 논리(論理)가 없는 것이 된다.

마침 신천군수(信川郡守) 이용필(李容弼)이 알고 산하(山下)로 와서 봉서(鳳書) 등과 같이 국내(局內)를 두루 살피고 이군수(李郡守)가 하는 말이 년전(年前)에 이 산(山) 외청룡(外靑龍) 산기슭을 가지고 산송(山訟)하는 백성이 있었는데 그 백여 년 전에 이 산 사방을 표시한 문적(文籍)을 상고하니 그 서쪽이 구릉현(具凌峴)이라 적힌 것으로 보아 명확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길거리에 떠도는 말을 들으니 백성들이 크게 의혹을 갖고 말하기를 관찰사(觀察使)가 만약에 선조산소(先祖山所)를 찾으면 사면 삼십리가 반드시 경계가 될 것이고 근처 산소(山所)를 결국은 파내고야 말 것이고, 또 이 산 밑의 전답(田畝)들도 모두 사패지지(賜牌之地)로서 뺏기게 될 것이니 사실대로 고(告)하면 안 된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으냐고 한다. 그래서 본월 11월에 내가 약한 몸을 이끌고 몸소 산하(山下)로 가고 12일에 그 동리로 들어가서 차마(車馬)를 놔두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험한 장등을 넘어서 정상(頂上)에 올라가 사면 산(山)을 관망하고 해가 질 무렵에 그 마을로 들어가서 동민(洞民) 중 연로(年老)한 자 약간명(若干名)을 불러서 지성으로 탐문하면서 하늘을 가리키며 맹서하되 내가 그대들을 속이지 않으면 그대들도 나를 속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되면 내가 어찌 관찰사(觀察使)의 세도로 구태여 남의 무담을 파며 꼭 사패지지(賜牌之地)를 찾으려 하리요.

우리가 산소수호(山所守護)를 잘못하여 실전(失傳)하였으니 허물은 사실 우리에게 있으니 타인(他人)이 들어와 장사지내고 토지(土地)를 장만

한 것이 무슨 죄가 되겠오. 그대들이 똑바로 비석 있는 곳을 말하면 나에게 은인이 될 것이니 어찌 결초보은(結草報恩)할 날이 없겠오. 이에 동민(洞民)들이 마음이 기뻐지고 성의에 감복하여 이중백(李仲白)이 비로소 비석 있는 곳을 가리켜 주었다. 즉시 물로 씻고 이끼를 벗겨내고 비면(碑面)을 보니 전자(典字)와 구자(具字)가 정녕(丁寧) 의심할 바 없었다.

13일에 오영일(吳泳一)이 병든 몸을 부축하고 와서 말하되 샷도의 지성(至誠)은 가(可)히 금석(金石)을 꿰뚫고神明(神明)을 감동시킬 만하니 동민(洞民)의 어느 누가 기뻐서 감복할지 않으오리까. 이 몸이 죽음을 앞둔 병든 백성으로 만약에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죽으면 죄를 지은 귀신이 되겠기에 감히 뱃속에 간직했던 비밀을 여쭙겠습니다.

이 몸이 대(代)를 두고 이 산하(山下)에 살면서 부조(父祖)에게 들으니 3백 년 전에 임춘엽(林春燁)의 말이 아무데 산소(山所)는 바로 구상공(具相公)의 산소(山所)라고 하였다고 하니 그 말이 오래된 고증을 단정할 수 있어서 충분히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한다. 나도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믿고는 곧 동네 노소(老少)를 모두 불러 소를 잡아 술대접을 하니 사람들이 다 취하며 배불리 먹고 나서 내 집일 모양 기뻐들 하며 영덕(領德)을 하였다. 나는 곧 산소(山所)에 가서 배례하고 관부(官府)로 돌아왔다.

후손인 가선대부, 황해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영조(永祖)는 삼가 기술(記述)하노라.

譯 滋東

14. 六世 中顯大夫 少府尹公 諱 禕

父 榮儉

일조(一作) 위(偉)이고 관직(官職)은 중현대부(中顯大夫) 소부윤(少府尹)이다. 증직(贈職) 삼중대광(三重大匡) 문하좌정승(門下左政丞) 특진보국숭록대부(特進輔國崇祿大夫)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 겸(謙) 관의금부사(判義禁府事) 지이조사(知吏曹事)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은 병신보(丙申譜)부터이고, 성원(姓苑)에는 문과(文科)이다. 역대보(歷代譜) 이후이며 을사보(乙巳譜)에서는 문과(文科)로 기재(記載)되었다. 공(公)의 증직(贈職)과 봉군(封君)도 3세 휘연(三世 諱珣)·4세 휘예(四世 諱藝)의 경우와 같이 공(公)이 장자(長子) 휘홍(諱鴻)의 귀현(貴顯)에 의한 것이다.

배(配)는 경주박씨(慶州朴氏)이고 부(父)는 동평장사(同平章事) 문정공 세태(文貞公 世泰)이다. 묘(墓)는 개성남면예서강상울곡(開城南面禮西江上栗谷)이고 상하봉(上下封)이며, 배(配)는 재후(在後)이다. 묘표(墓表)는 15세손(世孫) 윤명찬병서(允明撰并書)이다.

시사(時祀)는 대구 묘선당(大邱 墓先堂)에서 양(陽) 4월 넷째 일요일(日曜日)에 세일망제(歲一望祭)로 이신추모(以伸追慕)한다. 자(子)는 홍(鴻)·성량(成亮)·성노(成老)·성우(成祐)·성덕(成德)이고 녀(女)는 이무(李茂)·이빈(以彬)·나언신(羅彦臣)·이순(李淳)·임산보(任山寶)·최윤우(崔允祐)·박영균(朴永均)·최안보(崔安甫)·차종노(車宗老)이다.

15. 七世 都元帥公 諱 成老(都元帥派祖)(1)

前判安東大都護府事具成亮卒致賻

【國朝實錄】

父諱 禕 子諱 昂 諱 揚

朝鮮朝 資憲判安東大都護府事 江原道都元帥 贈議政府左贊成○墓廣州南慶安面葛麻嶺南木洞(今廣州郡廣州邑木里山一一四番地)子坐 神道碑銘安東人金忠顯撰 從十九代孫會升書

配 金海郡夫人 贈 貞敬夫人 金海宋氏 父 文簽書密直提學金海君文貞公天逢(一云天鳳) 外祖判事(一云政堂文學又云判書) 星州人李得芳○墓上下封在後

時祀 陰十月一日 歲一祀

○ 公墓壬辰亂失傳而顯宗壬子辻代孫賓推尋 局內有一金塚(成川府使墓) 英祖丙子特蒙判批歸正矣 高宗壬寅更與金漢默金在泳等相訟 謹依聖批只存一坏之意 如前斷案而有府郡文蹟及俵標

① 七世 都元帥公 諱 成老(都元帥派 派祖)

1377년(禡王(우왕) 3)의 관직(官職)은 대호군(大護軍)이며, 그 후 1388(우왕(禡王) 14) 4月 에 이성계(李成桂)가 공요군(攻遼軍)의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로 출정(出征)할 때 공은 강원도부원수(江原道副元帥)¹⁾로서 이에 속해 있었다. 좌우군(左右軍)은 모두 38,830人이고, 군졸(軍卒)이 11,634人·말(馬) 21,612匹 등(等)이다. <高麗史·列傳 卷 50>

1388年 7月 우왕생일(禡王生日)에 도당(都堂)²⁾이 강화(江華)로 의대(衣櫛)³⁾를 바칠 때 삼사좌사 조인벽(三司左使 趙仁璧)과 동지밀직(同知密直)⁴⁾인 공(公)이 갔었다. <高麗史>

동년(同年) 7月에 왜적(倭敵)이 광주(光州)를 함락시킴으로 양광(楊廣)

전라도상도도체찰사(全羅道尙道都體察使) 황보림(皇甫琳)·경상도 부원수(慶尙道 副元帥)인 공(公)등에게 명(命)하여 구원(救援)케 하였는데, 그때 공(公)이 왜적(倭敵) 오급(五級)을 참살(斬殺)하여 전공(戰功)을 올렸다. <高麗史>

이태조(李太祖(구휘(舊諱) 단(旦))와 더불어 위화도 회군(威化島 回軍)⁵⁾의 제장(諸將)에게 45名에게 1390年(공양왕(恭讓王) 2) 4월에 사공신(賜功臣)을 시행(施行)하도록 하였으며, 이 명단(名單)에 적힌 공(公)의 관직(官職)은 慶尙道都節制使)이다. <高麗史>

1392年(太祖元) 10월에 원종공신(元從功臣)의 호(號)가 해당되는 명단(名單)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⁶⁾에 교시(敎示)하였으며 이종의 공(公)의 관직(官職)은 전개성윤(前開城尹)이다. <太祖實錄 卷 2>

1393年(태조(太祖) 2) 8월에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⁷⁾가 해임(解任)되고, 1396年(태종(太宗) 5) 6월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⁸⁾인 공(公)이 사은진표사(謝恩進表使) 권중화(權仲和(판문하부사(判門下府使)))와 함께 진전사(進箋使)로 명(明)나라에 파견되어 화친(和親)의 뜻으로 양마(良馬) 12필(匹)을 헌납(獻納)하였다. 당시 피류사신(被留使臣)인 유구(柳珣)⁹⁾와 정신의(鄭臣義)¹⁰⁾와 함께 동년(同年) 11월에 돌아왔다.

1397年(太祖 6) 2월에 資憲大夫 판안동대도호부사(判安東大都護府事)로 부임(赴任)하고 동년(同年) 5월에 체임(遞任)되었다. <安東先生案·邑誌>

1) 都元帥 : 고려 이조 때 戰時에 軍隊를 통할하던 임시 무관직. 對內·對外의 전쟁 때 대개 文官의 最高官을 都元帥로 任命하고 임시로 軍權을 주어 軍隊를 통하게 했음.

2) 都堂 : 議政府의 別稱

3) 衣櫛 : 임금의 옷

4) 同知密直 : 密直司는 고려 때 王命의 出納·宮中의 宿衛·軍機등을 맡아보던 관청. 몇번

職制의 變경이 있었으며 1362年(恭愍王 11)의 密直司直은 從二品이 判司事·司事·知司事·簽書司事·同知司事이고, 正三品이 副使·提學·知申事·右左代言·左右副代言 등이다.(高麗史)

5) 威化島回軍 : 1388년(禡王 14) 5월 遼東征伐에 軍士를 이끌고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까지 이른 右軍都統使 李成 桂가 開京(開城)으로 回軍한 事件.

6) 都評議使司 : 高麗 때의 관청. 國歌의 重大한 일이 있으면 소속된 官員 중 正三品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 하였다. 朝鮮初期에는 高麗의 制度를 그대로 답습하였으며, 門下府·三司·中樞院의 從二品 이상의 모여 國家의 大事를 의논하였다. 1400년(定宗 2)에 議政府로 改編되었다.

7) 中樞院 : 朝鮮初期에는 高麗朝와 같이 中央官廳이 하나이며, 出納·兵機·軍政·宿衛·警備·差攝등의 일을 맡은 官廳이다. 官制는 判事(正二品) 1인이고, 從二品職은 使 1人·知事 1인·同知事 4人·僉事 6人·學士 1人 商議院事 3人이며 正三品에 承旨 등이다.

8) 商議中樞院事 : 註7) 參照.

9) 柳珣 : 1335 ~ 1398. 本貫 晉州. 文科及第. 1392年 朝鮮開國으로 杖流되고, 1395年(太祖 4) 政堂文學參贊 門下府事를 지내고 이 해에 正朝使로 明나라에 갔다가 表箋文(表文과 箋文)이 모멸적이라는 이유로 억류되었다.

귀국후 藝文春秋館太學士에 이르고 晉山君에 封해졌다. 詩號 靖平.

10) 鄭臣義 : 文臣. 1396年(太祖 5) 漢城府尹으로서 正朝使가 되어 明나라에 갔었다. 1397年 烏川君에 封해졌으며 이듬해 第1次 往者의 亂때 鄭道傳의 일파로 投獄되었다.

그 후 江原道都元帥를 지냈으며, 議政府左贊成이 贈職되었다. <癸丑譜> 배(配)는 김해송씨(金海宋氏)이며 부(父)는 천봉(天逢)(一云 天鳳)이다.

묘(墓)는 광주군(廣州郡) 광주읍(廣州邑) 목리(木里)이고 상하봉(上下封)이며 신위(神位)는 재후(在後)이다.

신도비명(神道碑銘)은 일중(一中) 김충현찬(金忠顯撰)이며 1973年 8月에 건립(建立)하였다.

子 양(昂)·양(楊)·조명초(趙明初)

② 七世 都元帥公 諱 成老

휘(諱)는 성노(成老)요 문정공(文貞公)[휘(諱) 위(禕)]의 제3자로서 기품이 영명하였고 공민왕(恭愍王) 3년에 최영 장군이 이끄는 북벌장행에 이성계와 더불어 우군으로 참전하신 바 있다.

당시의 조국은 남으로 왜적이 침입하고 북으로 중원이 괴롭히는 틈바구니에서 설상가상으로 조정에는 탐관오리들이 들끓던 시대로써 고려조의 국정(國政)이 날로 문란하여 백성이 도탄에 빠져 더는 고려가 지탱하기 어려움을 알고 「도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느껴서 할 수 없이 단장(斷腸)의 아픔을 품고 이태조의 혁명(革命)을 도와 조선 개국(開國)에 공을 세웠다.

이태조가 등극(登極)하매 공의 공로(功勞)를 인정(認定)하여 태조원년에 원종공신의 호를 받으셨고 다음해엔 중추원사(中樞院事)를 제수하고 그 후 강원도 도원수 판안동대도호부사 개성부윤 등을 역임하여 치적(治績)이 지대하므로 그명성(名聲)이 자자했다. 배위는 김해송씨로서 밀직제학을 지낸 김해군 문정공 휘 천봉(天逢)의 따님이시다. 슬하에 2남1녀를 두었는데 장남 휘 양(昂)은 전서(典書)요, 차남 휘 양(揚)은 공주목사를 지냈고 그 후손으로 충렬공 휘 치관(治寬)을 비롯하여 많은 대신과 명신(名臣)을 배출했고, 특히 팔곡공의 따님 인헌왕후(仁獻王后)와 여러 부마(夫馬) 그리고 상신(相臣)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자손도 각 파종가장 번성하여 우리 구문(具門) 전체의 3할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니 생각하면 이 할아버지가 각파 파조 중에서 제일 많은 분이라고 하겠다.

한때 산소를 실전(失傳)하였던 것을 후손인 휘 빈(賓)이 추심(推尋)하여 오늘까지 묘사를 봉행하고 있다.

16. 七世 都元帥公 諱 成老 神道碑銘 並序

金忠顯 撰

공(公)의 성(姓)은 구씨(具氏)요 휘(諱)는 성노(成老)요 본(本)은 능성(綾城)이니 시조(始祖)는 고려(高麗) 검교상장군(檢校上將軍) 휘(諱) 존유(存裕)이다. 그 아들 휘(諱) 민첨(民瞻)은 평장사(平章事)이니 공(公)의 오대조(五代祖)요 고조(高祖) 휘(諱) 연(珣)은 도감판관(都監判官)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이요 증조(曾祖) 휘(諱) 예(藝)는 판전의사정승(判典儀事政丞)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이요 조(祖) 휘(諱) 영검(榮儉)은 전리판서(典理判書) 면성군(沔城君)이며 고(考) 휘(諱) 위(禕)는 중현대부소부윤(中顯大夫少府尹) 증좌정승면성부원군(贈左政丞沔城府院君) 시(諡) 문정공(文貞公)이요

비경주박씨(妣慶州朴氏)는 문하시중(門下侍中) 시문정공(諡文貞公) 세태(世泰)의 녀(女)요 장형(長兄) 휘(諱) 홍(鴻)은 문하좌정승(門下左政承)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 시(諡) 문절공(文節公)이며 두문동제현(杜門洞諸賢)의 한 분이요 중형(仲兄) 휘(諱) 성량(成亮)은 판안동대도호부사(判安東大都護府事)요 弟 휘(諱) 성우(成祐)는 판서(判書)요 弟 휘(諱) 성덕(成德)은 재신(宰臣)이다.

공(公)은 기우(器宇)¹⁾가 굉대(宏大)하고 위망(威望)이 숙저(夙著)하니 일찍이 태조(太祖)를 도와 혁정(革鼎)²⁾의 기반(基盤)을 닦고 강원도부원수(江原道副元帥)가 되어 광주(光州)를 함락(陷落)시킨 왜적(倭賊)을 토평(討平)하고 그 공(功)으로 강원도도원수(江原道都元帥)가 되고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에 임(任)하고 진전사(進箋使)³⁾가 되어 명(明)에 갔다 돌아와서 벼슬이 자헌대부판안동대도호부사(資憲大夫判安東大都護府事)에 이르고 그 뒤에 송정대부의정부좌찬성겸판의금부사(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를 증(贈)하니 공(公)의 이력(履歷)의 대략(大略)이다.

배(配)는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김해송씨(金海宋氏)이니 밀직제학김해군(密直提學金海君) 시(諡) 문정공천봉(文貞公天逢)의 녀(女)이며 2남1

녀를 생(生)하니 장남(長男) 휘(諱) 양(昂)은 전서(典書)요 차남(次男) 휘(諱) 양(揚)은 공주목사(公州牧使) 증령의정능원부원군(贈領議政綾原府院君)이며 판현사(判縣事) 평양조명초(平壤趙明初)는 공(公)의 서(壻)요 장방(長房)의 4남은 만호휘 인식(萬戶諱 仁息) 부사휘 인관(府使諱 仁寬) 만호휘 인효(萬戶諱 仁孝) 군사휘 인공(郡事諱 仁恭)이요 차방(次房)의 4남은 영의정능성부원군충렬공휘 치관(領議政綾城府院君忠烈公諱 致寬) 訓練院都正 증호조참판능성군휘 치명(訓練院都正 贈戶曹參判綾城君諱 致明) 공주목사휘 치평(公州牧使諱 致平) 지중추부사호양공휘 치홍(知中樞府事 胡襄公諱 致洪)이다.

이하(以下) 자손(子孫)은 번연(繁衍)하여 방거(放擧)하지 못하고 다만 그 현저(顯著)한 이를 열록(列錄)한다. 증손(曾孫)에 정국공신(靖國功臣) 지돈녕부사능천군(知敦寧府事綾川君) 휘 수영(諱 壽永)이 있고 5대손(代孫) 휘 한(諱 澣)은 능창위공도공(綾昌尉恭悼公)이요 6대손(代孫) 휘 사안(諱 思顔)은 능창위(綾昌尉)요 좌찬성능안부원군문의공(左贊成綾安府院君文懿公) 휘 사맹(諱 思孟)은 원종(元宗)의 국구(國舅)요 8대손(代孫) 휘 인후(諱 仁垆) 정사년국공신(靖社寧國功臣)으로 좌의정 능천부원군충무공(左議政 綾川府院君忠武公)이요 휘 인기(諱 仁壘)는 판돈녕부사 능풍부원군충간공(判敦寧府事 綾豐府院君忠簡公)이요 14대손(代孫) 휘 민화(諱 敏和)는 능성위(綾城尉)이다.

년대구원(年代久遠)하고 문헌(文獻)이 산일(散佚)하여 공(公)의 평일사행(平日事行)과 관부시종(官簿始終)을 상세(詳細)히 알 길 없음이 매우 통한(痛恨)되는 바이나 후사(後嗣)의 진진(진振)함이 이같으니 이 어찌 공(公)의 적극여음(積極餘蔭)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공(公)이 수립(樹立)한 공훈(功勳)은 드디어 한양(漢陽)의 기업(基業)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후대(後代)에도 국가(國家)의 주석(柱石)이 배출(輩出)됨을 보매 공(公)의 묵우음줄(默佑陰鷲)⁴⁾이 큼으 알 것이다. 어찌 기록하지 않으리요.

공(公)의 묘(墓)가 경기도광주목동 자좌(京畿道廣州木洞 子坐)에 있고 배위(配位)는 동원(同原) 이꿈(異窆)하여 공(公)의 후봉(後封)에 있고 양봉(襄奉)⁵⁾ 한 지 五百年에 임난 후(壬亂 後)

1) 기우(器宇) : 기개와 도량(度量)

2) 혁정(革政) : 이전의 왕통(王統)을 뒤집고 다른 왕통(王統)이 대신하여 통치자(統治者)가 되는 일

3) 진전사(進箋使) : 중국황실(中國皇室)에 전문(箋文)(吉凶時)에 임금에게 아뢰던 사육체(四六體)의 글)을 진헌(進獻)하기 위하여 갔던 사신(使臣).

4) 묵우음즐(默佑陰鷲) :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주 은밀하게 하늘이 도움.

5) 양봉(襄奉) : 장례(葬禮)를 지냄

유실(遺失)되어 영조병자(英祖丙子(영조 32·1756)에 추심(推尋)하고 의물(儀物)을 갖추었으나 지금에 와서 마륵(磨泐)⁶⁾이 심(甚)하므로 합종(闔宗)⁷⁾이 수의(收議)하고 임자(壬子 建國 25·1972) 춘(春)에 개사(改莎)하였으며 이어 계축(癸丑(建國 26·1973) 추(秋)에 새로이 이수(螭首)⁸⁾를 세워 묘의(墓儀)가 일신(一新)하게 되어 방예회승(旁裔會升)이 묘문(墓文)을 청(請)하므로 천단(淺短)함을 헤아림이 없이 대강(大綱)을 활요(撮要)⁹⁾하고 명(銘)으로 잇는다.

綾城之具譜自麗朝累世袞冕輝映星彩¹⁰⁾ 逮于公身王事日靡鷓鴣¹¹⁾ 毀室鸞鳳¹²⁾ 棲枳民情危情倭寇益侮平難于南居民安堵輔佐王業威武赫赫義合伊傳¹³⁾ 名垂竹帛繩繩雲仍文武將相載顯載榮王室弼諒惟公惟哲於斯何極迺鑄貞石¹⁴⁾ 萬世不泐光復後癸丑8月 日(碑文筆寫)

장할손 능성구씨(綾城具氏) 고려조(高麗朝)에 시작하여 누대(累代) 현관(顯官) 이어져서 성채(星彩)같이 찬란하오.

공(公)의 대(代)에 이르러서 국정(國政)이 문란하여 치효(鷓鴣)가 훼손(毀室)하니 난봉(鸞鳳)은 물러나서 탕자 밭에 숨었다네.

민심(民心)은 흥흥하고 왜구침범(倭寇侵犯) 극심할 때 남도(南道)를 평정(平定)시켜 거민(居民)들이 안도(安堵)했오.

태조왕업(太祖王業) 보좌(補佐)하여 위무(威武)가 혁혁(赫赫)함은 이부(伊傳)의 분을 받아 명부죽백(名傳竹帛)하였지요.

공(公)의 뒤를 이은 후손(後孫) 문무장상(文武將相) 연달아서 이름도 드높게 왕정(王政)을 보필(輔弼)했오.

명철(名哲)한 공(公)이시어 참으로 장하되다. 정석(貞石)에 행적(行蹟)새겨 만세(萬世)에 전(傳)하리라.

○ 金忠顯 : 호(號)는 일중(一中)이요 본관(本貫)은 안동(安東)이니 한문(漢文)에 조예가 깊고 글씨에 능하여 국전심사위원장(國展審査委員長)을 여러 차례 역임(歷任)하였다.

※ 신도비명(神道碑銘)에는 서문(序文)은 국한문(國漢文)으로 명(銘)은 순한문(純漢文)으로 기록(記錄)되어 있는 것을 이번 문헌록(文獻錄) 편집시(編輯時) 추역(追譯)하였음.

6) 마륵(磨泐) : 오랜 세월에 깎이고 격지가 일어남

7) 합종(闔宗) : 온 집안 宗族

8) 이수(螭首) : 옛날 비액(費額), 석주(石柱), 석계(石階), 인장(印章), 종정(鐘鼎) 등에 뿔없는 용(龍)의 형체(形體)를 새겨 장식한 것.

9) 촬요(撮要) : 요점을 골라 취함.

10) 성채(星彩) : 별과 같은 광채.

11) 치효(鴟鴞) : 올빼미. 흉악한 사람에게 비유함.

12) 난봉(鸞鳳) : 난새와 봉황. 신명(神明)의 이름. 유덕(遺德)한 현인(賢人)에 비유함.

13) 이부(伊傅) : 이윤(伊尹)·부설(傅說)의 준말. 이윤(伊尹)은 은(殷)나라 탕(湯)임금을 도와 폭군(暴君) 하갈(夏桀)을 몰아냈고 부설(傅說)은 은(殷)나라 고종(高宗)을 보필하여 쇠망의 위기에서 구했으므로 두 사람 모두 은(殷)나라 명상(名相)으로 전해짐.

14) 정석(貞石) : 단단한 돌로 묘비(墓碑)나 비석(碑石)을 이룸.

17. 江原道副元帥公 諱 城老(高麗史)(1)

怠祖爲右軍都統使以安州都元帥鄭地上元帥池湧奇副元帥皇甫琳東北面副元帥李彬江原道副元帥具成老助戰元帥尹虎裴克廉朴永忠李和李豆蘭金賞尹師德慶補八道都統使助戰元帥李元桂李乙珍金天莊屬焉
(列傳卷第五十·辛禡五年)

七月己卯都堂以禡生日遺三司左使趙仁壁同知密直具成老于江華獻衣樹昌奉大妃李氏徙居壽寧宮卽壽昌宮也避名改之倭陷光州命楊廣全羅慶尙道都體察使皇甫琳楊廣道副元帥都興全羅道副元帥金宗衍慶尙道副元帥具成老等救之日本國

使妙葩關西省探題源了俊遺人來獻方物歸被虜二百五十人

(全上·辛禡五年)

李太祖與前侍中曹敏修首倡大義諭諸將定策回軍以安社稷功勞重大帶礪難忘其同心協力者門下侍中深德符前判三司事王安德門下贊成事池湧奇評理裴克廉尹虎前評理鄭地評理商議柳曼殊知門下府事朴葳商議知門下府事崔允洙平壤尹皇甫琳前密直司事李茂李彬右代言趙仁沃鷹揚君上護軍南閔奉福君僧神照判慈惠府事慶補前黃州牧使趙希古前原州等處兵馬節制使慶儀判懿德府事李和判慈惠府使崔鄂廣州等處兵馬節制使崔雲海知密直司事李豆蘭陸麗開城尹李承源知密直司事尹師德慶尙道都節制使具成老同知密直司事朴永忠和寧尹鄭曜同知密直司事黃希碩兪光祐密直副使金仁贊張思吉前忠州等處兵馬節制使崔公哲前江陵等處兵馬節制使王賓前鷄林尹朴可賢前密直副使金天莊晉州等處兵馬節制使鄭子義前開城尹李伯吏曹判書趙溫前義州牧使鄭松前判書李德林前義州萬戶白英祐千戶張哲等四十五人皆賜公臣有司啓開施行

(世家卷第四五·恭讓王一年)

18. 江原道副元帥公 諱 城老 高麗史節要(2)

以我 太祖爲右軍都統使安州道都元帥鄭地上元帥池湧奇副元帥皇甫琳東北面副元帥李彬江原道副元帥具成老助戰元帥尹虎裴克兼朴永忠李和李豆蘭金賞尹師德慶補八道都統使助戰元帥李元桂李乙珍金天莊屬焉左右軍共三萬八千八百三十僉一萬一千六百三十四

(辛禡十四年 四月)

秋七月倭陷光州命楊光全羅慶尙道都體察使皇甫琳楊廣道副元帥都興全羅道副元帥金宗衍慶尙道副元帥具成老嶝救之 日本國師妙葩關西省探題源了俊遺人來獻方物歸我被虜民二百五十人仍求藏經

(全上 八月)

慶尙道副元帥具成老斬倭五級以獻倭寇沃州黃澗永同等縣昌教私田之租一皆公牧則朝臣必患艱食姑令半收其租以充國用

(全上 七月)

19. 前開城尹諱成老

教都評議使司日前門下評理柳蔓殊參贊門下府事崔永沘前判慈惠府事崔鄆參知門下府事金立堅前密直司趙琳判開城府事尹師德商議中樞院事黃希碩前知密直司事安柱都興前楊廣道兵馬節制使陸麗商議門下府事鄭曜前漢陽尹李彬前安州牧使李承源前廣州等處兵馬節制使崔雲海前同知密直司事李茂金受益前開城尹具成老商議中樞院事李仁壽前密直副使鄭子珪前廣州等處兵馬節制使權和前清州節制使王承貴商議

中樞院事郭忠輔前全州節制使陣乙瑞中樞院副使李凝前江陵節制使李沃中樞院副使金乙貴等自予爲將帥時久在麾下服勞捍禦不避艱險其勞可惜又鄭夢周等專弄國柄陰誘臺諫謀扇禍亂將及寡躬而乃抗章請罪夢周及其黨與姦謀瓦解以有今日其誠可賞宜皆稱下原從功臣之號其同知中樞院事朴永忠出尹漢陽上將軍尹方慶時丁母喪不在抗章之列不可以一時之故棄其舊日之勞功臣之號亦與上同褒賞之典有司擬議舉行

(卷二 元年 壬申 十月)

20. 先祖都元帥公山所失傳山訟判批文

惟我 先祖都元帥公山所失傳於壬辰之兵燹迄于顯廟壬子始爲推尋而

英廟己卯掘去鄭塚之意上言矣 聖批若日撤人先墓碑碣俾厥子孫失尋仍作己物罪犯罔赦具氏都元帥非但開國勳臣於予爲十一番祖上予亦訟隻勿拘訟恪所見處并掘移是矣該道邑臣詳宜知悉舉行事爲教即掘鄭塚十二且青龍內有金塚亦欲掘去則渠移麗葬故又爲上言自刑部 啓聞矣 判批內金塚果勝國之葬則只存一坏俾其子孫拜掃事爲 教兩次 聖批若是隆洽感泣無地而不幸丙午宗孫家失火 聖朝批教渾入於回祿中其在典守之道豈不凜悚哉此記載爲識後焉 丁未中春上浣 (追遠錄)

21. 敬慕齋重修記

孔子曰有文事者必有武備春秋傳曰文能附衆武能威敵然則雖文昌之世武不可以不講况創開大業而內外患憂尙且多端乎所以以皇帝之聖立力牧爲將以檀君之神命肅慎氏任征伐下逮漢唐羅麗之興莫不有所擇焉而近古仙李朝鮮 太祖康獻

王雖以天命人心之所歸掘符乘龍南之倭寇北之野擾尙未盡平勝國讓王方在原州兼食杆城而謀復者不少且地勢險阻羅末弓裔之所嘗恃而叛據也則可謂天下之事未知終始而江原一道實係國家之安危矣任之得不亦難乎當是時也我十八代祖文川郡事府君之從父兄都元帥府君受閩外之寄留鎮撫之累年非惟闔境帖然終爲士大夫之冀北盖倣唐吳節度重胤之鎮河陽取如石洪溫造者爲幕下士有所勸也歟公既歿葬于畿甸之廣州治 葛麻嶺南木洞子坐原夫人宋氏祔焉而過者式之曰此具都元帥公墓樵牧亦且相戒不入苟非功德之人深知能如是乎公之功德既如是故天且厚報於其子孫至今二十餘代五六百年之間文武將相繼繼繩繩吁其盛矣子孫爲築室於墓下以爲省掃祭祀有時會合修睦之所扁之曰敬慕齋戒之義也年久歲深頽圯於上雨旁風故謀所以重修始於某月日竣於某月日益復侖奐而厥費總五十餘萬圓金然子孫既衆多又皆有誠力似若不甚勞焉幹其役者距齋稍遠之然穆氏若學書氏也而告功于花樹會長京藥水洞然昶氏暨副會長惠化洞滋好則喜甚使山泉洞應會趣求記刻板應會送保寧僑寓元會來林江責余余不敢固辭謹述如右悅若拜瞻都元帥文川郡事兩府君當日氣象於一席之間而花樹之誼有以益深矣惟願吾宗今以後益修文武之業毋墜先祖之遺毋負孔子之訓

(錦汀遺稿)

2. 조선왕조실록속의 도원수공 약기

1392년(태조1)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교지를 내려 구성노가 개성윤(開城尹)이 되다.

1393년(태조2)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중국에 진헌사로 요동에 이르러 동렬(同列) 조반(趙胖)과 서로 힐난하여 비난을 받았으며, 중국에 진헌한 말 값의 채단(綵緞)을 사적으로 교환한 죄를 탄핵받아 관직을 파직당하였다.

1396년(태조5) 진전사(進箋使) 구성로는 사은 진표사(謝恩進表使) 권중화(權仲和)와 남경에 억류되어 있던 사신(使臣) 유구(柳珣)와 정신의(鄭臣義)가 남경에서 돌아왔는데, 정신의가 좌군도독부(左軍都督府)의 자문을 전하였다.

본부(本部) 자도독 양문(楊文) 등 관원이 삼가 황제의 명을 받자왔는

데, 지난 해 월에 조선국 진마사신(進馬使臣) 양첨식(楊添植) 등이 본국에 돌아갈 때에 요동도사(遙東都使)에서 백호(百戶) 하질(下質)과 군인(軍人)이 유완자(劉頑子) 등 명을 시켜 양첨식 등을 호송하여 압록강까지 이르게 하니, 그곳에 이른 진마사신이 좋은 말로써 백호와 기군들에게 설유(說諭)해서 압록강 건너에 있는 의주 만호부의 관역(館驛) 안에 머물러 놓고 변변치 못한 예로 서로 접대하면서 말이 많았으나, 백호 하질은 그 말을 옳게 여기지 않고 압록강을 떠나서 배가 중류에 이르자, 그 중의 선부 1명이 백호 하질의 목 밑에 있는 옷깃 단추를 거머쥐어 한꺼번에 강물로 던져서 백호가 강물에 빠져서 죽으니, 이것이 과연 조선 국왕의 계책이었는가? 혹은 의주만호(義州萬戶)가 나쁜 것인가? 이런 경박하고 간사한 것들이 함부로 혼단(釁端:틈이 생기는 실마리)을 일으켰으므로, 좌군도독부를 시켜서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의주 만주로 하여금 와서 회답하게 하라 하였다.

24. 忠烈公 諱 致寬

父諱揚 子諱慶

字而栗 太祖丙戌(一四〇四)生 己酉司馬 甲寅文科 佐翼佐理功臣 議政府領議政兼吏曹判書 綾城府院君 出將入相十餘年 成宗庚寅九月十三日卒 諡忠烈 清白吏 入海東名臣錄(金堉編)及東國輿地勝覽○墓考瑩下亥坐 神道碑銘 四佳徐正撰 司諫朴孝元書 再建神道碑銘從十七世孫會升書

配貞敬夫人 淸州李氏 父司直仲扶 祖三司左使承渡 進賢館大提學琅城君邦直 曾孫 外祖軍資監正晉州人柳珣 忌四月十九日○墓雙封 時祀 陰十月 二日

25. 海東名臣錄과 輿地勝覽 속의 具致寬

자(字)는 이율(而栗) 시호 충렬(忠烈) 1429년(세종11)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으나 워낙 성격이 정직하고 깨끗하여 윗사람에게 아첨하기를 싫어하였으므로 10년이 지나도록 항상 낮은 벼슬에 머물러 있었다. 1455년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의 호를 받았다.

평안도 절제사 이조참판,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1466년(세조 12) 영의정이 되었다. 그때 건주(建州)의 야인(野人) 즉 여진족이 변경을 자주 침범해 오자 1467년 왕은 공을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으로 삼아 보내면서 「능성은 나의 만리장성이오」 하며 좌우에 말했다 한다. 공은 용맹스럽게 싸워 토벌하여 물리치고 돌아왔다.

예종이 즉위하자 원상(院相)으로서 호조판서(戶曹判書)를 겸임하고 성종이 즉위(1470)하자 다시 이조판서(吏曹判書)를 겸임, 1470년[경인(庚寅)년] 9월 13일 65세로 돌아가시니 좌리공신 일등(佐理功臣一等)을 내렸다.

관직에 있을 때에 산업을 장려했고 성품이 정직 청렴하여 별세하실 때

에 유산이 업었으며 영의정을 지낸 공이 집이 가난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이 옹색하여 왕은 청렴함에 깊이 감동하여 쌀과 콩을 내렸다고 하니 청탁을 배격하고 관리의 모범을 보인 청백리(清白吏)의 본보기로 상징되었다.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과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입록(入錄)되었음.

26. 忠烈公 神道碑銘 譯文

역 구자동

하늘이 태평성대(太平聖代)의 운(運)을 열으시매 반드시 기재준걸(奇才俊傑)의 인재(人材)를 내보내어 대업(大業)을 보필(輔弼)하여 성취시키니 이는 우리 세조(世祖) 혜장대왕(惠莊大王)의 흥운(興運)이라 하겠다.

원대(遠大)한 지모(智謀)로 보필하고 경륜(經綸)으로 성사(成事)시켜 그때그때마다 치적(治績)

의 명성(名聲)을 빛낸 사람이 있으니 능성부원군 구공(綾城府院君 具公)이 그 중에 한 분이다.

공(公)의 휘(諱)는 치관(致寬)이요 자는 이율(而栗)이니 구씨(具氏)는 본래 능성(綾城) 망족(望族)으로서 고조 휘(高祖 諱) 영검(榮儉)은 고려조에 벼슬하여 면천(沔川) 고을을 사향(賜鄉)받고 면성군(沔城君)에 봉군(封君)되며 증조 휘(曾祖 諱) 위(禕)는 문하좌정승(門下左政丞)에 증직(贈職)되고 시호(諡號)는 문정공(文貞公)이다.

조고 휘(祖考 諱) 성노(成老)는 청환(淸宦)과 현직을 두루 거쳐 안동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事)와 개성부윤(開城府尹)을 지내면서 자자(藉藉)하게 명성(名聲)이 높았으며 고(考)의 휘(諱)는 양(揚)이니 일찌기 안악·영월(安岳·寧越)의 군수(郡守)와 정주·광주·공주(定州·廣州·公州)의 목사(牧使)를 지내면서 청백(淸白)하고 애민(愛民)하는 이름을 남겼으며 부인(夫人) 윤씨(尹氏)는 또한 평해대족(平海大族)으로서 치가(治家)의 법도가 있었고 아들 사형제(四兄弟)를 낳아 성실하게 시서(詩書)와 예절을 가르쳤다.

공(公)이 그 중 장남(長男)으로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구군(具君)의 어르신네는 지위가 재능(才能)에 차지 못했지만 능히 그 가문(家門)을 일으킬 사람은 그의 사운(嗣允)일 것이다”라고 하더니 과연 공(公)의 훈공으로 영의정(領議政)이 추증(追贈)되었다.

공(公)은 영락(永樂) 병술(丙戌 태종(太宗6·1406))년에 출생(出生)하여 기유(己酉 (세종(世宗11·1429))년에 사마과(司馬科)에 급제하고 갑인(甲寅(세종(世宗16·1434))년에 세종(世宗)이 성균관(成均館)에 임어(臨御)하사 과거(科擧)를 보이며 공(公)이 과거에 급제하여 처음으로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에 임명되고 얼마 후 기사관(記事官)에 선발되었다가 검열(檢閱)과 대교(待敎)를 거쳐 네 번째로 전직(轉職)되어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 되었으며 이어서 황해도도사(黃海道都事)로 나갔다.

갑자(甲子(세종(世宗26·1444))년)에나 거정(居正)이 처음으로 관직에 나아가 사재감(司宰監) 직장(直長)으로 있을 적에 나의 선부군(先府君)이 관사(判事)로 계셨으므로 비로소 관복(官服)차림의 공(公)을 만나보니 기품(氣品)이 준엄하여 엄연(儼然)한 기상(氣像)을 엿볼 수 있었다.

얼마 후 나 거정(居正)이 집현전박사(集賢殿博士)가 되고 공(公)은 병조좌랑(兵曹佐郎)이 되었는데 집현전(集賢殿)의 모든 선배(先輩)들이 공(公)으로 더불어 교류(交遊)하는 이가 많으므로 이것이 동기가 되어 내가 대화(對話)를 하여보니 공(公)은 지조가 견고하고 식견(識見)이 고매(高邁)하여 때로 논리를 들어보면 간엄(簡嚴)하고 방정하며 시속(時俗)의 흐름에 관여하지 않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히 숙연(肅然)한 마음으로 공(公)을 존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公)은 성품이 정직(正直)하고 진취(進取)에 청렴하며 또 그를 취허(吹噓)하고 인도(引導)하는 이가 없으므로 하급(下級) 관료에서 십여년(十餘年)이나 배회(徘徊)하매 사람들은 공(公)에게 이르기를 “남의 밑에서 굽혀만 지낸다”고 하니 공(公)은 이르기를 “나는 높은 곳을 향하여 활보할 뿐이라”고 하매 여러 선배(先輩)가 이르기를 “구공(具公)은 그릇이 큰 사람이니 어찌 남의 밑에서만 오래 있을 사람이냐”고 하였다.

병인(丙寅(세종(世宗)·1446)년에 내간상(內艱喪)을 당하여 거상을 마치

고 다시 벼슬에 나아가 병조정랑(兵曹正郎),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 사복시윤(司僕寺尹)을 역임(歷任)하였다.

세조(世祖)가 국저(國政)을 보필하게 되매 공(公)을 불러 정책을 의논한 뒤 공(公)의 그릇을 크게 여기고 이르기를 “그대를 너무 늦게 안 것이 한(恨)스럽다”하더니 얼마 후 승문원동부승지(承文院同副承旨)로 발탁되고 곧 좌승지(左承旨)에 전보(轉補)되었는데 그 때가 국가(國家)의 문제점이 많아서 그 기밀(機密)을 살핌이 매우 중요했는데 공(公)이 그 일을 잘 주선하여 사서(事端)의 출납(出納)을 신중히 하여 많은 신임을 받았다.

을해(乙亥 (단종(端宗3·1455))년)에 세조(世祖)가 즉위(即位)하여 훈공으로 공(公)에게 좌익공신(左翼功臣)의 녹권(錄券)을 내리고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승진시키어 능성군(綾城君)을 봉했으며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전임(轉任)했다.

이어서 세조(世祖)가 선정(善政)에 뜻을 두고 공(公)에게 군정(軍政)을 위임하니 공(公)은 사리(事理)를 통찰함이 법도가 있고 강구하며 판단함이 심히 명철(名哲)하므로 세조(世祖)가 감탄하여 이르기를 “능성군(綾城君)은 문무(文武)의 재질이 양전(兩全)하니 내가 어찌 장상(將相)감이 없다고 근심하리요”하였다.

정축(丁丑(세조(世祖2·1457)년)에 덕종(德宗)이 동궁(東宮)으로 있다가 승하(昇遐)하매 세조가 예종(睿宗)으로 세자(世子)를 삼아 그 유훈을 명나라에 주청(奏請)코자 상당군 한공(上黨君 韓公(明澮))으로 정사(正使)를 삼고 공(公)으로 부사(副使)를 삼아 보냈는데 임무를 잘 마치고 돌아오매 그 품계(品階)를 가정(嘉靖)으로 높여서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옮겼다.

세조(世祖)는 평안도(平安道)는 북(北)쪽의 관문(關門)으로서 단속과 제재(制裁)를 소홀히 할수 없는 곳인데 의례적으로 무신(武臣)들만을 절도사(節度使)로 제수(除授)하여 병방을 다스려왔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번거로운 변방을 무마하고 방어함에는 문무(文武)가 겸전(兼全)한 중신(重臣)들을 보내어 진정(鎭定)함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공에게 절도사(節度使)를 제수하였다.

세조(世祖)는 부임하는 공(公)에게 절월(節鉞)을 내리었고 또한 은밀한 친서(親書)와 밀부(密符)를 주면서 이르기 “내가 경(卿)을 곁에서 떠나 보내고 싶지 않으나 곤수(閫帥)의 임무 또한 막중(莫重)하므로 본의(本意)아니게 경(卿)을 번거롭게 하오. 그러나 공(公)이 간 뒤에는 다시 서(西)쪽 변경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오”라고 하였다.

공(公)은 임지에 부임하여 장병(將兵)을 호령(號令)하매 간걸하면서도 엄숙하고도 은애(恩愛)와 위엄이 함께 베풀어져서 사람들을 대할 적에 화기(和氣)가 애애하게 담소(談笑)하는 중에 군무(軍務)는 자연적으로 질서가 잡혀었다.

또 공(公)은 평안도(平安道)의 조세(租稅)를 연변(沿邊)주군(州郡)에 수송하여 군수(軍需)를 갖추고 또는 공물(供物)을 철폐하여 변방 백성을 편안히 할 것을 상감계 주청(奏請)하여 모두 윤택(允許)가 내리니 백성들도 기뻐서 저절로 심복(心腹)하게 되었고 세조(世祖)는 공(公)의 노고를 생각하여 손수 입었던 옷을 벗어서 하사(下賜)하는 은총(恩寵)을 베풀었다.

변방이 안정되니 공(公)을 소환하여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제수하고 정헌대부(正憲大夫)로 품계를 높이니 사람들은 서로 경하(慶賀)하며 이르기를 “관원(官員) 전형(銓衡)을 바로 행(行)해야 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공(公)을 선임(選任)하였으니 앞으로 이도(吏道)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이조판서(吏曹判書)들은 의례적으로 관직(官職)을 임용(任用)할 때에 자기 임의(任意)로 안건을 처리하고 아래 관원(官員)들과는 상의를 하지 않아서 참판(參判) 이하(以下)는 수수방관(袖手傍觀)만 하였는데 공(公)은 이것을 분통히 여기고 그 폐단을 바로 잡는데 노력하였다.

그래서 공(公)은 여러 관직(官職)을 임면(任免)할 때에 동조 관원(同曹 官員)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결하고 비록 미관말직이라도 혼자서 처결하는 법이 없었고 사사로운 은혜로써 친척과 친구들을 감싸주는 일이 없으며 또 남의 공(功)과 재능을 질투하는 소인배(小人輩)는 승진의 대상이 되더라도 재결(裁決)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도태(淘汰)한 용관(冗官)이 수십원(數十員)이나 되었고 그 중에서 고관귀인(高官貴人)의 자손(子孫)들이 좋은 벼슬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 밀리게 되었다.

나 거정(居正)이 그 때 결원(缺員)에 보직되어 참의(參議)가 되었는데 하루는 마침 술이 ㄷ취하여 정방(政房)에서 즐고 있었는데 공(公)이 나에게 소리높여 꾸짖으며 이르기를 “徐參議)는 내가 사람을 선용(選用)하매 내 생각대로 자행(恣行)하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줄 아는가? 만일 후일(後日) 채용에 실수(失手)가 있으면 참의 자신(參議 自身)은 집에 있어서 몰랐다고 하겠는가? 하므로 나 거정(居正)은 부끄러워 사죄를 하였다.

한번은 공(公)이 이름을 아는 명사(名士) 한 사람을 대관(大官)으로 임용(任用)하고자 하매 이를 반박하는 자(者)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골계(滑稽)를 좋아하니 불가(不可)하다”고 하므로 공(公)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한무제(漢武帝)가 어째서 동방삭(東方朔)을 채용하였는가? 사람이 재질이 있으면 골계(滑稽) 따위가 무슨 흠이 되리요?”하고 마침내 채용하였다.

또 한번은 한 문사(文士)가 외직(外職)으로 고을이 교관직(教觀職)에 있는지 10년이 되도록 벼슬을 옮기지 못했으므로 현감(縣監)으로 채용하려 하매 이를 반박하는 자(者)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활(迂闊)하니 불가(不可)하다”고 하므로 공(公)은 말하기를 “십년(十年)이면 강산(江山)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남의 밑에서 굽혀만 지내게 하느냐”하며 들어 현감에 채용하여 과연 지적의 효과를 보았으니 이는 공(公)이 사람을 임면(任免)하는 것을 한결 같이 지공무사(至公無私)로 일관(一貫)하였으므로 비록 공을 싫어하는 사람도 마침내 공(公)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낭포아한(浪甫兒罕)이 반역을 한 이래(以來)로 북방(北方) 변경이 불안(不安)하므로 세조(世祖)는 공(公)을 함길도도체찰사(咸吉道都體察使)로 임명하여 변경을 진정시킨 뒤에 공(公)의 품계를 높여서 승정대부(崇政大夫)로 승차(陞次)시켰다.

임오(壬午(세조(世祖7·1462)년 2월에 우찬성(右贊成), 지성균관사(知成

均館事) 세자이사(世子貳師)로 승진하고 이해 7월에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발탁(拔擢)하여 능성부원군(菱狀府院君)에 봉했으며 8월에 의정부우의정(議政府右議政)에 승진하고 다시 영의정(領議政)으로 옮겨서 영오위도총부 도총관(領五衛都摠府 都摠管)을 겸직시켰다.

공(公)은 의정부(議政府)에 있으면서 시정(施政)이 관대(寬大)하고 간이(簡易)함을 숭상하고 경장(更張)을 좋아하지 않으니 참다운 재상(宰相)의 체도(體道)를 구비했다. 그러나 공(公)은 누차 직위가 너무 성만(盛滿)함을 주청하여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병술(丙戌(세조(世祖11·1466)))년에는 부원군(府院君)의 작호(爵號)만 갖고 있었다.

정해(정해(세조(世祖12·1467)))년에 명(明)나라 황제(皇帝)가 야인(野人)을 토벌하매 우리나라의 군병(軍兵)을 징발시키매 세조(世祖)가 여러 장수를 파견하여 과거강(婆猪江)의 이만주(李滿住) 소굴을 엄습하여 고생 끝에 진멸(殄滅)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서 변경을 엿보고 노략질을 일삼았다.

세조(世祖)는 공(公)을 명(命)하여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을 삼고 좌우제신(左右諸臣)에게 말하기를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은 나의 만리장성(萬里長城)이라」고 하니 이 때에 공(公)이 세 번째 절월(節鉞)을 잡고 출장입상(出將入相)을 하였으므로 세조(世祖)의 신임(信任)이 더욱 두터웠다.

무자(戊子(세조(世祖13·1468)))년에 예종(睿宗)이 즉위(卽位)하여 공(公)에게 호조판서(戶曹判書)를 겸직(兼職)시켰으며 그 때 나 거정(巨正)도 부끄럽게도 판서(判書)가 되었는데 그 해에 바로 흉년이 심하여 팔도 백성(八道百姓)이 기근(飢饉)이 심하므로 구제책(救濟策)이 빈번하게 논의(論議)되었다.

그래서 조정에서 그 책임을 아무 경륜(經綸)도 없는 나에게 맡기므로 눈앞이 캄캄하여 조처할 바를 몰랐다가 공(公)의 힘을 빌어 대책을 세워서 백성들을 기근에서 벗어나 생활(生活)할 수 있게 하였다.

또 경기지방(京畿地方)의 공부(貢賦)가 타도(他道)에 비하여 배(倍)나 많았고 더욱이 그들의 근심거리는 하절(夏節)에는 청초(靑草) 동절(冬節)

에는 건초(乾草)를 경사(京司)에 바치는 등 그 부담이 많았다.

그리고 지방관(地方官)인 수령(守令)들도 백성들의 살림형편을 보는 눈이 어둡고 세금을 징수하는 형평(衡平)이 고르지 못해서 부호(富豪)들은 교활한 방법으로 탈세(脫稅)를 하고 빈약(貧弱)한 자(者)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공(公)은 이의 모순점을 조정에 건의하여 전결(田結)의 수(數)를 참작하여 그 근량(斤兩)을 정(定)하되 전조(田租)의 조례(條例)를 따랐다. 또 항상 바치는 공물(貢物) 수십건(數十件)을 감해 주게하여 백성들은 공(公)의 은덕을 매우 고맙게 여기었다.

기축(己丑(睿宗元·1469))년에 예종(睿宗)이 승하하고 금상(今上(成宗))이 대통(大統)을 이어 보위(寶位)에 오르시어 훈공을 책정하매 공(公)에게 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의 훈호(勳號)를 내리고 경연(經筵)을 열어서 공(公)을 영경연사(領經筵事) 겸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시키고 항상 전조(前朝)의 구신(舊臣)으로 경중(敬重)하게 예우(禮遇)하였다.

경인(庚寅(成宗元·1470))년 9월에 공이 병으로 인하여 사제(私第)에서 별세(別世)하니 향년이 65세(歲)였다. 성종(成宗)은 부음(訃音)을 듣고 슬퍼한 나머지 삼일(三日)동안 조시(朝市)를 철폐(輟罷)하였고 태상시(太常寺)에서 충렬(忠烈)이란 시호(諡號)를 내렸으며 11월 갑신일(甲申日)에 광주(廣州) 여미리(餘美里(현재 열미리(悅美里))) 선고영하(先考塋下) 해조(亥坐)판에 안장하였다.

공(公)은 천성(天性)이 충직(忠直)하고 마음가짐이 강毅(強毅)하며 경륜과 지모를 발휘하여 국정(國政)을 보필했고 모든 일을 조처함이 명백정대(明白正大)하여 사람들이 이간(離間)하는 말을 입에 담지 못했다.

또 공(公)은 평생(平生)을 고달프게 국사(國事)에만 집념하고 자신(自身) 개인사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으며 가정생활(家庭生活)이 청백(清白)하고 시대(時代) 폐속(弊俗)에 관련되는 절례(節禮) 따위를 일체 행(行)하지 않았고 극(極)히 귀(貴)하고 총애 받는 몸이면서도 자신 보양(自身 保養)하기를 한미(寒微)한 선비생활과 같이 하였으며 그리고 화려하고 사치하는 일을 싫어했고 공(公)이 거처하는 방에는 조출

한 도서(圖書) 뿐이었다고 한다.

공(公)이 별세(別世)하매 집이 가난하여 상사범절(喪事凡節)을 갖추 수 없으므로 상감이 특별히 쌀과 콩을 하사하여 겨우 장사를 치를 수 있었다.

아아! 공(公)의 청아(清雅)하 덕행(德行)과 고상한 절조(節操) 그리고 장한 공훈과 성대한 업적은 당시에 그 상대될 만한 사람이 드물며 사책(史冊)을 구해 보더라도 그 몇사람이나 있으리요?

공(公)의 배위(配位)는 청주이씨(淸州李氏)로서 정숙(貞淑)한 귀덕(貴德)과 아름다운 행실이 있었고 정경부인(貞敬夫人)에 대(對)했으니 사정(司正)벼슬을 한 중부(仲扶)의 따님이다. 공(公)이 일남사녀(一男四女)를 두었는데 아들 경(慶)은 조졸(早卒)하고 장녀(長女)는 훈련원정(訓練院正) 박휘(朴輝)에게 출가했으며 다음은 광흥창수 권장손(廣興倉守 權長孫)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돈녕부첨정 조찬(敦寧府僉正 趙撰)에게 출가하여 공(公)보다 먼저 죽고 다음은 연천현감 유익후(漣川縣監 柳益厚)에게 출가했다.

경(慶)이 판관(判官) 남원인(南原人) 양연(楊淵)의 딸과 결혼하여 일남(一男) 장손(長孫)을 두어 지금 호군(護軍)으로 있고 훈련원정(訓練院正)이 사남(四男)을 두니 장남(長男)은 영창(永昌)이요 차남(次男)은 영문(永文)이며 기외(其外)는 아직 어리고 광흥창수(廣興倉守)가 삼남사녀(三男四女)를 두니 모두 어리고 첨정(僉正)이 일남(一男)을 두니 수견(壽堅)이요 현감(縣監)이 이남이녀(二男二女)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호군(護軍)이 찬성(贊成) 교하인(交河人) 노사신(盧思愼)의 딸과 결혼하여 일녀(一女)를 두었고 영창(永昌)은 순천군수 박영형(順天郡守 朴永亨)의 딸과 결혼하고 영문(永文)은 첨지중추부사 이돈인(僉知中樞府事 李敦仁)의 딸과 결혼하여 몇 명의 자녀(子女)를 두었다.

공(公)을 안장한지 오년 후(五年後)에 호군(護軍)의 빙장(聘丈) 노찬성(盧贊成)이 나에게 공(公)의 비명(碑銘)을 청하매 나 거정(居正)이 공(公)을 배유(陪遊)한지 이미 오래되고 두 번이나 부하(部下) 관료(官僚)로서 곁에 있었으므로 공(公)의 행적(行蹟)을 누구보다도 상세히 알고 있

으니 어찌 비명(碑銘)짓는 일을 사양할 수 있으리요. 명(銘)을 지어 찬양한다.

銘

山河의 靈氣받아 公께서 卞어났고 英雄이 때를 만나 公이 더욱 飛躍했네.
清白吏 相臣으로 功臣閣에 策錄되어 丹青같이 빛이 나고 紳笏같이 儼全하오.
經綸으로 化育하고 달래고 어루만져 輔弼하는 相臣으로 恩澤을 베풀었네.
변경으로 달려가매 鈇鉞 龍旌 찬란하고, 北方關門 호위하니 萬里長城 다들 손가.
出將入相 당신이여 文武才質 兩全한데, 德을 닦고 功을 세워 三朝를 삼기었오.
筮龜같은 그 몸이요 麟鳳같은 祥徵이라, 하늘인들 無心하여 한번 보고 없게하라.
간직하고 빛을 내어 길이길이 보존하세. 忠烈이란 두 글자가 諡章에 밝혀졌오.
우람한 廣州 山이 편히 계실 유택인데 美德讚揚 어찌할고 높은 碑에 새기리라.
나의 銘이 아침 없고 길이 전할 讚詞일세.

27. 神道碑銘 並序 原文

天將啓太平之運必生奇偉俊傑之才弼成大業我 世祖惠莊大王之興運也訐謨贊襄經綸黼黻爲時名佐者彬彬有人綾城府院君具公其一也公諱致寬字而栗具氏本綾城望族皇高祖諱榮儉仕高麗賜鄉沔州封沔城君生諱禕 贈門下左政丞諡文貞生諱成老備歷清顯出制安東入尹開城籍甚有名聲生諱揚於公爲皇考嘗出守安岳寧越二郡牧定廣公三州清白有遺愛夫人尹氏亦海平大族治家有法生四男恂恂教以詩禮公居長人皆曰具君長者位不滿能其興也當在後嗣乎以公勳 贈領議政公生於永樂丙戌中己酉司馬科宣德甲寅 世宗臨雍策士公中科初拜承文院正字俄補史選自檢閱轉至待教遷承政院注書四轉爲司憲府監察出爲黃海道都事正統甲子居正釋褐拜司宰直長先府君爲判事始見公於彩侍側氣岸俊整望之儼然未幾居正選入集賢殿爲博士公爲兵曹佐郎集賢諸先生多與公交遊者居正因與之內交獲聞緒餘公志操堅確識見高邁時發於論議者簡嚴方正又不與時俗低仰使人凜然起敬然公性正直廉於進取又無一人吹噓汲引徘徊下僚者十有餘年人皆謂公稱屈公

則高視步而已諸先生曰綾城遠器也豈久屈人下者乎丙寅丁內艱服 歷官兵曹正郎成均司藝議政府檢詳司僕寺尹 世祖輔政召與謀議深器之乃曰恨知卿晚也俄擢承政院同福承旨轉至左時 國家多故政院在左右宥密之地機要至重公周旋其間出納惟謹乙亥 世祖即位策勳賜佐翼功臣鐵券陞工曹叅判封綾城君尋賜兵曹世祖方銳意圖治委公戎政董理有法講畫甚明 世祖歎曰綾城文武全才吾何患無人於將相乎丁丑 敬陵奄棄儲宮 世祖請封 睿宗爲世子以上黨韓公爲正使命公副之使還稱旨進階嘉靖戶曹叅判世祖以平安道北門管鑰控制非輕節度使例用武臣授之撫禦乘方思得文武重臣鎮定之授公節鉞以遺賜親札密符 上曰吾不欲離卿左右但分閫任重聊復煩卿卿行之後吾不復西顧矣公至則號令簡肅恩威並著從容談笑而軍政畢修請輸平安一道田租于沿邊州郡以備軍需又請罷供物以安邊氓 上皆允可人心悅服 上累賜上尊襲衣以寵之召還拜吏曹判書進階正憲士大夫相慶曰正人掌銓選公道行矣前此掌銓曹者例於除授之際親執政案不與同列相議亞官以下袖手傍觀公嘗憤之思欲矯其弊凡進退人物博采羣議雖小官卑職未嘗獨薦又不以私恩貸親舊嫉人干請有或干請者當遷不叙嘗建議汰冗官百數十員達官貴人有求子弟美官者皆先汰之時居正承乏爲叅議一日在政房適醉睡公厲聲曰叅議謂我注擬人物恣行胸臆不欲與聞耶他日有用人之失叅議其曰在家不知耶居正慙謝公嘗擬一文士知名者爲臺官駁者曰此子滑稽不可公曰若然則漢武帝何取於東方朔耶人苟有才何傷於滑稽意擬臺官又一文士調外郡教官十年不遷公欲擬縣職駁者曰此子迂 不可公曰天道十年必改安可使人久屈如是耶遂擬縣職果有治效公之用捨一出至公雖不喜公者終不出怨言於口 國家自浪甫兒罕構逆以來邊境不靜 命公爲咸吉道都體察使鎮之進階崇政壬午春二月陞右贊成知成均館事 世子貳師秋七月擢輔國崇祿大夫綾城府院君八月進議政府右議政轉至領議政兼領五衛都摠府都摠管公在政府政尚寬簡不爲更張真得宰相 累以盛滿謝辭丙戌還封府院君丁亥帝徵兵討野人 世宗遺諸將擣婆猪江李滿住巢穴勦殄而還餘孽尙存窺覷邊疆 世祖命公爲鎮西大將軍語左右曰綾城吾之萬里長城也至是公三秉節鉞出將入相 世祖倚任益專戊子 睿宗即位命兼戶曹判書時居正忝在判書歲方凶歉八道皆然救荒之策實煩 朝廷以予疎拙曹然岡措置民得生活且京圻貢賦倍於他道尤其患者夏月青草冬月黃草納千京司數以萬計守令視勢輕重徵出不均豪猾得免貧弱受禍公建議因民田結卜之數定其斤兩依田租例又減

常貢數十件民甚德之 己丑 睿宗昇遐今 上入繼大統有定策勳賜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之號 上開經筵命公領經筵事兼吏曹判書 上以善朝舊臣甚敬重之庚寅九月邁疾卒于第享年六十五訃聞 上輟朝市三日太常諡曰忠烈十一月甲申于廣州餘美里乾岡先域公性稟忠直立心強毅輔以經術發而措諸事業者明白正大人無間言平生訖訖以國事爲念無一語及私居家清白關節不行雖極貴寵自奉若寒士又不喜紛華圖書一室淡如也既卒家貧不能具喪事 上特賜米豆若干嗚呼公之清德峻節隆功盛烈在當時鮮有其儔求之史冊有幾人哉公之配曰清州李氏有淑德懿行封貞敬夫人司正仲扶之女也生一男四女男曰慶早歿女長適訓練正朴輝次適廣興倉守權長孫次適敦寧僉正趙選生亡次適漣川縣監柳益厚慶娶判官南原楊淵之女生一男曰長孫今爲護軍訓練正生四男長曰永昌次曰永文餘幼廣興守生三男四女皆幼僉正生一男曰壽堅漣川生二男二女皆幼護軍娶贊成交河盧思慎之女生一女永昌娶順郡守朴永亨之女永文娶僉知中樞李敦仁之女子孫若干人既葬越五年甲午護軍之舅盧贊成請余銘其碑居正陪遊既久再側末僚知公最詳銘其可辭銘曰

山河間氣公乃誕生雲龍奇遇公又蜚英有潭相府有儼麟閣公炳丹青公儼紳笏經綸化育以亭以毒輔相擇潤乃施乃設推轂分樞鈇鉞龍旌臥護北門屹若長城出入將相文武才高懋德懋公在我三朝筮龜其身麟鳳其祥何天不憖一鑑云亡如帶如礪所存者長曰忠曰烈昭哉諡章載彼廣陵宅兆攸宜孰揚厥美載此崇碑我銘不諛其永有詞(綾城具氏乙亥譜·忠烈公派譜)

28. 忠烈王 具致寬 略史

- 姓具氏 貫綾城 諱 致寬 字而栗
太宗 六年 丙戌生(1406)
- 出生地 舊 京畿道 廣州郡 中垆面 二里(夢村)
現 松坡區 二洞 올림포 公園
- 配 清州李氏 父司直仲扶 祖三
司左使承渡 曾祖進賢館大提學 邦植
- 墓 所在地

京畿道 廣州郡 實村面 悅美里 山三番地

- 不祧位廟 所在地 墓下 廟名忠烈祠
- 世宗 十一年(一四二九)生員試 合格
- 世宗 十六年(一四三四)謁聖文科 及第
- 世祖 四年 閏二月(一四五具)戶曹參判在任中文官이면서도 平安道兵馬都節制使로 命을 받아 平安道 國境을 來侵한 女眞族을 出征擊滅하고 凱旋하였음.
- 世祖 七年 正月(一四六一)豆滿江沿岸 六鎮에 恒時 女眞族이 出沒하여 邊境이 不安한 故 로 吏曹判書로 在任中 咸吉道都體察使로 命을 받아 出征平定하고 凱旋하니 그 功으로 輔國崇祿大夫綾城府院君의 封爵을 받고 드디어 議政府左議政에 累進하여 領議政에 昇進 하였다.
- 世祖 十三年 戊子(一四六八)建州衛(今滿洲)婆猪江野人(女眞)李滿住가 鴨綠江沿岸 州郡을 隨時出沒 來侵하니 世祖께서 公을 鎮西大將軍으로 命하고 出征케하니 月餘間에 激戰大 破하고 凱旋復命하니 世祖께서 大讚하기를 具致寬은 진실로 將材로서 나의 萬里長城이라 고 했다.
- 享年 六十 五歲 別世后家貧하여 能히 喪禮를 치를 수 없으니 왕으로부터 若干의 米豆와 紙燭을 下賜받아 禮葬하였고 國朝實錄과 四佳亭徐巨正先生이 지은 神道碑文에 明示되어 있다.
- 正式官職名
大匡輔國崇祿大夫輸忠佐翼純誠佐理功臣 議政府領議政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 事世子師兼吏曹判書封綾城院君 贈諡忠烈 危身奉上 曰 忠德彼生民曰烈
- 海東名臣錄 輿地勝覽人錄 清白吏 三秉節鉞 出將入相十餘年
- 世祖朝 佐翼功臣三等
- 成宗朝 佐理功臣二等
- 父 諱揚 定州 廣州 公州牧使 贈領議政綾原府院君
- 母 海平縣夫人 贈貞敬夫人 父黃海道都觀察使思永

○ 祖父 諱成老 漢陽朝開國原從功臣一等 資憲大夫判安東大都護府事(慶尙左監司)兼都元帥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

○ 祖母 金海郡夫人贈貞敬夫人金海宋氏 父密直提學金海君文貞公天逢

○ 曾祖 諱禕 一作偉 門下左政丞沔城府院君諡文貞公

○ 曾祖母 慶州朴氏 父寶文閣太學士門下侍中文貞公世泰

○ 高祖 諱榮儉 初諱貞宣忠翊贊功臣重大匡典理判書沔城君

○ 高祖母 竹山安氏 父政堂文學珪

○ 高祖母 繼配 慶州金氏 父興寧府院君子章 祖鷄林府院君忠定公瑄

○ 始祖 諱存裕 高麗文魁壁上三韓三重大匡檢校上將軍

○ 配 新安朱氏 父安朝翰林學士諱潛 號清溪 宋亡與七學士 浮海而東居錦城(今羅州) 後居綾

城故因爲綾城朱氏 韓末光武具年奉勅改貫新安 新安則朱夫子貫鄉朱 子玄孫女

29. 조선왕조실록 속의 충렬공사료 약기

1. 1439년(세종21) 도사(都事) 구치관의 8명이 왕을 알현한 자리에서 환상(還上)을 거두고 흠어 주는 것과 농상(農桑)을 권과(權課)하는 것을 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각기 직책에 나아가서 오직 이것을 힘쓸지어다 하셨다.

2. 1443년(세종25) 도관주부(導官主簿) 구치관은 사간원으로부터 상피(相避)법이 적용되어 제수치 말라고 왕에게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의논하겠다”하였다.

3. 1448년(세종30) 사헌부로부터 구치관, 안승선, 이종원, 이예장, 송수중은 당상(堂上)에 아부하여 거짓을 꾸미어 승복하지 않으니 모두 직첩을 빼앗고 국문하라고 청하여 의금부에 맡겨졌다.

4. 1449년(세종31) 임금이 병조에 하교하여 구치관을 평안도 도진무사 박강(朴薑)의 예하에 문신 이수진과 함께 예속되었다.

5. 1450년(문종즉위) 의정부에서 장지학이 말하기를 의주지방 근처 파안동(波顔洞)에 야인들이 이 출몰하여 약탈을 일삼으므로 병조정랑 구치관을 보내어 이를 살펴보게 하였다.

또 구치관은 이재(吏才)가 있어서 김종서(金宗瑞)의 천거로 수호군(守護軍)에 임명되었는데,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비루하게 여겼다.

6. 1451년(문종1)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 구치관이 평안도·함길도 도체찰사 황보인(皇甫仁)의 종사관으로서 의주성(義州城) 쌓는 것을 감독하였는데 얼마 아니되어 허물어졌으므로, 이것에 좌죄(坐罪)되어 파직되었으나, 황보인의 아뢰대로 종사관이 되었다.

7. 1453년(단종1) 사복소윤(司僕小尹) 구치관을 의금부지사(義禁府知事)로 명하여 경성도호부사 이경유를 베게 하고 상호군 송취(宋聚)를 의금부진무(義禁府鎭撫)로 삼아 함길도 도절제사 이징옥(李澄玉)을 압력하여 평해에 안치하게 하였고, 구치관은 이어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가 되고 또 대호군(大護軍)이 되었다.

8. 1454년(단종2)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

9. 1455년(단종3) 부종묘 추향대제(祔宗廟秋享大祭) 때 채단초(綵段綃) 1필을 하사받았고 이어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었다.

10. 1455년(세조1) 6월 11일 세조는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고 이어 좌부승지 구치관에게 명하여, 명나라 양(兩) 사신을 청하여 경희루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또 우승지가 되어 표리 1필을 하사받았다.

11. 1456년(세조2) 좌승지가 되었고 명하여 사은사(謝恩使) 권남(權擘)을 홍제원(弘濟院)에서 인견(引見)하고 영위(迎慰)하게 하였다.

12. 1457년(세조3) 충청도(忠淸道)·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의 순찰사로 도순차사(都巡察使)에 박강(朴薑)을 부사(副使)에 구치관이 명을 받고 여러 진(鎭)과 포(浦)로 순심(巡審)하였다. 이어 병조참판(兵曹參判)이 되었고, 다시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전직되었다.

13. 1458년(세조4) 주문사(奏聞使)로 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이 왕세자를 봉(封)하는 칙서를 가지고 명나라로부터 돌아왔다. 이어 위로 잔치가 베풀어지고 종친(宗親)·재추(宰樞)·승지(承旨)등이 주문사를 사정 전에 나아가 모시었다. 그리고 이조판서 한명회에게 노비(奴婢) 아울러 8구(口)와 전지 60결(結)을, 부사(副使) 호조참판 구치관(具致寬)에게는 노비 아울러 5구(口)와 전지 40결(結)을 각각 주었다. 그리고 평안도 병마절제사에 승진 되어 안마(鞍馬)와 갑주(甲冑)·궁검(弓劍)을 받고 환송 잔치도 받으면서 부임지로 떠나기 전왕은 반교(頒敎)하기를 “충성(忠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미 남다른 공훈(功勳)을 세웠으니, 책훈하고 공(功)을 정표(旌表)하여 마땅히 은총(恩寵)스러운 전례(典禮)를 더해야 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공의(公儀)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사로운 은의(恩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생각건대, 경(卿)은 성품(性稟)이 강직하고 과감하며 도량(度量)이 넓고 깊으며, 학문(學問)은 고금(古今)에 통달(通達)하고, 식견(識見)은 시의에 통달(通達)하였다. 일찍이 과거에 뽑혀서 남보다 뛰어난 명성이 있었고 화요(華要)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뽑혀서 후설(喉舌)의 자리에 있으면서 당하면 처리하기가 곤란할 적에도 피하지 아니하고 부주(敷奏)하여 상세히 밝히기에 힘을 다하였다. 내가 정사(政事)를 보필(輔弼)할 적에도 서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힘써 도왔다.

지난번에 간신(姦臣)들이 난(亂)을 꾸며서 화(禍)가 장차 예측하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오히려 종사(宗社)의 영령(英靈)에 힘입어 도로 곧 주멸(誅滅)하였다. 흉도(凶徒)가 비록 이미 복죄(伏罪)하였으나, 그 여열이 아직도 진멸(殄滅)되지 아니하고 나의 공이 높고 권세가 무거운 것을 시기하여 서로 용납(容納)하지 못할 형세이었는데, 경좌우에서 도운 공에 힘입어 이에 금일의 아름다움을 이르렀다.

큰 공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마땅히 큰 보상(報償)을 베풀어야 하겠다. 이에 좌익삼등공신(佐翼三等功臣)에 책훈(策勳)하여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고 유사(宥赦)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 80결, 노비 8구, 백은 25냥쫘, 표리 1단, 내구마 1필을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아아! 앞뒤에서 분주하게 노력하여 이미 비상한 공을 세웠으니, 산하(山河)와 대려(帶礪)로써 영세토록 잊지 않기를 맹세하라.“하고 유시하기를 “변새(邊塞)의 추위가 몹시 심할 것이므로, 지금 초구(貂裘) 1령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그리고 또 경에게 사연(賜宴)하니, 도체찰사(都體察使)와 더불어 함께 즐기어 내 뜻에 부응하기 바란다.” 하였다. 또 유시하기를 “봉화(烽火)와 연대(煙臺)는 변을 알리는 중대한 일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본도는 수목이 무성하고 뺨뺨하여 비록 이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멀리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한갓 헛된 설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나, 나의 뜻을 알고 그 편부(便否)를 자세히 살펴서 아뢰어라.” 하였다.

14. 1459년(세조5) 평안도 도절제사 구치관에게 유시하기를 “야인이 와서 복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책이니, 경은 홀로 알라. 그러나 중국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사신이 되돌아갈 동안 건주위 야인(建州衛野人) 등이 내조(來朝)하는 경우에는 올려 보낸 것을 허락하지 말고 그들에게 타이르기를, “너희들이 정성(精誠)은 나라에서 알고 있는 바이지만 그러나 중국에서 비난하기 때문에 성상께서 보내지 말도록 명하였으니 너희는 이 뜻을 알라.”하고 행량(行糧)과 소금·장(醬)을 주어서 돌려보내라.” 하였다.

연이어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승진되었다.

15. 1460년(세조6) 이조판서(吏曹判書) 구치관·병조판서(兵曹判書) 한명회를 불러서 동량북(東良北)·허수라(虛水刺) 등지에 진(鎭)을 설치하여 적로(賊路)를 막을 일을 의논하였다.(그의 변방과 국정에 크고 작은 정사를 20여 차례 의론과 유시가 있었다.)

임금이 춘순당에 나아가 관사(觀射)하고 이조판서 구치관 외 15인에게 각각 말 1필씩 하사하였다.

16. 1461년(세조7) 이조판서(吏曹判書) 구치관을 승록대부의 품계를 더 하였다. 구치관은 성품이 엄하고 굳세며 청렴 간소하여 그 문정(門庭)에 사사로이 찾아와 청탁하는 일이 없었으며, 수년전 국정을 잡았으나 사람들의 간언(間言)이 없었다.

그리고 함길도 도체찰사(咸吉道 都體察使)로 명을 받고 왕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경이 평안도를 관할하면서 그 수염이 점점 희여졌는데, 이제 함길도로 가게 되었으니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병방의 일이 지극히 중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하고,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 신숙주 및 모든 재추를 불러서 구치관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물품을 후하게 하사하였으며, 형조판서(刑曹判書) 박원형(朴元亨)과 환관(宦官) 안노에게 명하여 보제원(普濟院)으로 가서 전별하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경(卿)이 함길도 군무를 명하니, 그 경의 지휘에 따르지않는 자는 군법(軍法)대로 일을 처리함이 가할 것이다.”하였다. 이어서 함길도 도체찰사에 돌아와 우찬성(右贊成)에 제수(除授)되었다.

17. 1462년(세조8) 명하여 우찬성 구치관을 불러 포천의 도적 잡을 것을 의논하게 하니, 대답하기를, “부장(部將) 서너 사람에게 명하여 군사 10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잡도록 하고 또 암련(諳鍊)한 사람 1인을 가려서 가서 근방(近傍)에 사는 사람을 국문(鞫問)하게 한다면 거의 혹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청컨대 지훈련관사(知訓練管事) 이계손(李繼孫)을 보내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의정부 우찬성 구치관에게 보국승록대

부(輔國崇祿大夫)를 내렸다.

또 명하여 우찬성 구치관을 주장(主將)으로 삼았다. 어가(御駕)가 강원도 철원부(鐵原府) 경계에 이르니, 관찰사 이함장(李誠長)이 와서 맞이하였다.

가을마현(加乙麼峴) 사장(射場)에 이르러 타위(打圍)를 구경하고 저녁에는 마산(馬山)에서 머물렀다. 중궁(中宮)이 환관 최옥(崔玉)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또 악차(幄次)에 나아가서 종친과 재추를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어가(御駕)가 철원 남산(南山) 밑 사장(射場)에 이르자 마침 비가 내렸으므로 주장(主將) 구치관이 급히 파진(罷陣)하였다. 저녁에는

영평현(永平縣) 굴동(堀洞)에서 머물렀다. 병조(兵曹)에서 구치관의 마음대로 파진한 죄를 추국(推鞫)하기를 청하니, 윤희하였다. 잠시 후에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구치관의 죄는 가볍지 아니하니 청컨대 의금부에 내려서 국문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면대(面對)하여 타 이르겠다.” 하였다.

악차(幄次)에 나아가서 종친과 재추(宰樞)를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영의정 신숙주(申叔舟)가 구치관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곤외(鬪瓦)의 일은 장군이 제어한다.”고 이르는 것은 임금과 장수가 각기 따로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은 내가 여기에 있는데도 구치관이 아뢰지 아니하고 파진(罷陣)한 것은 죄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뜻은 군사를 불쌍히 여기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다. 예전에 진(秦)나라 목공(穆公)이 맹명(孟明)을 폐하지 아니하였으니 경(卿)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또 임금이 장차 강무(講武)를 하려고 경기(京畿) 개성부(開城府)와 충청도에 징병(徵兵)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모구 살곳이 들에 이르니 기병(騎兵)·보병(步兵)이 모두 1만4천3백61명이었다. 이를 3상(廂)으로 나누고 구치관을 지응사(支應使)로 명하였다.

또 하루는 우찬성 구치관이 빈청(賓廳)에 나아가서 문안하니,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빈사(瀕死) 지경에 이르렀다가 살아났으나 한 사람도 문안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제 경이 오니 내가 매우 기쁘다. 내가 생각하기

를 경의 집의 술을 마신다면 내 병이 곧 낫겠다.” 고 하였다.하니, 구치관 인당에 엮드려 울면서 아뢰기를 “신은 성상께서 편찮으신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요즘 오랫동안 정사를 보지 않으시므로 신이 예궐(詣闕)하여 비로소 들었습니다.”하니,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구치관의 집에 가서 술을 가져 와서 술을 올리게 하고 구치관에게 표피 아다개(豹皮阿多介) 1벌(事)과 소주 5병, 생록(生鹿) 1구(口)를 내려 주었다. 그 외 50여 차례에 걸쳐 입시(入侍)하여 국정을 숙의(熟議)하였다.

18. 1468년(세조9)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고 우의정(右議政)에 구치관을 명하면서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에게 이르기를 “권남(權孳)이 병이 있으므로 편안하게 부귀를 누리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구치관으로 대신시켰다. 구치관이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을 알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삼공(三公)에 승진시켜 그를 하여금 권세가 중한 자리를 맡게 하였으니 경은 그리 알라.” 하였다. 그 외 30여 차례 입시하여 국정을 숙의하였다.

19. 1464년(세조10) 임금이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 우의정 구치관에게 이르기를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수찬(修撰)할 때에 반드시 착오(錯誤)가 많았을 것이므로 이제 내종친(內宗親)과 승지(承旨) 등으로 하여금 좌우(左右)로 나누어 틀린 것을 찾도록 하였으니 경(卿)이 이를 살펴보도록 하라.“하였다.

또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제읍(諸邑)의 공물(貢物) 가운데 백성이 구해서 바치기 어려운 것은 그 정원을 들어서 본조(本曹)에 전보(轉報)하여 대납(代納)을 허락한다는 저령(著令)이 있습니다. <그 까닭에> 수령(守令)들이 간청(懇請)을 들어 첩문(牒文)을 남발하여 대납하는 무리로 하여금 먼저 그 값을 거두어서 배사(倍蓰)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그 곡물은 천연(遷延)시켜 납부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지금부터 공물을 대납할 자는 민간(民間)을 방문(訪問)하여 그 연분(年分)을 계달(啓達)하게 하고 다시 편부(便否)를 상고하여 대납을 허락하되, 납부하는 값을 관

(官)에서 수납하고 문서(文書)를 상고하여 지급하게 하소서.” 하니 우의정(右議政) 구치관이 의존하기를 “대납(代納)하는 공물(貢物)은 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매년(每年) 방문(訪問)하게 하면 폐단이 다시 그 전(前)과 같을 거시니 청컨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공물값을> 작정(酌定)하여 항식(恒式)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떠났다. 이어서 좌의정(左議政)으로 전직되었다.

또 좌의정 구치관이 광주(廣州)의 부모 분묘(墳墓)에 가서 제사지내니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에게 명하여 치제(致祭)하게 하고 또 친히 가서 위로하여 잔치하게 하였다.

그 외 30여 차례 입시하여 정사를 숙의하였다.

20. 1465년(세조11) 문과 회시 고시관(文科會試考試官)인 영의정 신숙주·좌의정 구치관 등이 진사(進士) 정휘(鄭徽) 등 33인을 뽑아서 아뢰었다.

하루는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政事)를 보는 자리에서 “너희 소신(小臣)은 진실로 회포가 있으면 모두 다 나와서 진달하라.”하였다. 좌의정 구치관이 나와서 말하기를 “여러 읍진(邑鎭)의 오래된 둔전(屯田)을 관리가 체임될 때에 임하여 사사로이 사람에게 주므로 교대하는 관리가 혹 백성의 밭을 빼앗아 그 수효를 채우니 이것이 참으로 큰 폐단입니다. 마땅히 추국하여 환본(還本)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대단히 옳다.” 하였다. 그 외 30여 차례 입시하여 국정을 논하였다.

21. 1466년(세조12)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서 좌의정 구치관 외 2인에게 각각 말 한 필씩 내렸다. 이어 영의정(領議政)에 올랐다. 얼마 안 있어 능성군(綾城君)에 봉(封)해졌다.

그 외 38차례 걸쳐 국정을 숙의하였다.

22. 1467년(세조13) 임금이 교태전(交泰殿)에 나아가 구치관·한명회·노사신 등에게 각각 환도(還刀) 한 자루씩 내려주며 이르기를 “칼[劍]은 남아

(男兒)의 보물(寶物)이다.” 하였다. 하루는 임금(王)이 교태전에 나아가 만든 규형(窺衡 : 땅의 원근(遠近)을 재는 물건)을 내어다. 시신(侍臣)들로 하여금 그 제도(制度)를 구명(究明)하게 하였으나 모두 그 묘리(妙理)를 알지 못하였다. 또 하루는 고령군 신숙주와 능성군 구치관·연성군 박원형에게 말 1필씩을 내려주었으니 어제 장기에 이기지 못하여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려준 것이다.

또 능성군 구치관 고령군 신숙주 좌의정 최항 등을 불러서 사정전 월랑에서 병기(兵器)제도를 의논하여 만들었다. 또 임영대군 이구와 신숙주·구치관·홍윤성 등에게 명하여 모화관(慕華館)에 가서 새로 만든 총통전을 쏘게 하였다.

23. 1468년(세조14) 능성군 구치관이 원상(院相)으로서 승정원(承政院)에 이르르니 전교하기를 “내가 타위(打圍)하는 것을 구경함이 많았지만 어제와 같이 많이 내 뜻에 맞는 것은 아직 없었으니 평일(平日)이 아니고 의심컨대 꿈속에 있는 듯하였다. 어제의 구치관·홍윤성은 즉 전일의 구치관·홍윤성이 아니었다.”하고 이어서 구치관·홍윤성과 오위장(五緯將)에게 각각 활 장(張)을 내려 주었다. 그 외 20여 차례 국정에 참여하였다.

24. 1468년(예종즉위) 세조가 홍거(薨去)하자 원능(園陵)과 상지(相地) 하현궁(下玄宮)하는 날 등을 의논하였다.

25. 1469년(예종1) 함길도 절도사 김교(金嶠)와 관찰사 이서장 등이 치계(馳啓)하기를 변방 호족 알타리가 얼음이 풀리기 전에 평안도를 침략한다 하기에 이에 따른 조치로 임금은 명 하여 구치관을 정서 주장(征西主將)으로 삼고 어유소(魚有沼)와 선형(宣炯)을 좌장(左將)·우장(右將)으로 삼았다. 구치관이 아뢰기를 “신은 이미 나이가 늙어서 서정(西征)하러 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이미 김질(金磧)을 체찰사로 삼았으니 경은 다만 평안도에 가서 군사를 조발(調發)하면 될 뿐이다.” 하였다. 구치관이 아뢰기를 “신이 김질과 함께 한 도(道)에

같이 가면 소요(騷擾)할까 염려되니 청컨대 신이 홀로 가서 맡게 해 주소서. 그리고 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은 일찍이 건주(建州)에 들어갔었으므로 도로(道路)의 굵고 곧은 것을 잘 알고 행 호군(行護軍) 구겸(具謙)은 무재(武才)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의 조카이니 청컨대 데리고 가게 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행 서령(行署令) 정흔(鄭忻)과 행 부사직(行副司直) 김칭·헌납 조간·전적 성건을 종사관으로 데리고 가게 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 어찰로 구치관을 진서대장군으로 어우소를 토역장군(討逆將軍)으로 선형을 정로장군으로 유자광을 응양 장군으로 구겸을 호분장군으로 삼아 승지와 원항에게 보내니 모두 말하기를 “운당(允當)합니다.” 하므로 마침내 병조에 내렸다. 이어서 임금께서 도승지 권감(權臧)에게 명하여 선운(宣醜)을 가지고 가서 모화관(慕華館)에서 전별(餞別)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왕의 유시를 듣고 임지로 출발하였다.

얼마 안 있어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명나라에서 지금 군사를 징발하지 않으니 비록 방수(防戍)를 소홀히 하는 것은 불가(不可)하겠으나 관찰사와 절도사가 있으니 구치관을 소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며 여러 원상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교지가 운당합니다.” 하였으므로 곧 구치관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원접사(遠接使) 윤자운(尹子雲)이 치계하기를 ‘명나라에서 우리에게 징병(徵兵)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방어(防禦)에 대한 모든 일은 자연 동도와 서도의 절도사에게 달려 있다. 경은 그것을 지시하여 가르쳐 주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또 원상(院相) 능성군 구치관이 아뢰기를 “무릇 대간(臺諫)에서 계달하는 이은 열이면 하나를 백이면 열을 계달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도 또 들어줄을 얻지 못하면 말하는 자가 있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굵어 살펴서 분변해 가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승정원에 전고하기를 “배맹후의 일은 다시 물어서 계달하라.” 하였다.

그 밖 30여 차례 국정을 심층 있게 다루었다.

26. 1469년(성종즉위) 능성군 구치관과 밀성군 이침이 고양(高陽)에 가

서 산릉(山陵)이 될 만한 땅을 의릉의 북쪽에서 살펴 정하니 이에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사람등에게 명하여 다시 살펴게 하였다. 그 외 9차례 정무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27. 1470년(성종1) 능성군 구치관이 아뢰기를 “신(臣)이 듣건대 금(金)은 가을에 속하고 가을은 속살(肅殺)로 일을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일식(日蝕)에는 북을 쳐서 양기(陽氣)를 돕고 월식(月蝕)에는 종(鐘)을 쳐서 음기(陰氣)를 도왔던 것입니다. 지금 도성(都城) 안의 종각(鐘閣)·종루와 선종(禪宗)의 원각사(圓覺寺)에서 모두 종(鐘)을 치니 이것은 모두 음기(陰氣)를 도우는 것입니다. 근년에 난신(亂臣) 및 도적이 주사(誅死)된 사람이 많은데 신은 아마 음기가 성하여 초래된 듯합니다. 고사(故事)를 자세히 상고하여 여러 절의 종(鐘)은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왕이 구치관의 말이 옳다 하였다. 또 신숙주와 구치관이 서면으로 아뢰기를 “상고해 보건대 옛날에는 종(鐘)이 크면 재앙이 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풍산(豊山)의 종은 서리가 내리면 울고 황하의 종은 구름이 끼어 비가 오면 울고 한전(漢殿)의 종은 산이 무너지면 울었는데 이는 그 기류(氣流)가 감동이 되어 초래된 것입니다. 기류가 이미 능히 감동이 되어 초래하게 된다면 그것이 재앙과 상서에 있어서도 각각 기류로 응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 종략... 국가의 일이 한가한 때를 기다려 고쳐 주조(鑄造)하소서.” 하였으나 유중불하(留中不下)하였다. 또 구치관이 능성부원군이 되었다.

28. 1471년(성종2) 이조에 전지(傳旨)하기를 “졸(卒)한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 구치관(具致寬)을 좌리공신2등(佐理功臣二等)에 추록(追錄)하라 하였다.

30. 忠烈公 詩

車氏原類雪冤錄撰錄時奉 教製進

窮陰齊剝一元陽冤恨極天無可方不待百年公議定芳名留與白雲長

朴彭年奉 教撰錄崔恒申淑舟李石亨註錄○註曰窮陰比君人也下崙雖陷賢良不待百年快伸冤枉公議自定則聲名可垂千億也

31. 燃黎室記述 5권 상신판에 실린 忠烈王

구치관(具致寬)은 병술생이며 기유년 사마(司馬)이다.

구치관의 자는 이율(而栗) 혹은 경율(景栗)이며 본관은 능주(綾州)요 부원군(府院君) 예(藝)의 후예이다. 세종 갑인년 문과로서 청백리(清白吏)에 들고 좌익공신(佐翼功臣)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에 봉하였고 계미년에 정승이 되어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렬공(忠烈公)이다.

○ 처음에는 그를 발신시켜 주는 이가 없어 하관으로 배회한 지가 십여 년에 사람들이 모두 억울하다 하였으나 그는 눈을 높이 뜨고 활보하더니 세조가 정난(靖難)할 때 불러 보고 큰 그릇으로 여겨 드디어 크게 썼다.

○ 공은 천성이 방엄(方嚴)하고 공정하여 일찍이 이조판서가 되었을 때 청탁(請託)이 행하여 지지 않았다. 공보다 앞서 이조판서가 되었던 자는 의례 제수(除授)할 때에 친히 관안(官案)을 잡고 멋대로 마음속에 있는 인물을 추천하였으므로 차관 이하는 손을 거두고 곁에서 참관만 할 뿐이었다. 공이 그 폐단을 고치고자 하여 무릇 인재를 진퇴할 때 널리

의논을 채택해서 하고 일찍이 홀로 추천하지 않았으며 혹시 청탁하는 자가 있으면 옮겨줄 리라도 옮겨주지 않았다. 어느 날 서거정(徐居正)이 정방(政房)에서 술이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마침 공이 보고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참의의 생각에는 구치관이 인물을 정형 하는데 제 멋대로 할 것이라 하여 간섭하지 않으려 하는가. 뒷날 사람을 잘못 썼을 때에는 참의는 나는 집에 있어서 알지 못했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또 공이 일찍이 한 대간(臺諫)을 뽑을 때 어떤이가 반박하기를 “이 자는 익살을 잘 부리는 사람입니다.” 하매 공이 “그렇다면 한 무제(漢武帝)가 어찌 동방삭(東方朔)을 취했단고”하고 마침내 제수하였고 또 10년 도안을 버려 두었던 문사 하나를 현직(縣職)에 등용하려하니 반박하는 자 말하기를 “그 자는 우활(迂闊) 합니다.”하였다.

공은 천도가 10년이면 반드시 바뀌는 법이니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이렇게 꺾어 두리요.“ 하고 제수하였던 바 과연 치효(治効)를 남겼으니 공의 취사가 이와 같이 지극히 공평하였다.

○ 공이 군사에 관한 일을 많이 알아 정해년 야인을 토벌하고 돌아왔으나 남은 무리가 또 변경을 엿보았다. 세조가 공에게 명하여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을 삼아서 방비케 하고는 좌우에게 이르기를 “구능성(具綾城)은 나의 만리장성(萬里長城)이야”하였다.

또 필원잡기에 실린 내용을 연려실기술에 옮겨진 내용을 인용함.

세조조(世祖朝)에 신숙주가 영상이 되었을 때 구치관(具致寬)이 새로 우상이 되었더니 세조가 두 정승을 급히 내전에 불러서 이르기를 “오늘 내 경들에게 물음이 있을 테니 능히 대답한다면 그만이지마는 대답하지 못하면 벌을 사양하지 못 할지니라”하매 둘이 모두 절하며 사례하였다. 세조가 “신정승(申政丞)”하고 부르매 공이 곧 대답하였더니 세조가 이르기를 “내가 새로된 신정승(新政丞)을 불렀는데 경이 대답을 잘못했다.”하고는 커다란 잔으로 벌주를 내리고 또 “구정승(舊政丞)”하고 불렀더니 구(具)가 곧 대답한 즉 세조가 이르기를 “난 옛(舊)정승을 불렀는데 경이 대답을 잘 못 했네.”하고는 커다란 잔으로 벌주를 내리고 또 “구정승(具政丞)”하고 불렀더니 숙주가 곧 대답하매 세조가 이르기를 “난 성을 불렀더니 경이 대답을 잘 못하는구료.” 하고는 벌주를 주고 또 “신정승(申政丞)”하고 부르매 구(具)가 곧 대답하였더니 세조가 “나는 성을 불렀는데 경이 잘못 대답 하였소.”하고는 벌주를 주고 또 “신정승(申政丞)”하고 부르매 신·구가 모두 대답하지 않고 또 “구정승(具政丞)”하고 불렀으나 구·신이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세조가 이르기를 “임금이 불렀어도 신하가 대답이 없음은 예가 아니니라.” 하고는 역시 벌을 주었다. 이렇게 종일토록 벌주를 마셔서 심히 취하매 세조가 크게 웃었다.

32. 十世 諱 慶

父諱致寬子諱長孫

忌八月二十五日○墓忠烈公塋下子坐

配南原楊氏父判官一云晉州牧使淵祖文咸平縣令嗣輔一云思輔曾祖集賢殿提學
首生外祖蔭吏判全州崔俯忌四月七日○墓上下封在後

33. 十一世 典簿公 諱 長孫

父諱慶 子諱元之

字子元 號青軒 禦侮將軍忠佐衛副護軍(功臣會盟錄) 歷宗親府典簿 忌七月十日有文集(號譜)

○墓忠烈公塋右下子坐

配淑人 交河盧氏 父文領相宣城府院君思慎 祖蔭同知敦寧府事物載 蔭右相曾孫 外祖叅議清州人慶由謹 甲戌生 甲戌六月十三日卒 ○墓悅美里山三番地忠烈公塋左子坐 墓誌銘 慕齋 金安國撰

34. 宗親府 典簿 諱 長孫 配位 盧氏 墓誌銘 譯文

부인(夫人)의 성은 노씨(盧氏)요. 본관은 교하(交河)이니 증조(曾祖)는 의정부우의정(議政府右議政) 증시(贈諡) 공숙공(恭肅公) 휘 한(諱 閉)이요. 조고(祖考)는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휘 물재(諱 物載)요. 고(考)는 정난좌리공신(靖難佐理功臣)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증시문광공(贈諡 文匡公) 휘 사신(諱 思慎)이요. 비(妣)는 정경부인(貞敬夫人) 경씨(慶氏)로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휘 유근(諱 由謹)의 딸이니 경태(景泰) 갑술(甲戌 단종(端宗2·1454)년에 출생(出生)했다.

부인(夫人)은 장성해서 종친부전부 구장손(宗親府典簿 具長孫)의 배필이 되었으니 부군(夫君)은 곧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휘 치관(諱 致寬)의 손자로서 조졸(早卒)하여 광주(廣州) 동쪽 을미리(乙未里(현 열미

리(悅美里)) 모좌(某坐) 모향(某向)판에 안장했다.

부인(夫人)은 홀로 몇 해를 살다가 정덕 갑술(正德 甲戌(中宗9·1514)) 6월 13일에 별세하니 향년이 61이며 9월에 전부공묘(典簿公墓)에 부장(附葬)했다. (사실은 건위(乾位)와 수백보(數百步되는 곳에 있음)

부인(夫人)은 내외(內外)¹⁾가 화별(華闊)²⁾이요. 부귀 속에서 생장(生長)했지만 장엄(莊嚴)하고 근신(勤愼)한 것으로 처신하고 절대로 교만하고 태만함을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성품이 단정하고 엄중하여 집에서 엄숙하고 정제(整齊)하며 자손(子孫)들을 예법으로 가르치고 제사를 성실히 받들어서 온 종당(宗黨)³⁾이 흠족한 듯 경복(敬服)했다.

1男3女를 낳으니 아들 원지(元之)는 홍치 신유(弘治辛酉 (연산7·1501))년에 진사시(進士試)에 뽑혔고 기개와 절조(節操)가 있어 조금한 영달을 즐기지 않아서 벼슬을 아니했다. 딸로 맏이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윤순(尹珣)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용강현령(龍岡縣令) 신함(申涵)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충의위(忠義衛) 한운원(韓胤源)에게 출가했다.

진사(進士)가 공조정랑(工曹正郎) 성경온(成景溫)의 딸과 혼인하여 2男을 두니 순(循)고 징(徵)이요. 2女 중 맏이는 모(某)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미혼이다.

지중추(地中秋 (윤순(尹珣)))가 1女를 낳아 모관(某灌) 성근(成謹)에게 출가했고 현령(縣令(신함(申涵)))이 5男4女를 두니 아들은 모(某), 모(某)요 딸로 맏이는 모(某)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모(某)에게 출가했으며 충의위(忠義衛)가 1男2女를 두니, 아들은 모(某)요 딸은 모두 어리다. 명(銘)에 이르기를

銘

빛나는 가문에 태어나서 德이 또한 后重하니 후손들도 창성하여 어진 이름 드러내리.
60 壽命 짧기만 하여라. 畿內 廣州 땅 명당정기 서린 곳에 유택을 마련하니, 百歲 後에 神劍⁴⁾이 솟아서서 靈感⁵⁾한 福 무궁함을 後世 사람 말하리라.

※ 譯者後記：諱 元之의 子 諱 循 諱 徵, 諱 徽(漏記)는 初配 慶州鄭氏 소생이고 長女는 文正 鄭惟仁에게 출가했음.

- 1) 내외(內外) : 안과 밖을 말하나 여기서는 친가(親家)와 시가(媳家)를 말함.
- 2) 화별(華閼) : 현달(顯達)한 문벌. 훌륭한 집안.
- 3) 종당(宗黨) : 종족. 종친.
- 4) 신검(神劔) : 神이 주신 칼이나 여기서는 神이 주신 福을 말한 것 같음.
- 5) 영감(靈感) : 영묘(靈妙)스러운 감응.

○ 金安國 : 조선 成宗 ~ 中祖朝의 학자. 字는 國卿, 호는 慕齋, 본관은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大提學을 거쳐 贊成에 이르고 趙光祖와 함께 至治主義를 주장했으나 급격한 개혁은 반대했고 天文, 농사, 周易, 國文學등에도 조예가 깊었다. 仁宗廟廷에 배향되고 시호는 文敬公 이요. 유집으로 慕齋集 등 많은 著書가 전한다.

35. 宗親府 典簿 諱 長孫 配位 盧氏 墓誌銘 原文

慕齋 金安國 撰

夫人姓盧氏籍交河曾祖議政府領議政 贈諡恭肅公諱閔祖同知敦寧府事諱物載考靖難佐理功臣議政府領議政 贈諡文匡公諱思愼妣貞敬夫人慶氏僉知中樞府事諱由謹之女以景泰甲戌生夫人長配宗親府典簿具諱長孫卽議政府領議政贈諡忠烈公諱致寬之孫早卒窆于廣州治東余乙未里某坐某向之原夫人寡居幾年以正德甲戌六月十三日終享年六十有一九月祔典簿公兆夫人內外華閼生長富貴能以莊謹自持絕驕惰持容性端毅居家肅而整教子孫以禮奉祭祀以誠宗黨洽然敬服生一南三女南曰元之中弘治辛酉進士試有氣節好學不嗜躁進時未仕女長適知中樞府事尹珣次適龍岡縣令申涵次適忠義衛韓胤源進士娶工曹正郎成景溫之女生二男循徵二女長適某之子某次幼知中樞生一女適某官成謹縣令生五男曰 四女長適某次適某忠義衛生一男曰某二女幼銘曰族既茂輝諱光德又厚藹其芳枝條碩蕃賢且揚六十之壽數不長畿之內廣之疆氣鬱鬱卜玄堂百歲之後神劔合靈祉不窮來雜杳(慕齋集)

36. 晩辭(諱 長孫 拜位 盧氏)

貞柔宜婦德主饋稱閨儀淑質終歸化天年不到希此時冥會處幾歲未亡思幹蠱庭蘭
秀昏塵任滿悼(二樂亭集)

37. 十二世 眞休堂公 諱 元之

父諱長孫 子諱循 諱徵 諱徽

字彥善 號眞休堂 燕山辛酉進士(榜目) 養德不仕 有文集三卷(號譜) 忌七月
八日○墓忠烈公塋下右麓癸坐

配慶州鄭氏 父翊戴佐理勳吏曹判書鷄林君孝常 司藝知年孫 六三子

配昌寧成氏 父文兵曹正郎景溫 文刑曹判書健生孫 忌十一月十九日○墓三位
雙封

38. 副提學 成景溫 墓碑文

공(公)의 성(姓)은 성(成)이요 휘(諱)는 경온(景溫)이며 자(子)는 사아(士雅)니 지중추부사(知中樞事揔)의 증손이며 형조참판 순조(刑曹參判順祖)의 손자요 부(父) 준(俊)은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이었고 외조(外祖) 이계기(李啓基)는 공조참의(工曹參議)니 안팎으로 명문(名門)이라. 가훈(家訓)에 젓어들매 어려서부터 침착하고 도량이 있으며 자랄수록 학문이 깊어 계묘(癸卯) 성종14년 진사시(進士試)에 뽑혔으나 여러 차례 대과(大科)에 급제하지 못하자 口두들 억울하게 여기던 중 의정공(議政公)이 벼슬길에 밀었으나 맹세코 사양하며 비록 포의(布衣)로 마칠지라도 지름길로 출세하기를 원(願)치 않다가 무오(戊午 (연산군(燕山君)4년) 빙고별좌(氷庫別坐)에 임명되었으나 본래 뜻이 아니었다.

이어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과 호조좌랑(戶曹佐郎)을 거쳤는데 신유년(辛酉年)에 부상(父喪)을 당하여 3년을 시묘 살고 나자 세자익위사익찬(世子翊衛司翊贊)을 배명(拜命)받고 우사어(右司禦)에 나아가 계해(癸亥

(燕山 9)) 문과별시(文科別試)에 합격하여 공조정랑(工曹正郎)에 임용되었다.

연산군(燕山君) 6년 의정공(議政公)이 동지들과 십조소(十條疏)를 올렸는데 말씀이 매우 절실하여 크게 연산의 뜻을 거슬러 이듬해(甲子年) 여름 혹독하게 화를 당하니 공(公)과 형(兄) 중온(仲溫)이 함께 연좌되어 유배되었다가 다시 해외로 옮겨졌는데 왕은 의정(議政)에 대한 증오가 풀리지 않아 그 씨를 남기지 않고자 큰 죄를 씌우려하자 공은 이를 듣고 낮빛 하나 변하지 않고 아들 남(覽)에게 이르기를 내 성명(性命)을 어찌 남의 손에 욕(辱)보랴 하고 이내 약을 마셔 생을 마치니 모두 그이 기량(氣量)을 탄복(歎服)하여 눈물을 짓기까지 하였다. 병인년(丙寅年) 6월 24일의 일이니 나이 44세였다. 이해 11월 (광주 서편(廣州西便): 現 河南 甘一洞) 정림산(井林山) 기슭에 장사지내니 이내 반정(反正)이 되어 성상(聖上-中宗)께서 죄 없음을 애민(哀愍)하여 홍문관 부제학(弘文館 副提學)에 증직(贈職)하였다.

공(公)은 사람됨이 기우(氣宇)가 광원(宏遠)하고 풍의(風儀)가 엄준(嚴峻)하여 관원으로 일을 받으면 정도(正度)를 지켜 굽히지 않는 청렴방직(清廉方直)하고 화기(和氣)에 넘치며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않고 번거로움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한정자적(閑靜自適)하더니 의정공(議政公)이 모년(暮年)에 기력이 쇠하여 출사(出仕)를 못하니 왕은 나라의 큰 일이 있을 적마다 근시(近侍)를 보내 의정공(議政公)께 자문(諮問)케 했는데 공의 조언이 많은 여론을 반영했기 때문에 항상 곁에 모셔 지냈는바 터럭만 큼이라도 어긋남이 없으며 반드시 화(和)한 얼굴로 간(諫)해 올려 바로 잡고서 의정(議政)에 매우 경중(敬重)하였다. 공(公)이 종실 명천도정(宗室 明川都正) 장손(長孫)의 따님 이씨(李氏)를 취(娶)하여 1남 3녀를 두었고 맏은 람(覽)이다. 사부 홍달정(師傅 洪達汀)의 따님을 맞아 4녀를 두었고 맏딸이 진사 구원지(進士 具元之)에게 출가하여 3남 1녀를 두었고 둘째 따님은 완천부정 희(完川副正 禧)에게 출가하여 2남을 두었으며 다음은 유학 유인첨(幼學 柳仁瞻)에게 시집갔으나 일찍 졸하여 후손이 없다.

공(公)의 부인 이씨가 묘소 곁에 거처하여 조석존(朝石尊)을 몸소 올리며 밤낮없이 묵놓아 우니 조정에서 그 절의(節義)를 가상(嘉尙)하여 정문(旌門)을 내렸다.

하루는 구진사(具進士)가 이부인(李夫人)의 뜻으로 나에게 와 이르기를 “고인(故人)을 애모(哀慕)함에 별(別)뜻이 없겠지만 그 행적을 새기어 묘도(墓道)를 다스려서 후사(後嗣)에게 밝히고저 사한(史翰)을 다루는 이의 한 말씀을 얻어 사자(死者)를 불후(不朽)케 하려는 이씨의 청을 슬피 여겨 부옹(婦翁)의 이름을 길이 전케 한다면 망인(亡人)도 많이 있어 그 불행을 지하에서도 슬피 아니하오리다.” 하니 나는 사아씨(士雅氏)와 동경(同庚)이요 사마시(司馬試)도 같이 하여 서로 깊이 아는 터라 앞서 그 덕일을 애상(哀傷)하여 참담(慘愴)해 하던 중 이부인의 절행(節行) 또한 일세(一世)에 높았으니 구진사(具進士)의 모처럼의 말씀을 어이 사양하겠는가. 이에 명(銘)을 지어 남기노니

銘

바탕이 수미(粹美)하기 은혜(恩惠)두터운 터에
명운(命運)이 비색(否塞)하니 어이 저바리시던고
길(吉)과 흉(凶)은 본디가 기약(期約)이 없다하지만
오직 이 마음은 속임 없이 하옴이다.
이곳에 유택(幽宅) 정(定)함이 깊고 또 굳으오니
신(神)이여, 평안(平安)하소서. 영원(永遠)히 시름 놓고.

후기(後記) : 일문(一門)이 함께 화를 입어 후사(後嗣)가 없으며 외손(外孫) 중 차손(次孫)인 직장공(直長公)이 외조 성부제학공(外祖 成副提學公)의 향사(享嗣)를 제향하고 있으며 원비(原碑)가 옆에 세워져 있으나 400여년 풍상(風霜)에 마멸되어 비문을 알아 볼 수 없게 되어 안타깝게 여기던 중에 수의(收議)하여 묘역을 단장하고 원문과 국한혼용번역문(國漢混用翻譯文)을 함께 새겨 세워서 길이 후세에 전하노라.

역자 : 전 건국대 문리과대학장 성균관 고문(前 建國大 文理科大學長 成

均館 顧問) 철학박사 이훈중(전주인) 번역(哲學博士 李勳鍾(全州人)
翻譯)

서기 1998년 10월 1일

외손 능성구씨 직장공 중중 건립(外孫 綾城具氏 直長公 宗中 建立)

39. 直長公의 外祖父 成景溫(副提學公)의 墓碑

贈弘文館副提學

行工曹正郎昌寧成公景溫之墓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申用漑撰

君姓成諱景溫字士雅知中樞府事揜之曾孫刑曹參判順祖之孫父俊議政府領議政外祖李啓基工曹參議內外名閥遠有訓誨自幼深沉有度長而學不倦中癸卯司馬試其後累舉不中時論稱屈議政欲官之君誓志力辭雖布褐終身不願由他侄進歲戊午授冰庫別坐非其志累歷司憲府監察戶曹佐郎歲辛酉丁外憂廬墓三年服闋拜翊衛司翊贊陞右司衛癸亥秋擢文科別試拜工曹正郎先是議政上十條踈言甚切大忤燕山旨甲子夏酷被凶禍君與兄仲溫俱連坐流遠方又移配海外燕山怒議政未許不欲留其子姓并置大罪君聞有命色不少變笑謂其子覽曰余性命豈可辱人手即仰藥而逝人服其氣量至有流涕者時丙寅六月二十四日君年四十有也是年十一月葬于廣州治西井林山麓聖上哀愍無辜贈官弘文館副提學爲人氣宇宏遠風儀峻嚴居官莅事持正不撓性又清潔方直而和氣常晏然不事產業不喜紛華以閑靜自適議政暮年病不能朝國有大事燕山遣近侍就問議政必咨君娶宗室明川都正長孫之女李氏生一男三女男即覽娶師傅洪達汀女生四女女長適進士具元之生三男一女次適完川副正禧生二男次適幼學柳仁瞻早死無后李氏廬于塋側莫朝夕必躬日暮號痛朝廷嘉其節就旋其閭進士以李氏意來扣用漑曰哀慕死者無以無欲銘其行治于墓道以昭諸後嗣得立史翰者一言令死者不朽幸肯哀李氏之請使婦翁名永長存則死者有知將不悼其不幸於泉下矣用漑與士雅氏既同庚又同司馬試相知甚悉既哀傷士雅氏之一家常慘恒于懷而李氏之節行高一世進士之來叙辭懇而實其銘安敢辭銘曰質粹美天所厚命厄蹇天何負吉興凶恭難期推此心在不欺宅于茲深且固神庶安永無懼

40. 具元之의 장모 烈女 完山李氏(副提學 成景溫夫人)

외손봉사 직장공 具 徵

열녀 완산이씨는 조선 전기의 문신(文臣)으로서 부제학(副提學)에 추증된 성경온(城景溫 1461 ~ 1504, 世祖7年 ~ 燕山10年)의 부인이다.

성경온의 본관은 창녕(昌寧), 자(字)는 사아(士雅)이고 사아(士雅)의 아버지는 영의정(領議政) 준(俊)이며 숙부(叔父) 건(健)에게 양자(養子)로 갔고 어머니는 공조참의(工曹參議) 이계기(李啓基)의 따님이다.

1483년(성종 14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여러 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다.

1498년(연산군 4년)에 빙고별좌(氷庫別坐)에 제수되었고 이어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호조좌랑(戶曹佐郎) 우사어(右司禦)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등을 역임하였다.

1503년 별시(別試) 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공조정랑(工曹正郎)에 이르렀으나 이에 앞서 아버지 영상(領相) 준(俊)이 윤씨(연산군의 어머니)의 폐위에 찬성하는 상소를 올린 일로 연산군의 뜻에 거슬려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직산으로 유배되어 교살되고 형 중온(仲溫)과 함께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가 해도(海島)로 이배(移配)되었다. 연산군이 아버지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에게 대조(大罪)를 씌워 죽이자 아들된 도리로 “어찌 남의 손에 의하여 사약을 받으리오.”하고 자결하였다.

후에 중종(中宗) 2년에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에 추증되었다. 성 부제학(成 副提學 : 景溫)이 돌아간 후 부인 완산(完山) 이씨(李氏)묘소 곁에 거처하며 조석전(朝夕奠)을 몸소 올리며 밤낮 없이 목 놓아 울며 평생 육식을 하지 않으니 조정에서도 그 절의(絶義)를 가상(嘉尙)하여 중종(中宗)2년에 정문(旌門)을 내렸다.(新增 : 東國輿地勝覽烈女 참조)

그러나 성 부제학(成 副提學)은 외아들 남(覽)마저 화(禍)를 당하여 대를 이을 아들이 없고 따님만 세 자매를 두었는데 맏따님이 능성구씨(綾城具氏)생원공(生員公) 원지(元之)에게 출가하시어 부제학(성경온) 묘를 현

재의 하남시 감일동 능안(陵內)에 모시고 외손인 직장공(直長公) 구징(具徵)으로 하여금 외손(外孫) 봉사(奉祀)케 하여 지금까지 450여 년을 한결같이 능성구씨(綾城具氏) 직장공(直長公) 종중(宗中 (회장 具滋寬)에서 제향(祭享)을 모셔오고 있다.

지금 열녀(烈女) 완산이씨의 정문(旌門)은 없어졌으나 역사(歷史)의 기록은 길이 남아 후세에 전하여지고 있으니 하루 속히 정문(旌門)을 복원하여 자라나는 세대의 귀감(龜鑑)으로 삼았으면 한다.

- ※ 參考文獻： 1. 新增 東國輿地勝覽 烈女
2. 南漢誌
3. 廣州郡誌
4. 國朝人物考

41. 淑夫人 完山李氏 烈女 碑文

숙부인(淑夫人)은 종실명천도정장손(宗室明川都正長孫)의 따님으로 창녕성공경온(昌寧成公景溫)의 배위(配位)시라. 연산주(燕山主)가 생모폐비윤씨(生母廢妃尹氏)의 사인(死因)을 알고 크게 사화(士禍)를 일으켰을 때 媵父議政公俊(媵父議政公俊)은 유적(流謫) 끝에 피화(被禍)하고 부군(夫君)은 비보(悲報)를 듣고 자결(自決)하여 뒤를 따랐으며 독자 람(獨子覽)마저 연루(連累)하여 멸문(滅門)이 되니 세분 따님만을 거느리고 막막(寞寞)한 중(中)에도 강률(強勒)히 부군묘측(夫君墓側)에 초모(草慕)을 어리고 조석(朝夕)으로 전(奠)드리며 호곡(號哭)으로 지새우니 지성(至誠)이 감천(感天)른지 중종반정(中宗反正)을 맞아 부군(夫君)은 신원(伸冤)하여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에 증직(贈職)되고 부인(夫人)께서는 열녀정문(烈女旌門)을 내려 포장(褒獎)하였으며 세 여식(女息)도 모두 작배(作配)하여 내보낸 중(中)에 맞서랑(婿郎)인 능성구씨공원지(綾城具氏公元之)의 자손(子孫)을 세워 손봉사(孫奉祀)로 시택(媳宅)의 향사(享祀)를 잇게 하니 부인(夫人)의 출천(出天)한 효렬(孝烈)은 이렇게 하여 빛을 보게 되었

다. 다만 오랜 성상(星霜)를 겪는 사이 퇴이(頹圯)하여 원형(原刑)을 잃었기로 이제 다시 직장공문중(直長公門中)의 뜻을 모아 양위분묘측(兩位墳墓側)에 비(碑)를 세우고 높으신 행적(行蹟)을 새겨 추모(追慕)하노라.

西紀二〇〇三年 三月 三十日

河南省 建立

42. 哭具彦善上舍二首

湖陰 鄭士龍 挽

執友凋零半不存餘生孤悶與誰論佳辰又價重逢具勝集那堪獨命樽泉不聲容埋拱壁湖邊松桂銷空園他年聞笛經過地投轄猶思井水渾
雜行魚鳥避鹿喧釣石依然舊坐痕往男生前堪遠辱遺安身後有深言兒孫不匱香遠里社猶懷杖履尊回首江天烟舞埋少微星彩忽沈昏(以上湖陰雜矯)

43. 十三世 直長公 諱 徵

父諱元之子諱孝淵 諱忠淵 諱禮淵 諱文淵

字明淑 奉直郎 內資寺直長 忌六月二十日 贈承文院左承旨○墓廣州郡西部面甘一里(井林)丁坐

配 贈淑夫人 南陽洪氏 父生員一德 吏曹判書汝方后 忌九月十九日○墓合封祔坐

연산(燕山)의 폭정(暴政)으로 반정공신(反正功臣)들과 밀모(密謀)하여 연산(燕山)을 폐위(廢位)하고 중종대왕(中宗大王)을 추대(推戴)함.

후일(後日) 중종(中宗)이 즉위(即位)하고 구징(具徵)에게 공신호(功臣號)와 벼슬을 줄려 하나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不事二君)하며 사양하고 낙향(樂鄉)하여 향리(鄉里)에서 후진(後進)을 가르치며 여생(餘生)을 보냄.

당시(當時) 모든 사람들이 공(公)을 가르켜 백이숙제(伯夷叔齊)와 같은 인물(人物)이라 칭(稱)하고 돌아가신 후 나라에서 크게 예장(禮葬)을 지내 주었다.

43. 挽章(爲僉正忠淵母氏)

直氣匡昏政家聲聳四方閨賢應襲美婦德自留芳戚族推恩遍兒孫積慶長哀歌忽悽
咽慘目舊登堂

關輔名都會簪纓系胄家潘揚眞得配王謝正聯華四玉休祥茂雙龍譽望加餘年鸞鏡
淚痛盡碧雲阿(栢潭集:栢潭鳳齡輓)

45. 百濟王陵遺址의 陵과 具徵의 傳說

광주군 서부면 감일리 능안(綾內)이라는 동네의 건너편 조그만 산봉우리를 「우렁이짜」이라 부르고 그 부근을 「재궁(梓宮)」이니 「능넘어」니 하고 부른다.

산모양이 우렁이같이 생겼다 하여 「우렁이짜」이라 한다 하나 그러면 그 근처를 재궁이니 능 넘어니 부를 까닭이 없다. 혹은 근처에 있는 구징(具徵)의 무덤에 사방석을 두르고 나라에서 예장(禮葬)한 고로 이것을 능(陵)이라 하였을까? 옛날에는 사가의 무덤에도 명공거경(名公巨卿)의 무덤을 능이라고 하였다 한다.

그러나 구징은 내자시(內資寺) 직장(直長)으로 있던 사람이니 그렇게 거경(巨卿)도 아니다. 또 혹은 나라에서 능터를 잡았다가 구징에게 주었다 하여 능이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능터만 잡았던 것을 능이라 하였을 리는 없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구징이 조선 연산군(燕山君) 때 내자시직장으로 있을 때에 연산군의 비행을 여러 차례 간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므로 할 수 없이 반정 공신(反正功臣)들과 밀모(密謀)하여 연산군을 폐하고 중종대왕(中宗大王)을 추대하였다. 중종대왕이 구징에게 공신(功臣) 호(號)를 주니 구징이 먼저 섬기던 군왕을 버리고 새 군왕을 세운 것은 비록 국기를 위하여 할 수 없이 한 일이나 신하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여 공신포와 벼슬을 사양하고 향리에 퇴로하였다 한다. 이에 중종대왕이 백이숙제(伯夷叔齊)

같은 인물이라 칭찬하였다. 구징이 죽은 후 생전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특별히 예장(禮葬)하였다 한다.

이상 전설의 내용을 입증(立證)할만한 직접 자료는 없으나 간접 자료는 많이 있다. 반정공신 중에 증견인물이 창산부원군(昌山府院君) 성희안(成希顔)이요 구징의 외가(外家)가 성씨인고로 성희안과 사로 연락하여 반정을 밀모하였으나 그것은 구징이 그때에 내자시직장이라는 연산군에게 가장 가까운 직책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연산군의 가까운 인물과 연락하는 것이 성희안에게도 절대 필요한 까닭이다. 구선이라는 사람이 만든 증봉초결(甌峰草訣)에는 중종대왕 기묘사화(己卯士禍) 때에 이랑(吏郎) 구수복(具壽福)이 외가에서 쫓겨 나와서 광주 구징의 집에 숨어 있다가 보은(報恩) 김태암(金泰岩)의 집에서 화를 면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구징이 중종대왕 때에는 벼슬을 아니 한 것을 짐작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전설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면 구징의 무덤을 사방석을 두르고 예장하였으므로 능이라 한다거나 또 능터를 잡았다 하여 능이라 한다는 말은 모두 부당한 말이다.

재궁은 왕릉에 있는 것인데 지금 이곳에 재궁이라는 지명(地名)이 있는 것을 보면 옛날에 이곳에 왕릉이 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려 때에 시인(詩人) 이규보(李奎報)의 관동귀로음(關東歸路吟)에 장강낙일우능수(長江落日遇陵樹) 방초처처고도두(芳草處處古渡頭)라는 글(詩)이 있으니 이 글 뜻은 긴 강물 저녁노을이 우능 숲속에 잠겨드니 꽃다운 풀빛 우거진 곳이 옛나루터라는 뜻이다.

이것은 고려(高麗) 고종(高宗)때에 이규보가 강원도 지방으로부터 고려국도 송도(松都 = 지금 개성이다)를 향하여 돌아오는 도중에 글을 읊은 것이다. 강원도로부터 송도에 이르는 강가에 우릉이라는 골 이름의 고호(古號)도 없고 소지명(小地名)의 우릉이라는 곳도 듣지 못하였으니 이규보 글에 우릉이라는 것은 왕릉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한다. 고려 역대 왕릉(王陵)에 우릉이란 할 수 밖에 없다. 조선의 역대 왕릉이 태조대왕의 사대추존(四代追尊)과 영월(寧越)로 쫓겨 간 단종대왕(端宗大王)의 장릉(莊陵)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성에서 가까운 경기

도 지방에 있으며 신라에도 진성여왕(眞聖女王)의 능이 양산(梁山)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역대 왕릉이 경주에 있으니 이것을 미루어 보면 고구려나 백제의 왕릉도 모두 도성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다. 또 강원도 지방으로부터 개성에 돌아오는 사람이 경주(慶州=新羅舊都)나 평양(平壤=高句麗舊都)이나 부여(夫餘=百濟舊都)를 거쳤을 리는 없으니 이글은 필경 이규보가 강원도로부터 개성에 향하는 도중 백제 구도 광주지방을 지날 때에 경치를 읊은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우릉은 광주에 있는 백제의 왕릉이 아닌가 연상된다.

그러므로 백제 때에 우릉이 있었던 곳이라 우릉쪽이라 부르던 것을 와전하여 지금 우렁이짜이라 하는지도 모른다. 왕릉을 모실 때에는 능묘부근에 가칭(假廳)을 임시 건축하니 장례 때에 전례(典禮)·경호(警護)·영선(營繕)의 각 기관이 임시 출장 주재하는 곳이 가칭이다. 지금 우렁이짜 부근에 웃가챙이 아래가챙이라 부르는 곳은 백제 때 우릉을 모실 때에 상하가칭(上下假廳)이 있던 곳이요 우가칭 아래 가칭 하던 것을 후세에 와전하여 웃가챙이 아래가챙이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렁이짜 옆 산 기슭에(天馬山) 담을 길게 쌓은 흔적이 겨우 터만 남아있는 바 그곳 사람들은 절터라 하니 백제 때 우릉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곳에 절을 지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규보의 글을 보면 우릉 근처에 강물이 있는 모양이다. 능안은 한강에서 5리 남짓하게 떨어져 있다.

함경북도(咸鏡北道) 성진군(城津郡) 탑평능골(塔坪陵谷)이라는 부락에 작은 산봉우리를 그곳 사람들이 능이라 부르되 아무 고적과 증거가 없더니 일본강점기에 일본일이 발굴하여 명(明)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이 어머니 왕씨(王氏)의 지석(誌石)과 고물(古物)을 발견한 일이 있다. 우렁이짜를 우릉이라 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생각이나 탑평능골의 선례로 보아 전혀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다.

46. 十九世 長淵府使公 諱 程
字重式 肅宗壬戌十二月十七日生

己亥武科

贈通政長淵府使戊申麟佐亂錄 揚武原從一等(錄券)功臣

英祖丁酉八月十七日卒

配淑夫人 文義朴氏

47. 長淵府使公 程 墓碑銘

通政大夫行長淵都護府使海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綾城具公程 之墓

配淑夫人 文義 朴氏 附左

檀紀三具七六年仁祖癸未三月三十日生

檀紀四〇四二年肅宗己丑二月十三日卒

檀紀四三〇一戊申三月清明日

八世孫洪成建立

子 元弼 興弼 弘弼 良弼

孫 守儉 守衡 守仁 守行

曾孫 載泰

玄孫 大鉉

五代孫 然俊

六代孫 鳳書

七代孫 哲會

【碑文】

截彼南漢 磅礪鍾靈

公乃誕生 斐英特亭

質兼文武 材過將相

자나시며

恬於進取 超越朋党

우뚱한 저 남한산에 정기가 뭉치고 뭉쳐서

공께서 탄생하시니 영특하신 중에도 영특하시다

자질은 문과 무를 겸하시고 재목은 장수와 정승에

진취에 청념하시고 봉당을 초월하시다

長淵大捷 竹山卓功
面折廷爭 限死盡忠
을 다하시다

前之汲黯 後之諸葛
수 있고

三朝優遇 聖恩不竭
하지 아니하시다

不受封勳 不置宅田
며

白衣相公 高臥林泉
大人遠德 君子無咎
明哲保身 知足知止
줄 아셨다.

豐功懿行 百世永傳
一篇短文 豈可盡言

장연에 크게 이기시고 죽산에 높은 공을 세우시다
조정에서는 시비를 논쟁하고 죽음에 임해서는 충성

전에는 급암에 비할 수 없고 후에는 제갈량에 비할

삼대상감께서 융성하게 대우하고 임금의 은총이 다

봉훈을 받지 아니 하시고 집과 밭을 두지 아니하시

백의 상공이 높게 임천에 누워계셨다

대인은 마땅한 덕을 행하고 군자는 무구하시니

명철하게 몸을 보전하시고 만족한 것을 알고 그칠

풍부한 공업과 아름다운 덕행이 백세에 전하리니
한편의 짧은 글로 어찌 다 이루 말하리요

檀紀四二八六年癸巳三月下幹

七世孫 敏會 謹銘

命會 謹書

48. 二十四世 諱 然台 原文

字華三

純祖乙酉(一八二五)七月二十日生高宗丙申八月十四日卒壽七十二歲

以孝卓異鄉薦有褒題墓考塋下

配廣州李氏

辛卯十一月五日生乙卯八月十九日卒壽八十五

49. 三星齋 具然台 譯文

호(號)는 삼성재(三星齋)지 자(字)는 화삼(華三)이다. 증교관 명현공(贈敎官 明鉉公)의 자(子)로 영의정휘치관(領議政諱致寬)의 십오세손(十五世孫)이다. 공(公)의 효성(孝性)은 천성(天性)이 지효(至孝)하고 그 효성(孝誠)엔 신명(神明)도 감응(感應)하였다.

어머니 병환(病患)에는 분(糞)과 약(藥)을 맛보시고 손가락을 깨물고 살점을 떼어 어머니를 받드는 등 봉양(奉養)이 지극(至極)하였다.

어느 날 노루가 제풀로 울안에 들어오고 꿩이 마당에 떨어지는 기적(奇蹟)도 있었다 한다.

翼宗乙酉(西紀一八二五年)에 태어나 세상(世上)에 명성(名聲)을 구(求)하지 않고 고향임천(故鄉林泉)에 은거(隱居)하나 당시(當時) 효행(孝行)을 상달(上達)하여 조정(朝廷)에서 포제(褒題)까지 하였다.

50. 二十五世 諱 羲書

字範九

高宗壬申十一月十六日生

一九五二年壬辰一月二十四日卒

配文化柳氏

51. 二十六世 諱 鏞會

字佩卿 獨立有功者

高宗丙午十二月三日生一具四二年七月五日卒

普成高等普通學校在學中光州學生獨立運動加擔被檢投獄 一年半 獄苦

配平壤趙氏

52. 二十六世 諱 敏會

高宗戊戌(一八九八)四月四日生

司法書士 法院書記

一九六二年十一月二十九日卒

配全州李氏

제 8 장 교육 및 학교 설립

1. 書堂

유학(儒學)이 이 땅에 전래된 이래 고려조 조선조(高麗朝 朝鮮朝)를 통하여 근 일천여년을 이어 오면서 중앙에는 성균관(成均館)과 지방(地方)에 설치, 양반(兩班)의 자제(子弟)를 교육(教育)시켜 왔으나 각 향리별(鄉里別)로는 서당(書堂)을 두어 그 문중(門中)이나 부락(部落)의 아동(兒童)들을 모집(募集)하여 글(주로 漢文)을 가르쳤다.

우리 문중(門中)에도 서당(書堂)을 두세 곳 두어 자손들을 가르쳐 향교(鄉校)를 거쳐 입신(立身)시킨바 많다.

서당(書堂)으로는 능내서당(陵內書堂), 둔촌서당(遁村書堂), 마산서당(馬山書堂) 등이 있었고 많은 인재(人材)를 배출한 바 있다.

2. 東崇學校

1910년 한일합방(韓日合邦)으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권(國權)이 일본(日本)에 넘어가자 뜻있는 분들은 비분강개하며 오직 국권회복(國權回復)만이 우리의 살길이라 신념(信念)하에 절치부심할 때 우리 문중의 선각자(先覺者) 몇 분이 국권(國權)을 찾는 길은 오직 자손(子孫)들을 교육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시어 1912 ~ 14년경에 문중(門中)에다 동숭학교(東崇學校)란 사립학교(私立學校)를 설립하고 중등과정의 교육기관으로 신학문을 교육(教育)시키기 시작하였다. 그 곳에는 문중자제(門中

子弟)뿐 아니라 인근부락에서 모인 청년학생들로 가득 찼다.

한일합병으로 일본(日本)의 식민지 교육이 시작되었고, 서구(西歐)로부터 밀려오는 새로운 문명(文明)으로 젊은이들은 밖의 세상(世上)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당시 동숭학교(東崇學校)에서 배운 학생(學生)들은 오직 민족교육(民族教育)에 열(熱)을 올렸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一念)으로 항일정신(抗日精神)을 싹틔웠다.

결국 그들은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의 선봉에서 독립만세(獨立萬歲)를 외쳤고 요원의 불길같이 번진 3·1독립운동에 진원지가 되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잡혀가 옥고(獄苦)를 겪었고 급기야 일제(日帝)는 동숭학교(東崇學校)를 강제 폐쇄하고 말았다.

그 후 동숭학교(東崇學校) 출신 학생 중에는 많은 사상가(思想家), 애국자(愛國者)를 배출하였고 진학(進學)하거나 사회(社會)의 지도자(指導者)로서 많은 업적(業績)을 남겼을 뿐 아니라 광주지역(廣州地域)에서 훌륭한 문중(門中)으로 손꼽히는 명가문(名家門)의 명예(名譽)를 얻었다.

3. 廣崇中學校

1945년 조국광복(祖國光復)과 더불어 1948년 대한민국 정부(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되었다.

그 때 정부시책 중에 농지분배(農地分配)가 있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법칙에 따라 농지(農地)는 농민에게 유산분배하게끔 되었다.

우리 문중 토지(門中 土地)도 대부분 농지분배에 포함되어 없어지게 되자 문중(門中)의 뜻있는 젊은 층의 인사(人士)들이 종재(宗財)를 투자, 학교(學校)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많아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종재(宗財(農耕地))를 처분하여 재단(財團)을 설립하여 학교(學校)를 운영하면 자손들에게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옛날 일제(日帝)에 의하여 폐쇄조치된 동숭학교(東崇學校)의 유업(遺業)도 계승할 수 있어 문중(門中)의 명예(名譽)도 빛날 것이라는 생각에 모두 동의(同意)하고 설립을

추진하였다.

설립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당시 경기도지사(京畿道知事 (당시에는 서울시도 경기도 산하였음))에 별좌공문중(別坐公門中) 출신이신 구자옥(具滋玉)씨가 계셔 어렵사리 학교인가(學校認可)를 받을 수 있었다.

재단명(財團名)은 「학교법인 광송학원(學校法人 廣崇學園)」으로 학교명(學校名)은 「광송중학교(廣崇中學校)」로 하였다.

교사(校舍)는 현 하남시 감일동 331-9 임야(종중)(現 河南市 甘一洞 331-9 林野(宗中))에 목조건물로 교실(教室) 3학급(學級)을 짓고 선생(先生)님들을 (주로 初等學校 出身) 모셨다.

중학과정(中學科程) 1,2,3학년을 교육시켰다. 당시 초대교장(初代敎長)에는 구완서(具完書)씨가 선임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50년 6·25전쟁이 터지면서 전국토가 전화(戰禍)에 휩싸였고 재학생(在學生)들은 국군인민군義勇隊(國軍人民軍義勇隊)로 강제로 끌려가 많은 희생을 당하였으며 학교(學校)는 전쟁(戰爭)중에 인민군(人民軍)의 임시병원으로(전상자 환자치료) 사용하는 고로 미군(美軍)에 의해 소각되고 말았다.

그런데 학교(學校)는 없어지고 재건(再建)할 능력도 없어 부득이 제3자에게 양도(讓渡)하게 되었고 그 학교는 현재도 법인명의(法人名義)는 「학교법인 광송학원(學校法人 廣崇學園)」으로 학교명은 몇차례 개명(改名)을 하여 동서울 상업고등학교(동서울 商業高等學校)와 동신중학교(東新中學校)로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서울 江東區 千戶洞)에 위치하여 크게 발전하였고 국가사회(國家社會)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우리 문중(門中)에서 계속 육성 발전(育成發展)시켰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앞서나 궁극적으로 누가 하든 교육사업(教育事業)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으니 우리의 목적(目的)도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자위해 본다.

제 10 장 先祖墓所位置 및 時享日

1. 始祖 諱 存裕

고려문괴(高麗文魁)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검교상장군(檢校上將軍) 배 신안주씨(新安朱氏) 묘실전(墓失傳)으로 1949년 설단하였으나 1979년 11월 단소(壇所)를 지금 장소로 이설함.

전남 화순군 한천면 정리(全南 和順郡 罕泉面 政理)

음 3월1일 세일사(歲一祀)

영모재수호(永慕齋守護)

2. 二世 諱 民瞻

평장사공(平章事公) 배 면천복씨(沔川卜氏) 묘상하봉(墓上下封)

묘 전남 화순군 한천면 정리

음 3월1일에 세일사(歲一祀)

3. 三世 諱 珣

증문하좌정승(贈門下左政丞)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 배 면천한씨(沔川韓氏)

묘상하봉(墓上下封)

묘 전북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全北 高敞郡 雅山面 盤岩里)

음 3월2일 세이사(歲一祀) 중광재수호(重光齋守護)

4. 四世 諱 藝

판전의사(判典儀事) 정승(政丞)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 배 아주신씨(鵝洲申氏) 묘상하봉(墓上下封)

묘 충남 당진군 송악면 가교리(忠南 唐津郡 松岳面 佳橋里)

음 2월, 8월중 정일(丁日) 세2사(歲二祀) 영광재수호(永光齋守護)

5. 五世 諱 榮儉

선충익찬공신(宣忠翊贊孔臣) 중대광(重大匡) 전리판서(典理判書) 면성군(沔城君) 배 죽산안씨(竹山安氏) 배 경주김씨(慶州金氏) 묘동원(墓同原)

묘 황해도 신천군 두라면 방로촌 구현하(黃海道 信川郡 頭羅面 坊盧村 具峴下).

현재 이북으로 충남 당진 사세조(四世祖 (휘 예(諱 藝)) 묘하(墓下)에 묘비(墓碑)를 세워 세이사(歲二祀)하고 있음(望祭奉行).

6. 六世 諱 禕

중현대부(中顯大夫) 소부윤(小府尹) 증삼중대광(贈三重大匡) 문하좌정승(門下左政丞) 특진보국숭록대부(特進輔國崇祿大夫)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 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지이조사(知吏曹事)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 시호(諡號) 문정(文貞) 배 경주박씨 묘상하봉(墓上下封)

묘 경기 개풍군 남면 예성강 상울곡 의암동(京畿 開豐郡 南面 禮成江 上栗谷 義菴洞)

현재 이북으로 충남 당진 사세조(四世祖 휘 예(諱 藝)) 묘하(墓下)에 묘비(墓碑)를 세워 세이사(歲二祀)하고 있음(望祭奉行).

7. 七世 諱 成老

도원수파조(都元帥派祖) 자헌대부(資憲大夫) 판안동대도호부사(判安東大都護府事) 강원도 도원수(江原道都元帥) 증숭정대부(贈崇政大夫)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 겸 판의금부사(判義禁府府事) 배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김해송씨(金海宋氏) 묘 상하봉, 광주군 광주읍 목리(廣州郡 廣

州邑 木里)

음 10월1일 세일사(歲一祀)

경모제수호(敬慕齋守護)

제 12 장 기타문헌에서 등재된 綾城具氏

百濟舊都 [南漢秘史]

본 책자는 1966년 경기도 광주문화사업협회(廣州文化事業協會)에서 발간한 것으로 전민의원 의장 이기봉(前民議院 議長 李起鵬과 금남 민광식(琴南 閔廣植)선생이 서문을 쓰고 중암 구민회(重庵 具敏會)선생이 편찬하였다. 본문 중에 실린 우리 구씨 인물 몇 분을 부기(附記)한다.

1. 十九世 具程

구정(具程)은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감일리에서 출생하였다. 16세에 나무신을 신고 근처에 갔다가 오는 도중 홀연 미친 소를 만나 두 손으로 소의 뺨을 잡아 넘어뜨렸다 한다. 무과에 급제하여 장연부사(長淵府使)가 되었으나 그 때에 조종에는 노론(老論)이 소론(小論)의 당파싸움이 가장 격렬하여 어젯날 충신이 오늘날 역적이 되고 아침에 벼슬한 자가 저녁에 삭탈관직을 당하는 고로 구정이 세상을 비관하고 벼슬을 사양하여 광주 고향에 돌아와 있었다.

영조대왕(英祖大王)4년에 이인좌(李麟佐)라는 자가 청주(淸州)에서 반(叛)하여 군사를 일으켜 진천(鎭天)·음성(陰城)을 함락하고 경기(京畿)를 범하니 이인좌는 소론이라 병조판서 오명항(吳明恒)이 소론으로서 도순무사(都巡撫使)가 되어 이인좌를 치게 되니 노론들이 서로 이르되 이번 난리는 소론이 일으키고 소론이 치는지라 소론들 저희들끼리 하는 일이니 우리의 상관할 바가 아니라 하고 모르는 체하였다. 구정이 크게 노하여 왈 「나라가 있는 후에 당파가 있는 것이라.

지금 대적이 근기(近畿)에 범하여 국내가 위급하거늘 어찌 노론 소론을 따져 앉아서 모르는 체하리요. 내 비록 노론이로되 이번에는 소론과 협

력하여 대적을 파하리라, 하고 상소(上訴)하여 지원 출전하기를 청하니 상(上)이 크게 장하게 여기시고 오명항이 또한 크게 기뻐하여 구정으로 하여금 오명항의 부하에 있게 하였다.

이때에 출전하는 장수는 모두 소론이요 구정 한 사람만 노론인 고로 노론은 구정을 욕하고 소론은 구정을 시기하였다. 구정이 선봉장(先鋒將)이 되어 안성천(安城川)에서 크게 이인좌를 파하고 죽산(竹山) 조피산(朝避山)에서 이인좌를 사로잡으니 구정의 새로 신은 목화(木靴=옛날 장수의 신은 신발이니 지금 장화(長靴)와 같은 것이다.)가 하루밤 사이에 발가락이 나왔다 한다.

그 공으로 인하여 공신(功臣)과 봉군(封君)을 봉하였으나 구정이 노론과 소론의 시비를 두려워하고 당파싸움에 들지 않기 위하여 공신과 봉군을 사양하고 아들에 훈계하여 자기의 죽은 후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고 나라에 증직(贈職)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죽산(죽산) 읍내(邑內)에 구정의 비각(碑閣)이 있더니 동학당(東學黨) 난리 때에 불에 타고 말 가운데 빈터만 남아 있다.

2. 二十四世 具然台

공은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감일리에서 출생하였다. 천성(天性)이 지효(至孝)하여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에 하늘에 기도하여 자기가 대신하기를 구하여 똥을 맛보고 잠시라도 옆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루는 아버지가 노루고기를 먹고 싶다하나 집이 가난하여 구하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있더니 홀연히 노루 한 마리가 뛰어 들어와서 그것을 공궤(供饋)하였다 한다. 어느 때에는 아버지가 꿩의 고기를 먹고 싶다 하더니 홀연히 꿩 한 마리가 날아와서 뜰에 떨어졌다 한다.

고종(高宗) 때에 광주 향교에서 관가에 진정하여 광주(廣州) 부윤(府尹)과 관찰사(觀察使)의 제사(題辭)와 비답까지 있었으나 마침 갑오개혁(甲午改革)이 되어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 사실은 조선인물호보(朝鮮人物號譜)라는 책에 자세히 실려 있다.